

세계 섬 문화 비교연구

— 사르데냐와 제주도 —

박찬식·김은실·장수현·이향철·김현미

20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목 차

I. 서론	1
1. 연구필요성	1
2. 연구방법	3
3. 연구내용	5
II. 인구 및 이주의 최근 동향과 특성	9
1. 들어가면서	9
2. 인구추세	9
3. 시기별 이주 패턴	13
1)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까지	13
2) 2차 세계대전 이후	15
3) 2000년대 이후	17
4. 섬의 미래를 위한 고리로서의 외국인 이주민	19
5. 사르데냐와 제주도: 정책적 시사점	21
III. 이탈리아공화국의 주제도와 지방분권의 전개	25
- 사르데냐 특별자치주를 중심으로	
1. 문제의 제기	25
1) 오랜 중앙집권적 관료지배의 전통	25
2)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25
2. 이탈리아공화국의 지방행정제도와 특별자치주	26
1) 특별자치주의 설치	26
2) 보통주의 설치	29
3. 중앙과 지방의 입법권과 역할 분담: 주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체제의 구현 ...	30
1) 중앙·지역·지방 관계의 지각변동	30
2) 입법권과 행정 권한	31
4. 세제의 지방분권화와 국가자치단체간 재원 조정	35
1) 중앙과 지역·지방의 재원과 조정	35
5. 마무리글	38

IV. 생태 및 환경을 둘러싼 이슈들	43
1. 들어가는 말	43
2. 사르데냐의 생태유토피아적 특성	44
1) 장수 신화: “그 마을에서는 주말마다 함께 빵을 굽는다”	45
2) 해안 환경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	37
3) 저항의 관광화	48
3. 군사주의적 재앙과 생태유토피아의 불가능성	49
1) 군사주의를 통한 섬의 남용	49
2) 사르데냐의 군사기지 문제와 재앙의 일상성	51
4. 제주와의 비교 및 참조체계로서의 사르데냐	54
V. 사르데냐의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사르데냐의 노력	58
1. 연구목적	58
2. 사르데냐 관광산업의 시작	59
3. 해안/해변과 별장 중심 계절성 관광의 특성과 한계	61
4. 다양한 관광산업으로의 변화 모색	66
1) 지역과 계절의 한계를 넘어서는 농촌관광(Agro-tourism)	66
2) 역사와 문화가 통합된 질 높은 문화 관광(Cultural tourism)	68
3) 지역고유성과 건강이 담긴 음식관광(Food tourism)	71
5. 사르데냐 관광의 최근 경향: 생태와 지속가능한 관광	75
6. 나가며	78
VI. 결론 및 시사점	82
1. 결론	82
2. 시사점	83
3. 제언	84
부록 1. 유럽관광지표시스템(ETIS) 소개	86
부록 2. 지속가능관광개발: 사르데냐 산탄티오코 사례 소개	98
부록 3. 음식관광의 다양한 정의방식	104
부록 4. 세계 섬문화 비교 연구 이탈리아 사르데냐 출장보고서	106
부록 5. 세계 섬문화 비교 연구 면담 조사 회의록	121

<표 차례>

<표 1> 사르데냐 현지 방문조사 전체 면담자 목록	4
<표 2> 사르데냐 인구 변동 추세, 1688~2011	11
<표 3> 사르데냐 외국인 이주민의 지역별 분포, 2016	18
<표 4> 이탈리아 특별자치주의 현황	29
<표 5> 이탈리아 지역·지방 단체의 세입·세출 내역	36
<표 6> 유럽 주요국의 지방제도 비교	39
<표 7> 2012년도 유형별 관광 숙박	62
<표 8> 2012년도 지역별 호텔 및 다른 시설별 관광 숙박	63

I. 서론

1. 연구필요성

왜 제주는 세계 섬문화에 주목하는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섬은 인구 백만 내외의 소규모 독립국가 또는 자치정부를 이루고 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섬은 해상왕국, 해상교역, 활발한 이주 등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대륙의 중앙집권 국가에 정복당해 지배를 받게 되면서 섬에 대한 이미지는 유배, 격리, 침탈, 정복, 원주민 학살, 수난 등의 부정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한동안 바다는 거친 자연, 태풍, 위험, 외국의 침략 창구 등 섬을 고립시키고 가두어버린 공간이었다. 그러기에 섬사람들은 바닷길이 다시 열리기 전까지 전통적으로 가난과 불안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섬사람들은 자급자족의 힘으로 자존(自存) 공동체의 사회경제, 역사문화, 현실사회를 지탱하여 왔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해서 살아가려는 섬사람들의 생활사는 자기정체성이나 존재를 대륙이나 반도보다 더 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공동체문화를 배태시켜 왔다.

20세기에 들어와 섬은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항공기와 선박기술의 발달로 섬의 독특한 문화, 매력적인 자연경관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경제구조가 취약한 섬 정부와 섬사람들은 관광을 섬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력한 산업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이면에 섬 지역경제에 대한 외부자본의 지배, 개발 과정에서 주민 소외와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과 같은 부정적 결과도 함께 하였다. 또한 수많은 환경·사회·문화적 문제들이 대두하게 되었다.

최근 세계의 섬들에서는 삶의 질 향상, 방문객 관리, 자연환경 유지 등을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균형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별자치 지방정부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제주도가 과거 ‘탐라’ 독립왕국이었던지, 세계의 유명한 섬들은 독립국 또는 자치주나 자치도로 존재하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시칠리아, 스페인의 마요르카, 프랑스의 코르시카, 그리스의 크레타와 같은 유럽의 지중해 섬들은 제주도처럼 경제 자립을 위해 특별자치를 선택하였다.

오늘날 섬을 변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저히 적어졌다. 오히려 새로운 해양문명의 중심이고 인류 문명이 지속 번영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세계 섬문화 비교를 통해 세계의 섬들이 보여준 성공과 실패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냄으로써 지속가능한 제주섬의 미래 발전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왜 제주가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에 주목하고, 제주학연구센터는 사르데냐 섬을 연구하는가? 지구 반대편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을 연구하는 것이 제주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전 세계 제일의 장수 섬,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섬, 이탈리아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과 자치성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섬,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광을 지향하는 섬, 이탈리아 군대의 60%가 주둔하는 섬,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의 이주 관문으로서의 사르데냐 섬은 과연 제주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사르데냐가 제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사르데냐는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특별자치지역으로 선포되어 고도의 자치를 지향하는 섬이다. 과거 독립왕국의 역사 전통을 갖고 있으며 중세 이래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그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역사도 지니고 있다. 제주와 비슷하게 과거 끊임없는 민중저항운동(민란)이 전개되었으며, 최근까지 군사기지·국립공원 반대 운동 등이 계속되었다. 또한 사르데냐어를 이탈리아어와 함께 공용어로 지정하였으며, 독특한 음식문화와 장수의 섬, 세계문화유산의 섬, 여성성을 기반으로 한 가족문화, 독특한 섬의 민속문화 등 제주도와 매우 비슷한 성격의 섬이다. 현재 관광객 등 유입 이주민이 급증하고 있으며, 섬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해 미래산업 발전전략을 가동시키고 있다.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와 교류를 시도한 바도 있다.

이렇듯이 제주 섬과 사르데냐 섬의 역사문화와 현실, 미래비전 등을 상호 비교 탐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제주학연구센터가 세계 섬 문화 비교 연구의 적합한 탐색 대상으로 사르데냐 섬을 선택한 까닭이다.

기존 제주학 연구자들은 동아시아의 오키나와와 타이완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른 섬 문화와 제주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시켜 왔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이러한 세계 섬 문화 비교 연구는 섬이라는 지리학적 특성과 섬의 다양한 특수성으로 인해 섬들의 다양한 교차성과 공통성을 분석하고 제주를 연구하는 하나의 비교 틀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세계의 섬들은 독립국 또는 자치주나 자치도로 존재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해온 동시에 섬이 갖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이점과 한계로 인해 새로운

섬 문화를 만드는 다양한 성공과 실패의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다. 세계 섬 문화 비교 연구는 서로에게 준거집단으로서 지속가능한 섬의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섬들과 제주도의 과거 역사문화와 현재의 정치·사회·문화를 서로 비교 연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섬·해양 문명의 지역학을 정립하고 미래비전이 도출되기를 또한 기대한다.

섬 문화 비교연구의 맥락에서 사르데냐 연구는 단순히 이질적인 유럽의 섬인 사르데냐 문화 연구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르데냐 연구는 현재 세계 속의 섬으로서 글로벌과 로컬의 경계를 넘나드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를 세계의 섬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시도되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연구를 시작으로 제주의 섬 연구는 기존에 제주학에서 중심으로 연구해온 동아시아 섬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글로벌이라는 확장된 공간에서의 세계 섬문화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모색하고, 글로벌 지형 안에서 로컬로서의 제주와 제주학의 위치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제주학’을 지향하며, 제주의 가치를 인류의 보편적 문화 가치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재 제주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갈등과 문제들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비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팀은 섬의 정체성, 자치성, 이주, 관광, 장수, 생태,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긴장과 실천, 역동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의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의 사례 연구를 위해 2017년 3월에서 5월까지 사르데냐의 역사, 문화, 이주, 생태, 관광 등에 관한 문헌을 연구하였다. 2017년 6월에는 6월 14일(수)부터 2017년 6월 23일(금)까지 총 8박 10일간 사르데냐를 방문하여 현장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장 연구에서는 사르데냐 지방정부, 학자, 연구자 및 전문가들과 좌담, 면담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제도와 정책, 학술연구를 넘어서 현지 지역 방문 및 지역 단체장, 이해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사르데냐 시민사회의 역할과 실천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현지 방문조사 전체 면담자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 사르데냐 현지 방문조사 전체 면담자 목록

일자	면담자	소속 및 지위	내용
6월 15일	Marco Sechi	사르데냐 지방정부 대외협력 담당관	사르데냐 관광정책 및 주정부의 역할
	Giovanni Coinu	칼리아리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르데냐 특별자치주 법제도
	Ilenia Ruggiu	칼리아리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르데냐 민족 구성 및 이주
	Sanrina Perra	칼리아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르데냐 젠더 문제 및 정책
	Gianmario Demuro	칼리아리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르데냐 정치구조 및 헌법
6월 16일	Alessandra Carucci	칼리아리대학교 부총장	사르데냐 지속가능한 발전 및 정책
	Pierluigi Caboni	칼리아리대학교 약학과 교수	사르데냐 음식, 장수, 영양학
	Patrizia Modica	칼리아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럽연합 및 사르데냐 지속가능한 관광
	Gianluigi Bacchetta	칼리아리대학교 환경, 생물학 교수	사르데냐 환경과 생물다양성
6월 17일	Roberto Pili	Global Community of Longevity	사르데냐 장수문화 및 건강

		대표	
	Maria Concetta	기아(Chia) 시장	기아 지역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
	Massimiliano and Denise	Tutto Santantioco 여행사 대표	산탄티오코 지역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
6월 20일	Luca Deidda	사싸리대학교 부총장	사르데냐 지속가능한 발전 및 정책
	Luciano Gutierrez	사싸리대학교 국제교류처장 외 2인	
	Antonio Piga	사싸리대학교 농업학 교수	사르데냐 음식, 장수, 농업경제
	Dino Manca	사싸리대학교 문학 교수	사르데냐 정체성, 역사, 문화
6월 22일	Antonatta Bruno	사피엔자대학교 한국어/문학 교수	사르데냐 역사, 문화

3.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각 공동연구원들이 제주와의 관련 속에서 주제를 선정하여 문헌연구와 현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다. 사르데냐 연구는 4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정리하였다. 사르데냐의 인구 및 이주의 최근 동향과 특성, 사르데냐의 특별 자치주의 법적 지위 및 행정 재정 분권화, 사르데냐의 생태 및 환경을 둘러싼 이슈들,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사르데냐의 노력이다. 연구 내용과 보고서의 진행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첫째, 장수현이 사르데냐의 인구 및 이주의 최근 동향과 특성을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사르데냐의 장기적인 인구 변동 추세를 살펴본 다음 최근의 인구 안정화 경향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와 인구의 해안도시 집중에 따른 내륙 공동화 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또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사르데냐 섬의 이주 패턴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특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청장년층 인구의 유출과 외국인 주민의 유입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향후 예상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와 연결시켜 외국인 이주민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외국인 주민의 증가는 섬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틈새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르데냐의 인구 및 이주 동향이 제주도와 관련하여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지를 논의하였다. 무엇보다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대규모 개발과 상업화, 관광객 포화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함으로써 제주도가 갖고 있는 힐링과 대안적 삶의 장소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사르데냐와 같은 심각한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방지하는 효과적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둘째, 이항철이 사르데냐의 역사 속에서 특별 자치주의 법적 지위 및 행정 재정 분권화를 연구하여 정리하였다. 사르데냐(Sardinia)는 지중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문명을 이룩한 섬들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기원전 1,500년경 사르데냐인들이 건설한 누라게(Nuraghe) 문명을 상징하는 <수 누락시 디 바루미니>(Su Nuraxi di Barumini) 유적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사르데냐 고대문명은 인근 지중해의 이베리아반도, 이탈리아반도, 아프리카 북단으로부터 들어온 이주민들에 의해 건설되었다. 그러나 기원전 6세기 이후로 카르타고와 로마로부터 번갈아 공격을 받은 끝에 기원전 3세기 포에니전쟁을 계기로 로마에 의해 정복되어 694년 간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았다. 로마 통치 이후에도 사르데냐는 게르만족, 비잔티움제국, 아라곤왕국, 스페인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 1720년 사보이 공작에 의해 성립된 사르데냐 왕국은 19세기 이탈리아 통일운동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그럼에도 사르데냐인들은 이탈리아 본토와 공동체적 유대감이 약하다.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연합군의 이탈리아 상륙의 전초기지로, 전후에는 NATO의 해군 기지로 폭넓게 활용되었다. 1948년부터 현재까지 이탈리아공화국의 특별자치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1970년대까지 자치와 분권이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구현한 것은 공화국 출범을 전후하여 설치된 5개의 특별자치주였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치와 분권이라기보다 국가통합을 위한 1국 2제도 운영이라는 성격은

농후하게 지니고 있었다. 사르데냐는 이탈리아 왕국의 주축으로 국토통일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국민국가 창출 과정에서는 지리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주변지역으로 전락하고, 생태환경이나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보호나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특별자치주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1948년 2월 헌법적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채택된 주헌장에 의해 사르데냐 특별주의 권한, 재정, 조직, 국가와의 관계 등 독자적인 자치의 형식과 조건이 규정되었다. 독자적인 입법권 외에 관할 영역 내에서 징수되는 부가가치세 90%, 소득세 70%, 상속증여세 50% 등 국세 일부를 배분받는 등 재정적인 자립성도 확보한다. 1990년대 「신지방자치법」, 「코무네 수장, 현 지사, 코무네 의회 및 현 의회의 직접선거법」, 「보통주 의회 의원의 선거법」, 「밋사니니 법 등 일련의 법령 제정으로 지방자치가 정비되고, 1999년 헌법적 법률 제1호 「보통주 주지사의 직접선거 및 주의 헌장 자치 강화에 관한 규정」과, 2001년 헌법적 법률 제2호 「특별주 지사의 직접선거에 관한 규정」에 의한 헌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개혁이 마무리된다. 보통주도 사르데냐 특별자치주와 동등한 입법권과 행정권한, 재정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셋째, 김현미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사르데냐를 어떻게 낙원과 지옥이라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했는지를 분석하면서 사르데냐의 생태 및 환경을 둘러싼 이슈들을 정리하였다. 섬이라는 지역성은 의식주 및 생계양식, 심리적 특질을 포함하여 토착성이 구성되는 곳이고, 생태계의 보고(寶庫)이면서 동시에 언제든지 중앙정부의 정치적 통제와 ‘남용’의 가능성에 노출된다. 사르데냐는 이탈리아 군사기지의 80퍼센트가 집중된 초고도화된 군사복합단지이다. 사르데냐는 오염되지 않는 생태계의 보고 및 장수지역이라는 이미지와 군사기지로 인한 생태계의 오염과 질병 발생이라는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넷째, 김은실이 사르데냐의 지속적인 관광을 위한 노력에 대해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사르데냐는 원래 외부의 침입과 해안지역의 말라리아 때문에 섬 내륙에 도시와 마을을 건설하여 목축과 농업에 기반한 경제를 발전시켜 왔던 곳이다.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르데냐의 관광산업은 특별자치구로서의 지위를 성취하고 해안지역의 말라리아가 근절된 1948년 이후에 시작되었다. 1960년대 이후에 사르데냐 북쪽 해안이 고급 관광산업의 중심으로 개발되기 시작했고, 1970년대 이후 섬의 많은 해안지역에 집중적으로 무분별한 숙박시설과 별장 건설 붐이 일기 시작했다. 1990년대가 되어서야 해안지역

을 보호하고, 해안선을 변형시키는 개발을 강하게 규제하는 행정규제 정책이 만들어진다. 현재는 원안의 강제력이 많이 후퇴하고 수정되었지만, 해변에서 300m 이내에는 새로운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조례가 지켜지고 있다. 지방정부는 현재 500미터로 그 기준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사르데냐 관광이 해안지역에 집중되고 또 여름에 집중된다는 특성은 오랫동안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는 균형 잡힌 관광산업의 발전이란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사르데냐의 환경과 경제 그리고 도시 기반 시설의 균등한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큰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관광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는데, 지역과 계절의 한계를 넘어서는 농촌관광(Agro-tourism), 역사문화가 통합된 질 높은 문화관광(cultural tourism), 지역고유성과 건강이 담긴 음식관광(Food tourism) 등이 대표적인 대안들이다. 최근 사르데냐 관광정책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자연보존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조이고, 이를 위해 강한 다양한 규제정책을 입법하고 ETIS 등을 통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노력을 펴하고 있다. 부록에 첨가되어 있는 유럽관광지표시스템(The European Tourism Indicator System; ETIS)은 지역의 관광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개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거버넌스 구축과 협상, 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모델이다.

다섯째, 박찬식이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과 시사점을 정리하고, 제주도 와 사르데냐의 현실과 미래비전에 대한 분석과 전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여섯째, 김효정 연구보조원이 <부록 1>과 <부록 2>의 자료로, 유럽관광지표시스템(ETIS)과 그것의 실제 적용 사례를 번역하여 첨부하였다.

II. 인구 및 이주의 최근 동향과 특성

1. 들어가면서

섬의 인구와 이주 추세는 그 섬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표준적으로 수용 가능한 삶의 장소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삶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섬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젊은 연령층의 대량 이출로 인해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고령화되며 결국 그 섬은 생명력을 잃게 된다. 반면에, 어떤 섬들은 인구가 증가하기도 한다. 섬이 가진 어떤 긍정적 요소들이 외부로부터 특히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섬의 생명력을 유지하거나 되살리는 경우들도 있다.

사르데냐는 시칠리아에 이어 지중해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큰 섬이며 인구 또한 적지 않지만,¹⁾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고령화 추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이 섬의 존속 혹은 발전과 관련하여 인구 및 이주 추세는 매우 중대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먼저 사르데냐의 장기적인 인구 변동 추세를 살펴본 다음,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사르데냐 섬의 이주 패턴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어서 최근의 외국인 이주민 증가 현상에 주목하고 그것이 사르데냐 중부 내륙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르데냐 사례가 제주도와 관련하여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이 장을 맺고자 한다.

2. 인구 추세

사르데냐 섬은 독특한 전통과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이탈리아 자치주의 하나이다. 바로 북쪽에 프랑스 영토인 코르시카(Corsica) 섬이 있고 동쪽으로는 최단 거리로 약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이탈리아 본토가 있다. 남쪽의 북아프리카 해안까지는 불과 184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곳은 국경지대(border region)이면서 경유지대(transit region)라 할 수 있다(Gentileschi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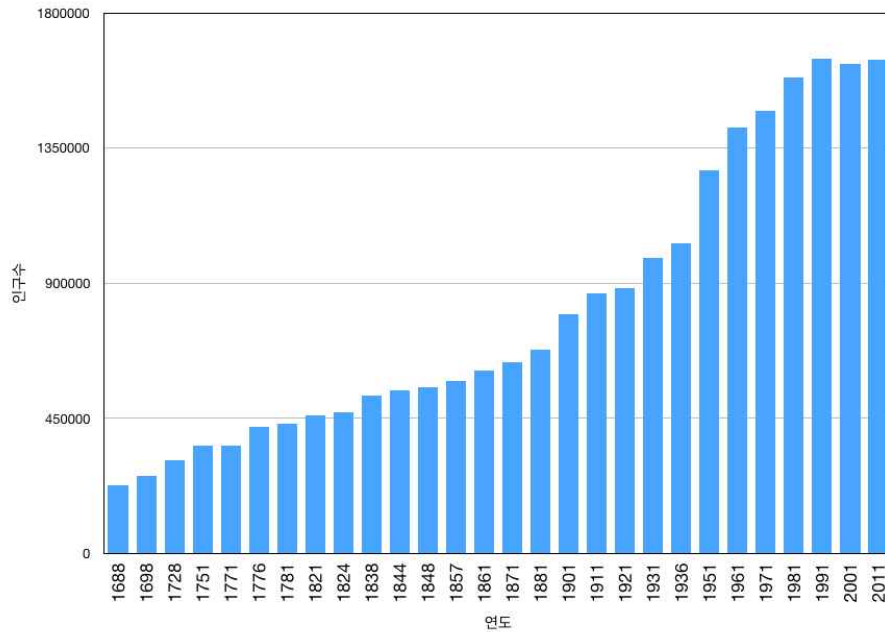
1) 사르데냐 섬의 면적은 24,000km²로 제주도의 13배에 해당하지만, 인구는 2016년 현재 165만 명으로 제주도의 2.5배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구밀도 면에서는 제주도가 사르데냐의 5배에 해당한다.



[그림 1] 지중해 해역의 통로 사르데냐

지중해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며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섬의 인구는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30만 명 선을 넘지 못했다. 몇 가지 요인이 인구 규모를 제한하였다. 첫째, 남부의 캄피다노(Campidano) 평야 일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높은 산들과 깊은 골짜기들로 이뤄져 있는 섬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인구를 지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해안지역의 정착지 형성은 해안 습지들에서 번성한 말라리아와 특히 북아프리카에 근거지를 둔 해적들의 빈번한 약탈로 인해 순조롭게 진행되기 힘들었다. 셋째, 여러 차례 섬에 퍼진 전염병과 기근 탓에 심각한 인구 감소가 발생했다. 특히 1348년의 흑사병은 섬 인구를 반으로 축소시켰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는 15세기 후반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17세기 들어 기근과 자연재해, 전염병 등에 의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Corsale 2016: 64~66).

<표 2> 사르데냐 인구 변동 추세, 1688~2011



섬 인구는 18세기로 접어들어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19세기 중반에 50만 명 선을 넘어섰고 1936년 인구조사에서 처음으로 100만 명 선을 돌파했다. 공식 인구센서스 결과를 기준으로 할 때 최고 정점을 찍은 해는 1991년으로 사르데냐 주민으로 등록된 인구는 165만 명에 달했다. 그 뒤로 인구 규모는 큰 등락 없이 160만 중반 선을 유지하고 있다.²⁾ 이탈리아 통계청(ISTAT)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사르데냐 섬 인구는 1,663,286명으로 미미하지만 약간의 증가세를 보인다.

현재 섬 인구는 전입인구 증가 덕택에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구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섬 인구의 감소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2030년에는 인구가 5%에서 30%까지 감소하고 2050년에는 최대 40%가 줄어든다(Corsale 2016: 75).

더욱이, 사르데냐의 출산율(fertility rate)은 2011년 1.11에서 매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6년 추정치는 1.07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 연구팀의 인터뷰에 응해준 칼리아리대학교 사브리나 페라(Sabrina Perra) 교수에 따르면 1970년대 경제 부흥 이후 여성의 공적 영역 참여가 늘어나면서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왔다. 여성

2) 이에 대해서는 <https://en.wikipedia.org/wiki/Sardinia>를 참고하라.

의 첫 자녀 출생 연령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어떤 조사를 보면 3년 이내에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부부가 전체의 25%를 차지한다고 한다. 2008년 유럽 경제위기에 따른 저성장으로 저출산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저성장은 여성 취업률을 떨어뜨림으로써 자녀 출산의 기반이 되는 경제력을 잠식한다.

낮은 출산율과 함께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2001년 116.1%였던 사르데냐 섬의 노령화 지수는 2011년 164.1%로 상승하여 전국 평균인 148.7%를 상회하게 되었다.³⁾ 이 지수는 섬 내부에서 큰 지역적 편차를 나타내는데, 특히 오리스타노(2001년 140.3%, 2011년 200.1%), 카르보니아-이글레시아스(2001년 124.4%, 2011년 193.2%), 메디오 캄피다노(2001년 124.9%, 2011년 183.5%) 지역에서 그 증가 속도와 폭이 크다. 반면 올리바-템피오의 노령화 지수는 2001년 106.1%, 2011년 136.2%로 이탈리아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Corsale 2016: 72). 사르데냐 섬의 노령화 지수는 2013년 169.2%, 2013년 174.4%, 2015년 180.7%, 2016년 187.9%, 2017년 195.5%로 매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ISTAT).

섬 인구의 지역적 분포를 볼 때 근대 이전까지 사르데냐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해안보다 내륙에 더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 섬은 고대로부터 많은 외부세력의 침입을 받았다. 페니키아, 카르타고, 로마, 반달족, 비잔틴 제국, 피사와 제노바, 카탈루냐와 스페인, 피드몬트 등이 이 섬을 정복하여 지중해 해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는 교두보로 삼았다.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은 지형적 특성상, 사르데냐 전체를 식민화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토착민 대다수는 약탈과 말라리아를 피해 외부세력의 접근이 쉽지 않은 내륙 고지대에서 목축과 농업에 종사하며 살았다. 로마제국 치하에서조차 내륙의 토착민들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는 이뤄지지 않았다.⁴⁾

로마 멸망 이후에도 수 세기 동안 해적들의 빈번한 약탈과 해안에 만연한 말라리아 탓에 해안보다는 내륙 산악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구도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19세기 때부터였다. 프랑스와 영국의 지배가 강화되면서 지중해 해역에서 해적들이 사라졌고 해안 주민들을 괴롭혔던 말라리아 또한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점차 퇴치되면서 해안지역으로의 인구

3) 노령화 지수(aging index)는 유소년층 인구(0~14세) 100명에 대한 노년층 인구(65세 이상)의 비를 말한다.

4) “이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우리 이야기야. 우린 스스로를 지킬 거야. 로마인들에 대항해서 그랬던 것처럼 우린 늘 그래. 알다시피, 로마제국조차도 이 산으로는 들어오지 못했지”(Sorge 2015: 4) 이 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내륙 산악지역의 목축민들은 자신들이 로마군의 침략을 버텨낸 것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자신들이 진정한 사르데냐인이라고 믿는다.

이동이 증가했다. 특히 섬 남부의 항구도시 칼리아리(Cagliari)는 이탈리아 남부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로 부상했고, 북부 해안에서 가까운 사싸리(Sassari) 등 다른 도시들도 빠르게 성장했다. 칼리아리와 사싸리의 인구는 각각 1861년 37,200명과 25,600명에서 1936년 98,000명과 54,900명으로 늘어났다(Corsale 2016: 66~67).

20세기 후반부에 접어들어 해안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⁵⁾ 인구의 해안 집중 현상은 더욱 더 심화되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농업과 목축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내륙을 떠나 해안 도시들로 이주하였다. 그에 따라 내륙지역은 심각한 고령화와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를 안게 되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 이 추세가 약간 완화되기는 했지만 칼리아리, 사싸리, 올비아, 그리고 북동부와 동부 해안지역의 관광지들을 제외하고는 인구 감소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일부 내륙 코문들의 경우는 존립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다(Corsale 2016: 68~72).

3. 시기별 이주 패턴

이탈리아는 1876~1975년 기간에 전체적으로 2천7백만 명 이상이 해외로 이주했고 1955~70년 기간에만 무려 2천5백만 명이 도농간 이주와 남북부간 이주에 참여했다(Carboni and Foïs 2016: 99). 사르데냐의 경우, 고립된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주 시기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조금씩 늦춰지기는 했지만 경제적으로 낙후한 다른 남부 농업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인구가 국내외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사르데냐의 이주는 크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 2000년대 이후 등 세 시기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1)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까지

사르데냐의 이주 물결은 다른 남부 지역들보다 이삼십년 늦은 1890년대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공식적으로 보고된 최초의 해외 이주 사례

5) 사르데냐는 시칠리아 섬에 비해서도 도시 개발이 해안지역에 훨씬 더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이 섬의 내륙이 대부분 산지라는 지형적 특성과 함께 초국적 자본의 대규모 투자가 북동부 해안의 코스타 스메랄다(Costa Smeralda)와 같은 해변 리조트 건설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과 연관되어 있다(Fiorini 2016).

는 1843년 고네사(Gonnesa)와 카를로포르테(Carloforte)에서 일자리를 찾아 알제리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이주 사례들은 계절적 성격을 띤 경우가 많았고 가난과 장기간의 흉작이 주된 원인이었다(Aru 2016:85). 초기 이주민들은 주로 남부와 남서부 지역 출신의 장인, 광부, 농업노동자들로 구성되어있으며 대부분 칼리아리 항구를 통해 북아프리카의 튀니스와 알제 등지로 나갔다.

19세기 마지막 몇 년 동안 이주 물결이 거세졌다. 1896년과 1897년에 사르데냐에서 해외로 이주한 사람은 1년당 2천명이 넘었다(King and Strachan 1980: 210). 특히 사르데냐 서부의 로구도로(Logudoro)와 보사(Bosa) 지역에서 많은 인구가 빠져나갔다. 1906~14년 사이에 1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해외로 나갔다. 이들의 주된 목적지는 알제리와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지역이었지만 유럽과 남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유럽 지역 중에서는 프랑스로 이주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한편, 남미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기록된 사례 중에서는 1882년에 사르데냐 남부 마을의 서른여섯 가족이 플랜테이션과 철로 건설 분야에서 일하러 남미로 떠난 것이 최초의 남미 이주 사례로 알려져 있다(Unali and Mulas).



[그림 2] 사르데냐인의 해외이주 주요 행선지

이처럼 해외 이주가 크게 늘어난 것은 당시 사르데냐 농축산 부문의 위기와 연관되어 있다. 1877년부터 이탈리아 정부는 프랑스와 체결한 1863년

경제조약에 어긋나는 관세 정책을 시행했다. 북부의 공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 조치로 인해 사르데냐 농축산업은 치즈, 가죽, 코르크, 광물 등 주요 생산품을 수입해온 프랑스 시장을 잃게 되었다. 게다가 이탈리아 통일에 앞서 피드몬트 정부가 섬의 근대화를 위해 도입한 각종 개혁 조치들이 사르데냐 농촌경제를 한계상황에 몰아넣었다(Aru 2016: 87~88).

1920년대 중반부터는 해외이주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는 사르데냐의 농촌경제 호전에 다른 결과는 아니었다. 1930년대와 40년대에 농업기금이 축소되고 목축에 대한 재정지원이 없어지면서 농촌 상황은 오히려 더 불안정해졌다. 이 시기 해외이주 감소는 이탈리아와 주변 국가들의 이주정책의 변화에 기인한다. 한편으로는 1929년 대공황 이후 많은 국가들이 점점 더 엄격한 이민정책을 채택하여 외국인의 이주를 제한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부 역시 1926년부터 자국민의 해외 이주를 엄격하게 통제하기 시작했다(Aru 2016: 88~89).

2)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에도 1차산업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인해 사르데냐 농촌경제의 불안정성은 지속되었다. 이는 농업부문 종사자의 급속한 감소로 이어졌다. 1951년, 1961년, 1971년에 농업부문 고용은 각각 220,000개, 16,6000개, 91,000개가 없어졌다. 1960년대 들어 섬 자체의 자원 및 생산구조와 동떨어진 석유 화학산업 위주의 발전 전략이 추진되면서 제조업 부문의 성장 폭이 제한되었다. 결과적으로, 빠른 속도로 줄어든 농업부문 고용을 2차산업 부문이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Aru 2016: 90).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1950년대부터 대량의 이주가 발생했다. 전후 시기 전체를 통틀어 사르데냐를 빠져나간 사람은 120만 명에서 14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1955년부터 1971년까지 16년 동안만 최대 40만 명이 국내외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수치는 1971년도 섬 인구의 27%에 해당하는 데,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주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King and Strachan 1980: 212).

전후 시기에 사르데냐에서 이주가 하나의 현상으로 부각된 것은 1955년 이후의 일이다. 이주의 진원지는 남서부에 위치한 술치스-이글레시엔테(Sulcis-Iglesiente) 지역이었다. 석탄, 납, 주석 등의 광산이 밀집해 있던 이 지역에서 1951과 1961년 사이에 전체 고용의 41%에 해당하는 11,600개의 광산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 기간 동안 이 지역에 속한 19개 코뮌의

인구가 25% 줄어들었고, 1961~71년 기간에 다시 22%가 더 감소했다. 이들 중 많은 수는 프랑스의 로렌(Lorraine) 지역 탄광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1955~62년에 프랑스로 이주한 사르데냐인은 2만2천명에 달했다. 이주 붐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였다. 이주의 진원은 더 이상 광산지대에 국한되지 않고 농업지역과 목축지역으로 확대되었다. 1960년대 초기는 곡물생산이 중심이 되는 구릉지대 농민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1960년대 후반에는 고산지대인 바르바지아(Barbagia)의 목축민들 중에서도 이주 대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King and Strachan 1980: 210~221).

전후 시기는 국외보다 국내 이주의 비중이 커졌다. 1951~71년 기간 이주자 총 40만 명 중에서 이탈리아 타 지역으로 나간 사람은 30만여 명인 데 비해, 해외 이주자는 9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1960년대로 접어들어 공업이 발달한 이탈리아 북부의 고용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북부 도시들로의 이주가 크게 증가했고, 그만큼 해외로의 이주 흐름은 약화되었다. 사르데냐 이주민들이 선호한 곳은 사르데냐와 역사적 관련성이 깊은 피드몬트와 리구리아 지역을 비롯해서, 롬바르디, 투스카니, 라티움, 캄파니아 등이었다. 리구리아, 라티움 등지에 정착하여 농목축업에 종사한 이주민도 일부 있기는 했지만 대다수는 공업이 발달한 토리노, 제노아, 로마 등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로 이주했다(King and Strachan 1980: 210).

전후 시기에는 북아프리카로의 이주는 크게 줄어들었고 그 대신 유럽 국가들이 주된 목적지가 되었다. 이 시기 해외 이주자의 93%가 유럽 다른 나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유럽에서 사르데냐인들이 가장 선호한 국가는 프랑스였지만 뒤로 갈수록 독일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Aru 2016: 92~93).

섬 내부적으로는 칼리아리, 오리스타노, 사썬리, 포르토 토레스(Porto Torres) 등 산업이 발달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특히 많은 인구를 흡인한 곳은 수도 칼리아리였다. 칼리아리 인구는 1951명 약 14만 명에서 1961년 약 18만 명, 1971년 약 22만여 명으로 늘어났다(King and Strachan 1980: 213).

1970년대로 들어선 이후에는 해외 이주 물결이 상당히 약화되어, 1972년을 기점으로 해외로 나가는 사람보다 귀환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사르데냐 경제상황의 호전에 힘입은 것이 아니라 당시 유럽을 포함한 세계 여러 지역의 경제위기로 인해 해외 일자리가 줄어든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 취업 기회가 줄어들면서 영구적 이주 대신 일종의 “왕복”(round-trip) 이주, 즉 섬 외부와 내부를 돌아가며 거주하는 순환적(rotational) 이주 형태가 늘어났다(Aru 2016: 93).

3) 2000년대 이후

최근 사르데냐 인구는 꾸준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163만 명이었던 섬 인구는 2013년 166만 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인구 자연증가와 는 무관하며 섬으로의 인구 유입이 유출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해외보다 국내 이주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내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 사르데냐에 거주등록을 한 이입자 숫자와 사르데냐 거주등록을 취소한 이출자 숫자는 각각 376,899명과 372,890명으로 거의 비슷한 수치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르데냐와 해외지역 간의 이주는 전입(54,900명)이 전출(19,602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의 단기 추세를 보면 다시 이출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3년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2년간 섬을 떠난 사람은 약 6천6백 명에 달한다. 이들의 연령대는 18세에서 34세이고 대부분 술치스(Sulcis)와 누오로(Nuoro) 지역 출신이다. 이들의 목적지는 이탈리아 북부지방, 특히 밀라노가 많았으며 해외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도 600명 정도 있었다. 이는 섬 내륙 소도시들의 인구감소와 도시 및 해안지대로의 이동이라는 양극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려준다(Aru 2016: 93~95).

해외 이주 역시 전출이 전입보다 많아졌다. 2010년과 2013년을 비교할 때,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은 5,945명에서 4,361명으로 감소한 반면, 해외로 나가면서 거주등록을 취소한 숫자는 1,485명에서 2,593명으로 증가했다. 해외 이주는 독일과 프랑스로 나가는 사람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그 뒤를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잇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은 우루과이,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로의 이주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와 같은 이주 흐름은 단순한 고학력자 “두뇌 유출”(brain drain) 현상이 아니라 3차산업 부문의 위기, 인플레이션, 취업난, 그리고 산업시설 폐쇄에 따른 고용 악화 등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Aru 2016: 95~97).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현상은 외국인 주민의 증가이다. 과거에는 사르데냐를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는 국제적 이주자가 많지 않았다. 사르데냐에 입항한 외국인들은 임시거주증을 받은 다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Gentileschi 2005). 1970년대 후반 무렵부터 특히 모로코인을 비롯한 일부 북아프리카인들의 정착 사례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규모는 무시할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르데냐를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는 외국인 이주민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존재가 눈에 띄게 커졌다.

사르데냐 외국인 주민의 절대숫자와 비중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⁶⁾ 2013년 사르데냐의 외국인 주민은 35,600명으로 이는 섬 전체 인구의 2.2%에 해당한다. 외국인 비율이 이탈리아 20개 주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1991년의 수치가 각각 7,253명과 0.4%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상적인 증가세라 할 수 있다.

국적별 구성도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1990년대는 북아프리카 출신이 대다수였지만 2000년 이후 출신국가가 훨씬 다양해졌다. 특히 동유럽 출신 이주민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할 때 1위는 루마니아 이주민으로 총 9,654명이 살고 있다. 이는 전체 외국인의 27%에 해당한다. 그 다음은 모로코(3,884명), 세네갈(2,793명), 중국(2,699명), 우크라이나(1,681명) 순서이다.

<표 3> 사르데냐 외국인 이주민의 지역별 분포, 2016

지 역	인 구
전 체	47,425
사 싸 리	8,982
누 오 로	3,916
칼리아리	15,724
오리스타노	2,892
올비아-템피오	11,826
올리아스트라	919
메디오 캄피다노	1,307
카르보니아-이글레시아스	1,859

외국인 이주민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이들은 섬 전체에 퍼져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사르데냐 전체 인구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해안과 도시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특히 관광 등 3차산업이 발달한 남부의 칼리아리와 북동부 올비아-템피오 지역에 외국인 인구의 약 60%가 산다.

6) 사르데냐 섬의 외국인 주민에 대한 아래 설명은 Carboni and Fois(2016)를 참고했다.

4. 섬의 미래를 위한 고리로서의 외국인 이주민

앞에서 살펴봤듯이, 사르데냐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다. 섬의 미래가 걸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젊은 연령층이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고 국내외의 젊은 이주민이 더 많이 섬에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섬의 각종 지표를 보면 이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처럼 보인다. 사르데냐는 2011년을 기준으로 부(wealth)의 수준에서 유럽 272개 지역(region) 중 190위를 기록했다. GDP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일자리 역시 2007년 61만 개에서 2013년 55만 개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실업률은 7%에서 17.5%로 상승했다(Carboni and Foïs 2016: 104).

세계적 명성을 가진 관광휴양지라는 사실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1961년 중동 자본에 의해 북부 해안의 코스타 스메랄다(Costa Smeralda) 지역이 대규모 관광리조트 단지로 탈바꿈한 후 섬 도처에서 관광개발 붐이 일어났다. 그때부터 코스타 스메랄다를 본뜬 관광개발 프로젝트들이 도처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올비아-템피오, 칼리아리, 사짜리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뤄져 많은 양의 휴양객용 아파트와 주택이 해안가에 지어졌다(Perelli 2016). 1980년대부터 난개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무분별한 관광단지 개발에 일정 정도 제동이 걸렸다.⁷⁾ 그러나, 현지에서 인터뷰한 정부 관계자들과 학자들에 따르면 최근에도 중동, 러시아, 중국 등 해외 자본과 나폴리를 비롯한 이탈리아 본토의 마피아 자본에 의한 개발 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⁸⁾

관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 섬의 딜레마는 관광산업이 일부 해안지역과 특정 계절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2012년도의 경우 사르데냐를 찾은 관광객은 입도 인원 기준으로 212만 명이었고 숙박일 기준으로는 천만 명이 넘는다.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은 숙박일 기준으로 6대 4 정도이며 외국인 관광객은 유럽 국가들에서 온 사람이 대부분이다. 관광시즌은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관광객의 80% 이상이 이 기간에 주로 해변에서 휴가를 즐긴다(Iorio 2016: 225~226). 이처럼 공간적·시간적 차원에서 일부 장소와 계절에 집중된 관광산업은 환경훼손 등 여러 가지 폐해를

7) 1993년에는 해안선 300미터 이내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사르데냐 섬의 환경보호를 둘러싼 논쟁과 정치적 공방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4~5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8) 1990년대의 마피아 관련 범죄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범죄조직들이 사르데냐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개발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Perelli 2016: 146)

낱을 뿐 아니라, 관광 부문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최근 사르데냐 주정부는 “무한한 사르데냐(Endless Sardegna)”라는 구호를 앞세워 해변 휴양지 이외의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관광, 바루미니(Barumini)의 누라게(Nuraghe) 유적과 같은 고고학적 유산을 비롯하여 각종 박물관과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문화관광 등이 포함된다. 내륙 낙후지역의 로사스(Rosas) 탄광에 대한 문화 재생 프로젝트를 비롯해서⁹⁾ 일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사례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기에서 내륙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림 3] 칼리아리의 외국인 행상

사르데냐의 인구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희망적인 요소는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 추세이다. 몇 가지 점에서 외국인 주민은 사르데냐의 낮은 출산율과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부분적으로 완화시켜 준다.¹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주민 중 젊은 세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다. 외국인 주민의 평균 연령은 35.2세로 내국인 평균 연령 44.1세보다 10살 가까이 낮다. 이는 외국인 주민의 증가가 섬의 노동력 확보와 관련하여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아울러, 외국인 주민 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2013년 섬의 외국인 인구 3만5천 명 중 여성은 2만 여명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여성 비율은 특히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폴란드 국적자 중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전국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여성들은 이탈리아 여성들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다. 2012년도 섬 전체의 여성 1명당 평균 출산은 1.14명인데, 외국인 여성의 경우 2.52명으로 사르데냐 여성(0.9명)의 3배 정도 된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외국인 주민의 노동시장에 대한 기여도

9) 이에 대해서는 Cannas 2016을 참고하라.

10) 이에 대해서는 Carboni and Fois(2016)을 참고했다.

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외국인 주민들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생겨나는 사르데냐 노동시장의 틈새를 채워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외국인 주민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 사르데냐 섬의 경우 여성 비율은 57%로 이것은 전국 평균인 53%보다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 여성 이주자의 숫자가 늘어난 것은 이주자 가정의 가족 재결합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사르데냐를 포함한 이탈리아 노동시장의 특수성에 따른 것이다. 이탈리아는 전국적으로 약 240만 가정이 가내 돌봄 노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자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2014년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이 수요의 80% 이상을 외국인 여성들이 채워준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이주민 중 일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있다. 모로코 이주민들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가족을 고리로 하는 연쇄 이주가 증가하면서 인구가 적은 소도시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달한 중부 구릉지대와 산악지대의 소도시들에 거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주변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행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노인들에게는 이들의 방문판매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서비스가 되고 있다(Bachis 2016).¹¹⁾

5. 사르데냐와 제주도: 정책적 시사점

사르데냐와 제주도는 비슷하면서 다르다. 섬으로서 공유하는 여러 가지 특성 외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소득 수준,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 관광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두 섬은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인구 및 이주 동향에서는 사르데냐와 제주도 사이에 눈에 띄는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사르데냐와 달리 제주도는 최근 들어 전체 인구나 순유입 인구가 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 인구는 2005년 55만8천 명에서 2015년 62만4천 명으로 12%가 증가했다. 제주도로 전입한 인구가 외부로 전출한 인구보다 많아진 것은 2010년이 처음인데, 그때 이후 순유입 인구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몇 년의 순유입 인구 증가치를 보면 2013년 7,823명,

11) 이에 대해서는 Bachis(2016)를 참조하라. 모로코 이주민들은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중 상당수가 심각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중부 지역에서 주민들의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매우 성공적인 통합 사례로 간주된다.

2014년 11,112명, 2015년 14,257명, 2016년 14,632명을 기록하고 있다.¹²⁾

외지에서 전입해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대도시 출신과 젊은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전입인구의 이전 거주지 분포를 보면 서울 25.9%, 경기 27.1%, 부산 7.3% 등, 대도시 출신이 많다. 연령은 30대 22.6%, 40대 18.2%, 20대 18.1%로 나타나 젊은 연령층 중심의 이주 현상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¹³⁾ 이것은 제주도의 노령화 지수를 일정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⁴⁾

인구 및 이주 동향에서 제주도가 사르데냐와 이와 같은 차이점들을 갖게 된 것은 무엇보다 2007년의 올레길 개설을 계기로 제주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과 대안적 삶의 장소로 각인된 데 힘입은 바 크다. 1983년 100만 명 수준에 머물렀던 제주도 관광객은 2005년 500만 명을 돌파했고 올레길 개설과 저가항공 취항 등의 호재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6년 1500만 명을 돌파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제주도의 경우 내국인 관광객이 77%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월별로 보면 최저 1월 6.6%부터 최고 8월 9.8%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는 점이다.¹⁵⁾ 해변 휴양지에 휴가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사르데냐에 비해 제주도는 관광객이 시간적·공간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올레길을 따라 제주도 전역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소, 카페, 음식점, 수공예 판매 등을 함으로써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경쟁적이고 불안정한 도시를 떠나 대안적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젊은 연령층이 선호하는 이주지가 될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최근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대규모 투자와 과도한 상업화, 특정 지역의 관광객 포화 현상 등이 계속 진행되어 제주도가 갖고 있는 힐링과 대안적 삶의 장소라는 이미지가 무너지면 현재와 같은 젊은 연령층 인구의 지속적 유입은 아마도 중단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사르데냐 내륙지역에서 관찰한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제주도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아마도 이것이 사르데냐

12)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의 유입도 빠르게 증가해 왔다. 2015년 현재 제주도의 외국인 체류자는 16,960명(전체 인구의 2.7%)으로 이는 2005년 2,178명(전체 인구의 0.4%)에 비해 7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제주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외국인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13)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보도자료, 2016. 6. 29,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 변화』를 읽다 - 통계로 본 제주의 변화상”. 사르데냐 정부 관리와 학자들은 이와 같은 대도시 젊은 연령층 인구의 제주도 이주 현상에 대해 매우 큰 놀라움과 부러움을 표시했다.

14) 제주도의 노령화 지수는 2016년을 기준으로 89.7%로 이는 사르데냐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15)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보도자료, 2016. 3. 30, “『관광 1번지』 제주도를 읽다 - 통계로 본 제주의 변화상”.

사례로부터 제주도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일 것이다.

<참고문헌>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보도자료, 2016. 3. 30, “『관광 1번지』 제주도를 읽다 - 통계로 본 제주의 변화상”.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 변화』를 읽다 - 통계로 본 제주의 변화상”, 2016. 6. 29.

Silvia Aru, 2016, “Deserting the City and the Countryside”: Socioeconomic Restructuring and Migration Process, in *Surrounded by Water: Landscapes, Seascapes and Cityscapes of Sardinia*, edited by Andrea Corsale and Giovanni Sistu,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pp. 82–98.

Francesco Bachis, 2016, “Transnational Migrations in Sardinia: Notes about Belongings, Boundaries and Tolerance,” in *Intercultural Horizons Volume IV: Identities, Relationship and Languages in Migration*, edited by Eliza J. Nash, Nevin C. Brown and Lavinia Bracci,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pp. 115–126.

Michele Carboni and Marisa Fois, 2016, The Foreign Presence in Sardinia, in *Surrounded by Water: Landscapes, Seascapes and Cityscapes of Sardinia*, edited by Andrea Corsale and Giovanni Sistu,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pp. 99–111.

Andrea Corsale, 2016, “Demographics of Sardinia: Main Features and Trends,” in *Surrounded by Water: Landscapes, Seascapes and Cityscapes of Sardinia*, edited by Andrea Corsale and Giovanni Sistu,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pp. 64–81.

L. Fiorini, et al., 2016, Urban development of the Coastal System of the Italian Largest Islands: Sicily and Sardinia, *Ocean & Coastal Management*, <http://dx.doi.org/10.1016/j.ocecoaman.2016.12.008>

Nick Gallent, 2015, “Bridging social capital and the resource potential of second homes: The case of Stintino, Sardinia,” *Journal of Rural Studies* 38: 99–108.

Maria Luisa Gentileschi, “The immigration model of Sardinia, an island

and a border region”, *Belgeo* [Online], 1–2 | 2005, URL : <http://belgeo.revues.org/12526> ; DOI : 10.4000/belgeo.12526.

Gert-Jan Hospers, 2003, “Localization in Europe’s Periphery: Tourism Development in Sardinia, *European Planning Studies*, Vol. 11, No. 6, pp. 629–645.

Monica Iorio, 2016, Tourism in Sardinia: A Potential Yet To Be Achieved, in *Surrounded by Water: Landscapes, Seascapes and Cityscapes of Sardinia*, edited by Andrea Corsale and Giovanni Sistu,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pp. 220–241.

Russel King and Alan Strachan, 1980, “Patterns of Sardinian Migration,” *Tijdschrijf voor Econonmische en Sociale Geografie*, Vol.71, No.4, pp. 209–222.

R. Cannas, 2016, “The Sustainable Tourism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the Case of the Rosas Mine in Sardinia,” *AlmaTourism* No. 14, pp. 38–59.

Carlo Perelli, 2016, Coastal Planning and Tourist Development: Reframing Sea Paradise, in *Surrounded by Water: Landscapes, Seascapes and Cityscapes of Sardinia*, edited by Andrea Corsale and Giovanni Sistu,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pp. 142–154.

Antonio Sorge. 2015. *Legacies of Violence: History, Society, and the State in Sardinia*.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Lina Unali and Franco Mulas, “Sardinian Immigration to the Americas since 1900 Projected into the Year 2000”

Ⅲ. 이탈리아공화국의 주제도와 지방분권의 전개 - 사르데냐 특별자치주를 중심으로

1. 문제의 제기

1) 오랜 중앙집권적 관료지배의 전통

이탈리아의 지방자치는 오랜 중앙집권적인 관료지배의 전통과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라는 많은 면에서 한국과의 제도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반도는 19세기 중엽까지 1300년간 수많은 도시국가(comune)로 분열되어 경쟁해온 오랜 분권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861년 다른 이탈리아 지역과 달리 프랑스의 중앙집권적 지배의 전통을 잇는 사르데냐왕국이 국토 통일운동(Risorsimento)을 통해 근대국가인 이탈리아왕국이 건설된다. 그 후 이탈리아의 근대국가 창출과정을 지방제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탈리아왕국의 사르데냐화”를 통한 중앙집권적인 지방제도 창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 제도의 도입은 보류되고, 지방행정단위로서 ‘현’과 ‘코무네’만 설치된다. 중앙정부가 ‘현’의 수장으로 관선지사(prefetto)를 파견하여 현 의회를 주재하는 동시에 현 행정의 전반에 걸쳐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다. ‘코무네’의 수장마저 관선지사의 추천을 받아 국왕이 임명하는 체제였다.

2)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화국으로 전환한 이탈리아는 민주화 조치의 일환으로 파시즘에 의해 극단적으로 강화된 중앙집권적인 지방행정을 “주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체제”로 바꾸는 개혁을 단행한다.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따라 헌법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기본원리(Principi Fondamentali)로 천명하고 20개 조항에 걸쳐 지방제도 운영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였다. 이로써 최소한 이론상으로는 주-현-코무네로 구분된 정연한 3층 구조의 지방자치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5개의 특별자치주를 제외하면 15개의 보통주는 설치되지 않은 채 전문가 집단인 관료의 통치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사실상의 위헌상

태는 1970년 전국적으로 주가 설치되고 그 후 몇 년에 걸쳐 경찰, 사회보장, 복지, 학교교육, 공공주택, 환경보전 등의 기본기능이 이양될 때까지 기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

2. 이탈리아공화국의 지방행정제도와 특별자치주

1) 특별자치주의 설치

이탈리아공화국에서 1970년대까지 형식적으로 “자치와 분권”이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구현한 것은 공화국 출범을 전후하여 설치된 5개의 특별자치주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자치와 분권”이라기보다 “국가통합”을 위한 “1국 2제도” 운영이라는 성격을 농후하게 지니고 있었다.

[그림 4] 이탈리아공화국 특별자치주의 분포



그랬던 만큼 그 설치 경위나 시기에 따라 존립 형태나 자치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했다. 이를테면, 북부 국경지대에 위치하는 발레다오스타, 트

렌티노-알토아디제, 프리울리-베네치아줄리아는 민족적·언어적 이유로 특별자치주의 지위를 부여받았다([그림 5]). 시칠리아는 이른바 ‘남부문제’로 상징되는 역사적·사회적 특수성에 대한 배려에서 특별자치주의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한다면, 사르데냐는 근대국가 창출 과정에서 주변지역으로 전락한 지리적·경제적 불리성에 대한 배려로 특별자치주의 지위를 부여받는 등 지중해에 떠있는 도서지방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특별자치주의 설치 경위는 다르다([그림 6]).

[그림 5] 민족적·언어적 차이에 의한 특별자치주



[그림 6] 역사적·지리적 특성에 의한 특별자치주



이 가운데 사르데냐의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특별자치주의 법적 지위 부여와 관련하여, 사르데냐왕국의 주축으로 국토통일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국민국가 창출 과정에서 지리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주변지역으로 전락하여 생태환경이나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보호나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특별자치주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1948년 2월 “헌법적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채택된 주헌장(헌법 제116조)에 의해 사르데냐 특별주의 권한, 재정, 조직, 국가와의 관계 등 독자적인 자치의 형식과 조건이 규정되었다. 1948년 이탈리아공화국 입법의회에서 사르데냐의 역사적·문화적 고유성을 존중하여 그 주민을 이탈리아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사르데냐민족(Popolo Sardo)’임을 선언하여 역사적 역할을 평가한다. 독자적인 입법권 외에 관할 영역 내에서 징수되는 부가가치세 90%, 소득세 70%, 상속증여세 50% 등 국세 일부를 배분받는 등 재정적인 자립성도 확보하고 있었다.

요컨대, 특별자치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통합 및 새로운 내셔널리티 형성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었던 만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여 ‘1국 2제도’로서 이탈리아 영역 내에 묶어둘 필요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5개 특별자치주의 면적, 인구, 관할 자치단체수, 특별자치권 부여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이탈리아 특별자치주의 현황

특별자치주	자치단체수		면적 (km ²)	인구 (만명)	사유
	현급	코무네급			
발레다오스타 (Valle d'Aosta)	1	74	3,262	12.83 (38.8인/km ²)	근대 이탈리아왕국의 영역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보이왕가의 지배 지역, 민족적·언어적 차이로부터 1948년 특별자치주의 지위 부여
토렌티노-알토아디제 (Trentino-Alto Adige)	2	339	13,619	103.7 (70.7인/km ²)	1919년 이탈리아왕국이 “미회수 영역”의 탈환이라는 명분으로 오스트리아로부터 병합, 1946년 오스트리아와의 협정에 의해 고도의 자치권 보장, 독일어 공용어 인정 및 독일어 교육을 보장하고 이탈리아헌법 제정과 함께 특별자치주로서의 법적 지위 명기, 그러나 독일어계 주민의 불만이 폭발하여 1971년 오스트리아와의 새로운 협약을 통해 한층 고도의 자치권 인정과 오스트리아의 내정불간섭을 합의하면서 긴장 종식
프리우리-베네치아 주리아 (Friuli-Venezia Giulia)	4	218	7,856	121.8 (155.0인/km ²)	각각 1866년 보불전쟁으로 베네토 일대가, 1차 세계대전 후 베네치아 주리아 지역이, 1954년 트리에스테 지역이 차례로 이탈리아왕국/공화국에 편입, 1963년 민족적·언어적 이유로부터 특별자치주의 지위 부여
시칠리아 (Sicilia)	9	390	25,703	500.0 (194.5인/km ²)	1946년 5월 15일, 이탈리아공화국 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탈리아왕국 마지막 국왕 움베르토Ⅱ에 의해 제정된 시칠리아 주 헌장에 의해 공화국 탄생 이전에 이탈리아 최초의 특별자치주로서 탄생, 지리적·역사적 특수성에 의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
사르데냐 (Sardegna)	5	377	24,090	167.5 (69.5인/km ²)	사르데냐왕국의 주축으로 이탈리아 통일을 달성, 1948년 2월 헌법적 법률 제3호에 의해 특별자치주의 지위 부여. 역사적 특수성이 아니라 도서지방으로서의 지리적·경제적 불리성에 근거로 특별자치주의 지위 부여

* 주 1. 인구수는 토렌티노-알토아디제(Trentino-Alto Adige), 사르데냐(Sardegna) 특별자치주는 2011년 1월 1일 현재, 나머지는 2012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이다.

자료 : 각 특별자치주의 공식사이트로부터 작성.

2) 보통주의 설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탈리아공화국은 정치적 민주화의 일환으로 주민에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새로운 지방조직인 주를 설치하고 여기에 정부의 권한을 이양한 “주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체제”를 구상한다. 그것은 헌법 114조에 “공화국은 주(regione), 현(provincia) 및 코무네(comune)로 구분된다”고 정연한 3층 구조의 지방자치를 규정한 표현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특별자치주를 제외한 보통주의 설치에 미루어지고 관료지배체제가 계속되다가 1970년 5월 ‘주 설치법’에 의해 22년 만에 15개의 보통주가 설치된다. 이어 1972년과 1977년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사회보장, 복지, 학교

교육, 공공주택, 환경보전 등의 기본기능을 중앙정부에서 이양하여 주가 실체를 갖게 됨에 따라 사실상의 위헌 상태가 해소된다.

이로써 주는 제정 당초 헌법 제117조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 한정적인 입법권과 그 집행 권한(행정권)을 갖게 되며, 의회가 법률로 정한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었다. 즉, 주는 의회가 정한 기본법의 테두리에서 코무네의 구역, 지방경찰, 견본시 및 시장, 공공자선사업, 보건 및 의료 부조, 수공업, 직업 관련 교육 및 교육 부조, 지방단체의 박물관 및 도서관, 도시계획, 관광 및 호텔업, 주의 이익과 관련된 제도 및 자동차도로, 주의 이익과 관련된 도로, 수도 및 공공사업, 호수면 항행 및 항구, 광천 및 광산, 수렵, 내수 어업, 농업 및 임업, 수공업 등 주에 귀속된 행정 부서 및 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규정하는 입법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보통주의 설치와 권한 이양은 재정의 분권화를 동반하지 않았다. 오히려 1973년의 세제개혁을 통해 보통주의 설치에 의한 지역으로의 입법권 이양과 정반대로 석유위기, 물가상승, 재정적자의 경제불황에 대응해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거의 모든 세금을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지역·지방정부로 배분하는 중앙집권화를 추구하였다.

이처럼 1970년대에 위헌상태를 극복하고 실체를 갖게 되는 이탈리아 당초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은, 중앙과 지역(주=enti pubblici territoriali), 지방(현, 코무네=autonomoie locali, enti locali)의 관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었다. 첫째는, 의회의 상하원 어느 쪽도 지역이나 지방의 이익이나 제도를 대표하고 있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주는 영역 내의 지방자치체를 통제할 책임과 권한이 없었고 현과 코무네는 의회에 직접 통제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중앙정부가 주, 현, 코무네에 대해 일종의 법적 감독권을 가진, “다층적 영역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3. 중앙과 지방의 입법권과 역할 분담 : 주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체제의 구현

1) 중앙·지역·지방 관계의 지각변동

이탈리아의 지방제도는 1990년대에 들어 커다란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어 크게 움직이게 된다. 그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 변화로 대내적으로는 냉전 붕괴와 더불어 표면화된 전후 정치시스템의 동요를 들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이라는 새로운 메가-리저널리즘(mega-regionalism)의 대두로 중앙과 지방의 권력 재배분 및 행정과 재정의 분권화 개혁 요구라는 커다란 지각변동을 들 수 있다.

① 지역의 반란

1973년 이후 재정의 중앙집권화는 북부 선진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자신들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해 남부 후진 지역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이익유도정책을 “비효율과 부패의 소굴”로 비판하고 나서는 지역의 반란을 초래했다. 이는 1980년대에 행정 및 재정의 자치권 확대, 연방제를 주장하는 지역정치운동으로 발전하고 1991년 다양한 지역별 조직을 통합하여 ‘북부동맹(Lega Nord)’이라는 정치조직을 결성하여 1992년 4월의 총선거에서 55의석의 세력으로 급성장하여 전후 정치시스템의 지각변동을 각인시키는 것이었다.

② 전후 정치시스템의 붕괴

1992년 이탈리아 사상 최대의 정치비리사건이 발각되어 정계·재계·관계의 중심부를 강타하게 된다. 이는 지배층의 이익유착구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후 정치시스템’ 그 자체가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그 정치적 룰이었던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를 도입하여 이른바 제2공화정이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크리스토포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전후 정치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중앙과 지방의 권력 재배분의 움직임이 표면화되었다.

③ 메가-리저널리즘의 대두

이와 아울러 1992년 유럽연합 창설을 위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체결 과정에서 이탈리아는 재정적자(GDP 3% 이내), 물가상승률(가장 낮은 3개국 평균+1.5% 이내), 정부채무 누적액(GDP의 60% 이내)를 최대한 억제하고 이를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 행정·재정시스템의 투명화 및 ‘재정연방주의’에 입각한 재정 분권화를 요구받았다.

2) 입법권과 행정 권한

여기에 대응해 1990년 「신지방자치법」, 1993년 「코무네 수장, 현 지사, 코

무네 의회 및 현 의회의 직접선거법」, 1995년 「보통주 의회 의원의 선거법」, 1997년 ‘밋사니니법(le legge Bassanini)’ 등 일련의 법령 제정으로 개혁의 장치를 정비하였다. 이어 1999년 헌법적 법률 제1호 「보통주 주 지사의 직접선거 및 주의 헌장 자치 강화에 관한 규정」과, 2001년 헌법적 법률 제2호 「특별주 지사의 직접선거 및 토렌토 및 볼짜노 자치현 지사의 직접선거에 관한 규정」에 의한 헌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개혁이 마무리되었다.

이 가운데 ‘밋사니니법’은 국가의 지역·지방에 대한 권한과 기능 배분에 헌법 제76조의 ‘위임입법(legge di delega)’이라는 법 기술을 적용하는 가히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률에 국가의 고유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국가에 유보하고, 법률이 침묵하고 있는 분야는 모두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착된 것으로 보고 지역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입법권과 행정 권한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1948년 헌법에서는 주는 헌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회가 법률(기본법/대강법)로 정한 기본원칙의 범위에서 행사하게 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a)주에 귀속된 행정 부서 및 단체의 조직, b)코무네의 구역, c)지방경찰, d)견본시 및 시장, e)공공자선사업, f)보건 및 의료 부조, g)수공업, h)직업 관련 교육 및 교육 부조, i)지방단체의 박물관 및 도서관, j)도시계획, k)관광 호텔업, l)주의 이익과 관련된 철도 및 자동차 도로, m)주의 이익과 관련된 도로, n)수도 및 공공사업, 호수면 항행 및 항구, o)광천 및 광산, p)광산 및 탄광, q)수렵, r)내수 어업, s)농업 및 임업, t)수공업, u)헌법적 법률로 정하는 기타 사항 등이다.

한편 1999년 개정 헌법에서는 국가의 입법권으로 명시적으로 유보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항을 주의 입법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에 국가 고유의 권한과 국가와 주의 겹치는 권한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입법권이라는 것이다. 전자를 국가의 배타적인 입법권(legislazione esclusiva), 후자를 국가와 주의 경합적인 입법권(legislazione concorrente)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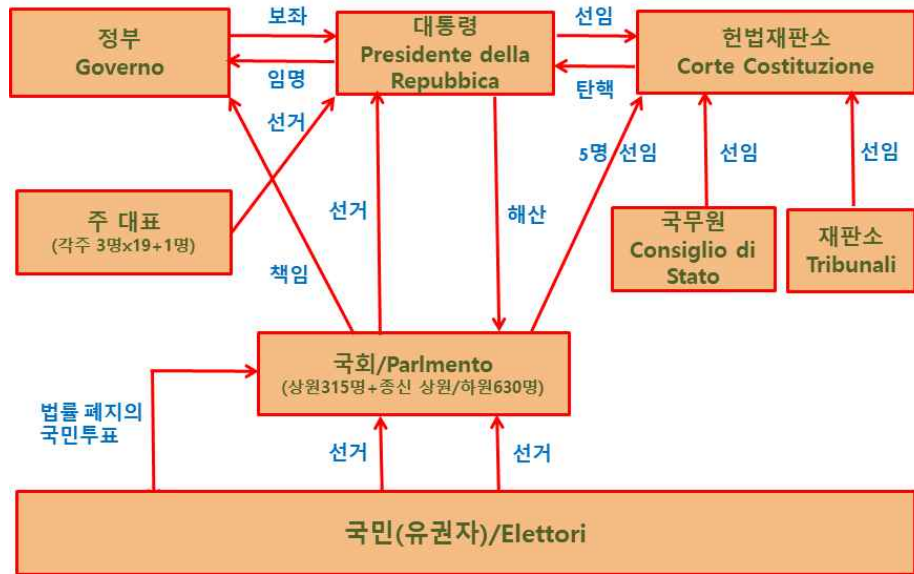
국가의 배타적인 입법권은, a)국가의 외교 및 국제관계; 국가와 유럽연합과의 관계; 유럽연합 일원이 아닌 국가 출신 시민의 비호권 및 법적 지위, b)이민, c)공화국과 종교단체와 관계, d)국방 및 군대; 국가의 안전보장; 무기, 탄약 및 폭약, e)통화, 저축의 보호 및 금융시장; 경쟁의 보호; 통화제도; 국가의 조세 및 회계제도; 재정수지의 조정; 재정자원의 균형화, f)국가기관 및 관련 선거법; 국정 선거; 유럽의회 선거, g)국가 및 국가 공공단체의 제도 및 행정조직, h)지방경찰 조직을 제외한 공공의 질서 및 안전, i)국적, 개

인의 신분 및 주민등록, j)사법 및 그 절차; 민사법, 형사법; 행정재판, k)전국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시민적, 사회적 권리에 관한 급부의 최소불가결한 수준의 결정, l)교육에 관한 일반 규정, m)사회보험, n)코무네, 현 및 대도시의 선거법, 집행기관 및 기본적 기능, o)관세, 국경 단속 및 국제적 질병 예방, p)도량, 척도 및 표준시의 결정; 국가-주-지방 행정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통계 및 정보처리기술을 통한 정보의 조정; 지적 재산, q)환경, 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호 등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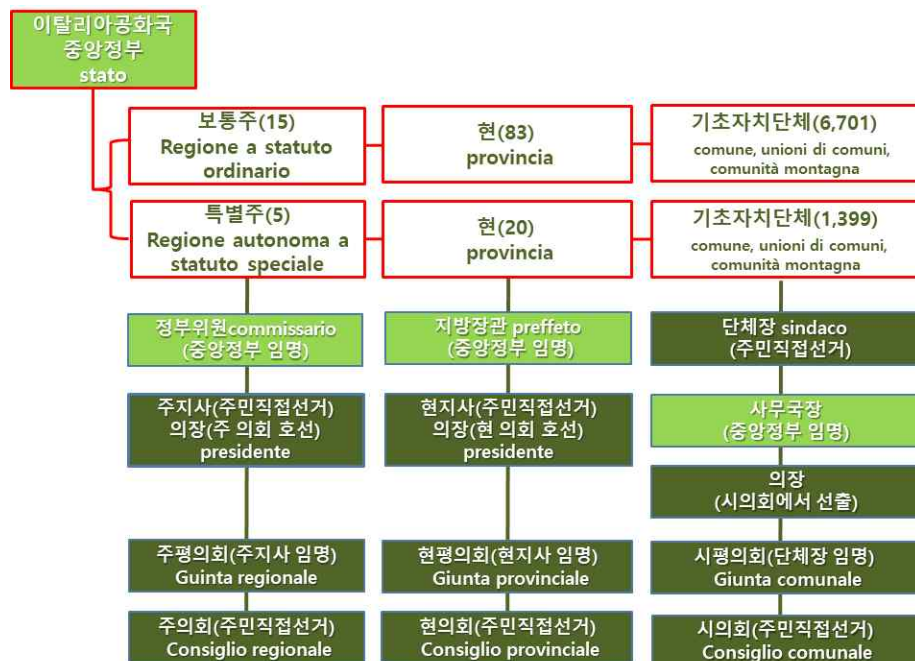
국가와 주의 경합적인 입법권(*legislazione concorrente*)은, 기본적으로 주에 입법권이 있지만 국가의 배타적인 입법권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의회에 기본원칙의 결정을 유보하는 입법 사항이다. 구체적으로는 a)주의 국제관계 및 주와 유럽연합과의 관계, b)외국과의 통상, c)노동의 보호 및 안전, d)교육(단, 학교시설의 자치 및 직업교육, 직업훈련은 제외), e)직업, f)과학기술 연구 및 생산부문 기술혁신의 지원, g)건강의 보호, h)식량 공급, i)스포츠 관련 제도, j)재해 구조, k)국토의 관리이용 계획, l)민간의 항만 및 공항, m)대규모 수송망 및 항공망, n)통신제도, o)에너지의 생산, 수송 및 전국적인 공급, p)보충적이고 보완적인 사회보험, q)공공수지의 균형, 공재정 및 조세 제도의 조정, r)문화재 및 경관의 유효 활용 및 문화 활동의 촉진 및 조직화, s)저축은행, 농업은행 및 주의 신용금고, t)주의 토지농업신용금고 등이다.

끝으로 입법권을 구체적으로 누가 실행하는가라는 행정 권한의 문제이다. 종래 입법 권한이 있는 곳에 행정 권한이 있다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일치주의(*parallelismo delle funzioni*)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9년 헌법 개정 이후 행정 권한을 1차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과 생업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기초자치체인 코무네에 귀속시키고, 만약 기초단체가 감당하기에 사업의 규모가 너무 커서 경제적 효과를 담보하지 못할 경우 지역 주민과의 거리를 감안하여 현, 주, 국가 순서로 행정 권한을 부여하는 수직적 보완성(*sussidiarietà*)의 원칙을 채용하게 되었다.

[그림 7] 이탈리아공화국의 통치기구



[그림 8] 이탈리아 지방행정조직의 유형도



4. 세제의 지방분권화와 국가·자치단체간 재원 조정

1) 중앙과 지역·지방의 재원과 조정

입법권을 주로 이양하고 나아가 그 집행 권한을 주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방제도개혁에 따라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재원의 지방분권화 및 국가·자치단체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 조세의 중앙집권화에 따라 지역·지방의 세수가 극단적으로 제한되고 국가의 이전 재원에 의존하는 구조를 지방세의 신설·확충과 국가와 유럽연합의 교부금 제도의 정비를 통해 개혁하였다.

① 지방세의 신설·확충 :

a) 코무네 : 1989년의 ‘코무네 사업·공예·전문직세’, 1993년의 ‘코무네 고정재산세’(전체 코무네 세수의 60% 정도), ‘도시 고형폐기물 처리세’, ‘코무네 광고세’, ‘공공계시사용료’, ‘전력 소비 부가세’, ‘공유지 점유사용료’, ‘코무네 개인소득세 부가세’, 2013년의 ‘통일기초자치세’

b) 현 : 1996년 이후의 ‘현 자동차 등록세’, ‘현 자동차보험세’, ‘환경보호 및 환경위생 행정수행을 위한 현세’, ‘공유지 점유사용료 및 지하토로 건설 요금’, ‘개인소득세 부가세’

c) 주 : 1997년 이후의 ‘주 생산활동세’(전체 주 세수의 60% 정도), ‘주 개인소득세 부가세’, 주 자동차세, ‘주 인허가세’, ‘메탄가스 국가소비세에 대한 주 부가세’, ‘고형폐기물 처리료’, ‘자동차 등록세에 대한 주 부가세’, 국가 인허가에 대한 주세, ‘공유지 및 기타 주 자산의 점유사용료’

② 이전수입(trasferimenti) :

a) 지방자치체의 재원으로 고유의 지방세 외에 행정의 분권화에 따라 이양 받은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국가나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수입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b) 헌법 제119조 제5항 : “경제발전, 사회적 결속과 연대를 촉진하고,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을 제거하며, 인간 권리의 실효적인 행사를

조장하고, 혹은 그 권한의 통상적인 행사와는 다른 목적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는 특정의 코무네, 현, 대도시 및 주를 위해, 추가재원을 배당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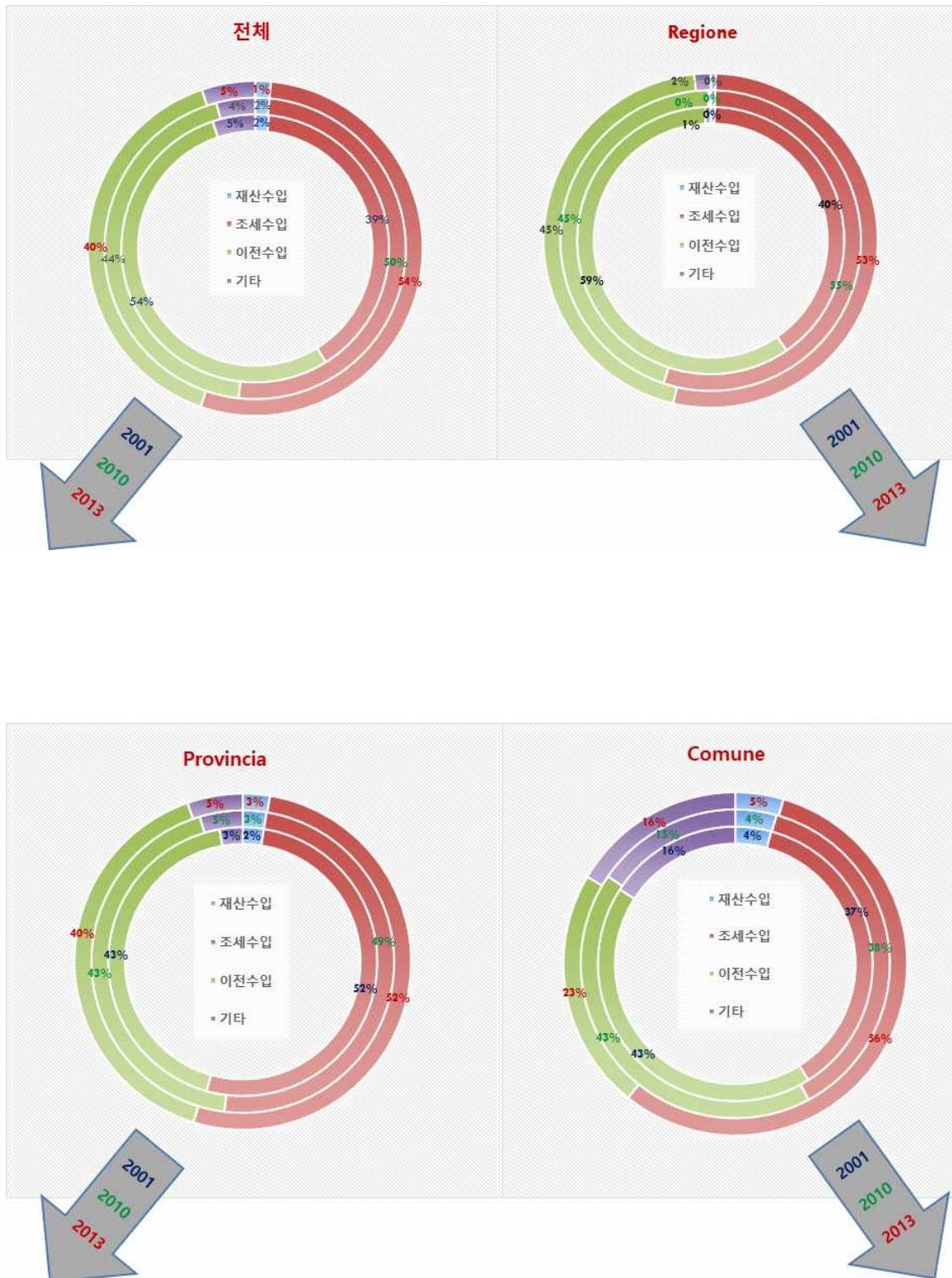
c) 신지방자치법 제149조 : “국가의 이전교부금(trasferimenti erariali)은 인구, 면적, 사회경제상황을 고려한 기준 등에 입각하여 배분한다”고 되어 있다.

d) 유럽연합 : 유럽연합이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구조기금(Structural Funds)을 교부하는데, 이 가운데 저개발지역의 개발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유럽지역개발기금, 직업훈련이나 고용 창출 정책을 위한 유럽사회기금이 전체의 94%를 차지한다. 1인당 GDP가 역내 평균의 75%를 밑도는 지역이 수급 대상이 되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시칠리아, 사르데냐의 특별자치주 2개주를 포함하여 남부지중해지역의 7개주가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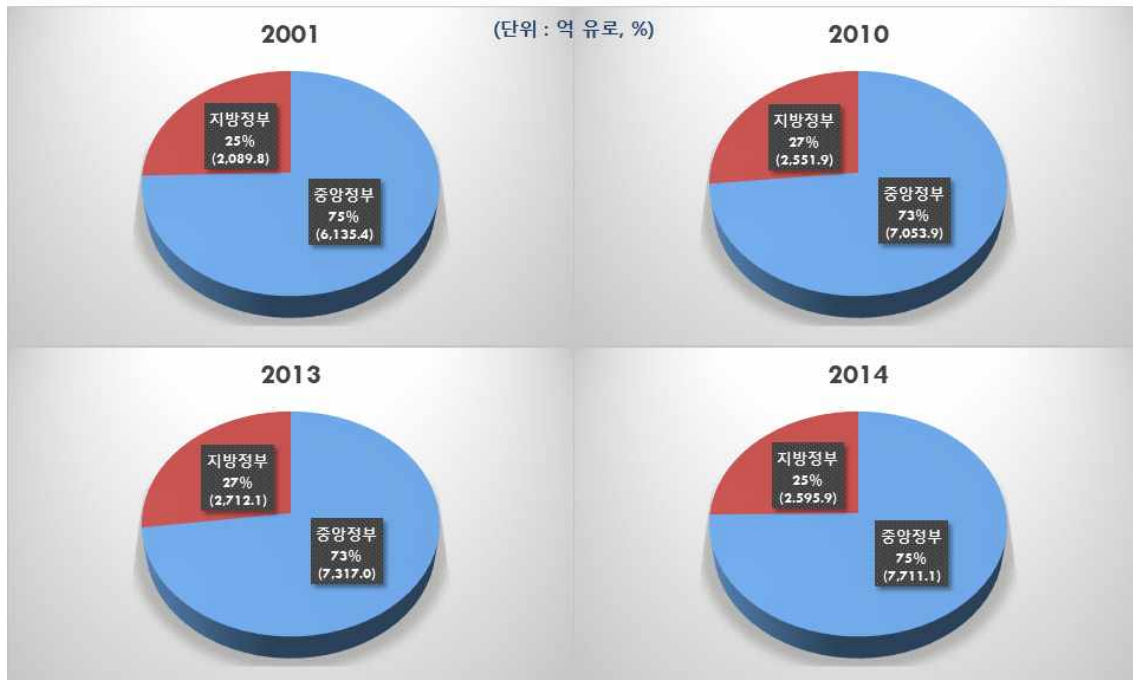
<표 5> 이탈리아 지역·지방 단체의 세입·세출 내역

구분		총계			주			현			코무네		
		2001	2010	2013	2001	2010	2013	2001	2010	2013	2001	2010	2013
세입	경상부문 세입	1615.4	2,301.8	2,497.0	1081.6	1,662.5	1,828.7	67.3	94.7	90.2	456.6	544.7	578.1
	재산수입	26.9	33.5	37.8	5.5	7.7	9.2	1.7	2.4	2.3	19.7	23.5	26.3
	조세수입	638.1	1,106.2	1,343.1	431.3	853.3	971.2	34.9	46.9	47.0	171.9	206.0	324.9
	이전수입	867.3	970.8	987.1	637.5	698.2	819.6	28.8	41.3	36.0	200.9	231.4	131.5
	기타	83.2	91.6	129.1	7.3	3.4	28.8	1.9	4.4	4.8	74.0	83.8	95.5
	자본부문 세입	332.0	278.1	223.3	149.8	132.1	108.1	14.0	19.7	16.2	168.3	126.3	99.0
	이전수입	230.2	227.5	189.6	146.6	119.3	99.0	7.8	14.1	9.6	75.8	94.1	81.0
	대출금 회수	80.7	26.0	17.5	2.5	4.6	7.5	5.2	4.5	1.7	73.1	16.9	8.3
	기타	21.1	24.7	31.2	0.7	8.2	16.6	1.0	1.1	4.8	19.3	15.4	9.8
	기재자입 등	155.7	115.2	289.6	69.7	39.3	182.2	9.3	6.0	7.0	76.8	69.9	100.4
	세입 총계	2103.2	2,595.5	3,009.9	1301.1	1,734.0	2,119.0	90.5	120.7	113.4	711.6	740.8	777.5
세출	경상부문 세출	1550.8	2,042.5	2,114.6	1069.2	1,444.7	1,483.0	54.1	85.7	76.3	427.5	512.1	555.3
	인건비	200.5	245.5	226.8	48.3	61.4	58.7	14.8	22.8	20.5	137.4	161.3	147.7
	재화·서비스	257.7	346.2	399.5	36.7	55.2	65.0	21.7	39.6	35.9	199.2	251.4	298.5
	이자납부	46.0	46.1	43.0	15.1	20.1	18.8	3.5	4.3	3.9	27.4	21.7	20.3
	이전지출	996.7	1,351.1	1,361.8	943.4	1,277.9	1,284.3	12.0	15.7	12.3	41.3	57.5	65.1
	기타	50.0	53.7	108.3	25.7	30.2	80.9	2.2	3.3	3.7	22.2	20.3	23.6
	자본부문 세출	449.4	385.7	362.4	194.1	198.7	200.7	26.3	29.4	27.5	229.1	157.6	134.2
	직접투자	184.9	174.6	149.1	40.9	31.1	20.7	15.9	20.5	17.4	128.2	123.0	111.1
	이전지출	147.9	155.2	163.3	130.6	139.5	148.1	4.2	4.4	5.3	13.1	11.4	9.9
	대출금 등	79.6	22.4	17.3	4.5	5.1	8.6	0.5	3.0	1.2	74.6	14.4	7.5
	기타	37.1	33.4	32.6	18.2	23.0	23.3	5.8	1.5	3.6	13.2	8.9	5.7
	부채원금 상환 등	89.6	123.7	210.4	31.8	49.7	114.4	3.8	6.6	10.5	54.0	67.4	85.4
	세출 총계	2089.8	2,551.9	2,712.1	1,295.1	1,693.1	1,822.9	84.2	121.6	114.3	710.6	737.2	774.9
	%	100.0%	100.0%	100.0%	62.0%	66.3%	67.2%	4.0%	5.0%	4.2%	34.0%	29.0%	28.6%

[그림 9] 이탈리아 지역·지방 단체의 경상부문 세입 내역



[그림 10] 이탈리아 중앙과 지방정부의 세출 구성



5. 마무리글

지금까지 논의해온 이탈리아 지방제도를 시대구분하면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① 1861~1948년 : 주 설치를 보류하고 현과 코무네를 통한 중앙집권적 지방 통제가 이루어진 시대

② 1948~1970년 : 헌법에는 “분권과 자치”를 국가의 기본원리로 천명하지만 국가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5개 특별자치주를 설치하는 데 그치고 지방 자치의 근간에 해당하는 15개 보통주는 설치하지 않은 채 중앙집권적인 관료지배가 계속된 위헌의 시대

③ 1970~1990년 : 1970년대에 보통주 15개가 설치되고 순차적으로 권한을 이양하여 위헌상태는 극복하지만, 오히려 재정은 중앙집권적인 통제를 강화한 불완전한 지방자치의 시대. 주는 헌법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회가 정하는 기본법의 테두리에서 한정적인 입법권을 행사한다.

④ 1990~2017년 : 냉전 붕괴, 크리스토포민주당을 주축으로 하는 전후 정치시스템의 와해, 북부동맹 등 지역의 반란, 유럽연합의 메가-리저널리즘에 대응하여 행정과 재정의 분권이 이루어진 개혁의 시대. 1997년 밋사니니법

에 의해 국가의 배타적 입법권이나 경합적 입법권의 기본원칙 제정을 제외하고 법률이 침묵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주에 입법권을 위임하고, 이에 병행하여 재정 분권화를 단행한다. 1999년 및 2001년 헌법 개정으로 지방제도 개혁은 거의 마무리되고 연방제 이행의 마지막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개정에 의한 지방자치제도의 개혁과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탈리아공화국 출범 이래 중앙과 지역·지방의 관계에 존재했던 결함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다.

첫째, ‘주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체제’의 정비로 그동안 주가 관할 영역 내의 지방자치체를 통제할 권한이 없었던 한계는 극복되었지만, 의회를 위시한 그 어느 국가기관에도 여전히 지역이나 지방의 이익을 대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째, 중앙정부가 주, 현, 코무네에 대해 일종의 법적 감독권을 가진 관료 통제는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다.

셋째, 주 제도의 정착에 따라 현의 폐지 문제가 중요한 정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비록 다른 사유로 국민투표에서 가까스로 부결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2014년 헌법 개정안의 지방제도 개혁은 연방제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로 현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넷째, 2001년 헌법 개정으로 보통주의 권한과 역할이 크게 확대되어 특별자치주와 거의 동등한 수준이 되었지만, 북부·중부 선진지역의 보통주로부터 특별자치주에 국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혜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재정연방제의 실시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표 6> 유럽 주요국의 지방제도 비교

국명	자치의 형태	자치주 설치의 경위	주 이하 자치단체의 권한
스페인	* 전국이 17개의 자치주(Comunidad Autónoma)와 2개의 자치도시(Ciudad Autónoma)로 구성	* 1978년 신헌법을 제정하여 지역의 자치권 보장, 관련 현의 발의에 의해 자치현장을 정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자치주의 지위 획득, 이전부터 자치현장을 채택하고 있던 역사적 3주는 헌법 제정과 함께 자치주가 되고 나머지는 1983년 전국적으로 자치주의 지위를 획득	[주의 권한] 역사적 3주는 신헌법 제정과 함께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 나머지 자치주는 설치된 지 5년 후에 자치현장을 개정하여 권한을 확대함, 헌법의 틀 속에서 주법의 제정권과 정부의 법률 개정 제안권을 가지며 EU 등에 직접 대표를 파견
	* 자치주에 50개 현(Provincia)과 8,111개 무니시피오(Municipio)가 존재	* 상원(1/5이 자치주 의원으로 구성)에서 자치주간 협정, 수직적 재정 조정, 자치주에 대한 정부의 강제 집행을 행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입법 심심 및 국가와 자치주간의 분쟁을 처리	* 중앙정부 출장기관의 권한과 인원을 통합, 흡수 의원내각제 * 전속 권한, 주법 제정 권한, 집행 권한이 자치현장에 열거되어 있고 현장의 규정에 따라 관련 항목을 선택 세입은 중앙정부 이양세와 고유세가 1할, 조정세가 8할 [현-무니시피오(Municipio)의 권한] Municipio은 법률과 주법의 틀 속에서 조례 제정권을 갖고 현은 국가사업을 행하는 Municipio의 연합체적 성격을 가

		* 중앙정부의 권한은 헌법에 열거된 사항 및 자치현장에 열거되지 않은 나머지 사항을 처리하나 자치주의 요청에 따라 권한을 이양할 수 있음	집, 국가와 자치주의 공동 관할 현은 Municipio 의원에서 선임된 의회와 집행위원회 제도, Municipio은 의원내각제 현에는 고유세가 없으며, Municipio의 조세 수입은 5할이지만 과세 자주권은 없음
이탈리아	* 전국이 5개 특별자치주를 포함해 20개 주(Regione)로 구성 * 20개 주에 109개의 현(Provincia)과 8100개의 코무네(Comune) 존재	1948년 공화국 헌법에서 20개 주의 설치를 규정하지만 실제로 5개 특별자치주를 제외하고 15개 보통주는 1970년대에 들어 설치되고 1990년의 신지방자치법 제정과 2001년 헌법 개정에 의해 주 제도가 확립됨 * 주는 헌법의 틀 속에서 권한과 조직에 관한 헌장을 책정함 * 국회에 지역대표 의원은 두지 않으며 국가와 주의 권한 배분에 관한 분쟁이나 위헌 입법 심사는 국회, 대통령, 사법부에서 임명한 헌법재판소가 행함(모든 법률이 사후 심사의 대상) * 개정 헌법에서는 정부의 입법사항을 제한적으로 열거 * 본격적인 연방제로의 이행을 시야에 두고 지방자치제도를 개혁 중	[주의 권한] 특별자치주는 역사적, 민족적·언어적, 지리적 이유로 고도의 자치권 부여 헌법에 열거된 국가의 전속 사항 이외의 주법 제정권, 양원에 대한 법률 제안권을 가지며 EU 등에 직접 대표를 파견 의원내각제 헌법에 명기된 재정연방주의의 실현을 위해 현재에도 대대적인 지방세 재정개혁이 추진되고 있음 세입의 6할 이상이 주의 생산활동세의 도입을 통해 주세로 전환 [현-코무네(Comune)의 권한] 2001년의 헌법 개정에 의해 현-코무네가 처음으로 지방공공단체로 자리매김됨 현-코무네는 국가의 법률과 주법의 틀 속에서 조례 제정권을 가짐 현-코무네는 대통령제에 의거하나 집행기관은 합의를제로 기본으로 함 현의 세입은 2할 정도, 코무네는 6할 정도
벨기에	* 연방제국가로 전국이 3개의 주(Région=브뤼셀 수도권 주, 2개의 주)와 3개 언어공동체(Communauté)의 중층구조를 형성 * 2개의 주에는 10개의 현(Province)이 있고, 기초자치체로 589개의 코뮌(Commune)이 있음	1970년에서 1988년에 걸쳐 3차례 헌법 개정을 실시하고 1993년에 입헌연방군주제를 선언(주와 언어 공동체의 설치는 1980년) * 주로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주정부와 함께, 문화 분야를 담당하는 3개의 언어권별 공동체 정부가 중층적으로 설치되어 있음(브뤼셀 수도권 이외의 주는 네덜란드어권, 프랑스어권과 거의 일치하고 나머지 극히 일부 지역이 독일어권 공동체) * 상원(약 3분의 1이 공동체 의원)이, 연방과 주·공동체 정부와의 이해 조정을 담당하고 법률을 둘러싼 대립은 양원에서 선임된 중재원이 판단함 * 연방과 주·공동체 정부의 권한은 완전히 분리되어 중복되지 않음 * 연방정부의 권한은 헌법 등에 규정된 주·공동체 정부의 권한의 나머지 부분으로 그 권한은 비교적 작음	[주의 권한] 현장은 갖지 않으나 조약체결권과 법률 제정권을 갖는 등 연방정부와 대등 연방제 전환으로 정부 부처의 권한과 인원을 통합·흡수 * 주·공동체 정부는 대통령제 주 정부는 지역정비, 도시계획, 경제개발, 고용, 운수, 에너지 개발, 주택정비, 환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공동체 정부는 방송, 교육, 의료, 상호부조 등이 업무를 맡음 재원은 주의 과세 권한 외에 연방 부가가치세의 배분과 주의 소득세 추가분이 있음(정수는 연방정부의 책임) 세입은 공동세 8할, 지방세 1할, 조정금 1할로 구성 [현-코뮌(Commune)의 권한] 현과 코뮌은 주·공동체 정부 법률의 틀 속에서 조례 제정권을 가짐 현과 코뮌은 상위 단체의 후견 및 감독을 받음 현의 권한은 작고 폐지론도 제기되고 있음 * 현은 공선 의회와 관선 지사, 코뮌은 의원내각제 현은 산업진흥, 문화시설, 공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코뮌은 소방, 학교, 복지, 상하수도, 교통인프라, 호적 등의 업무를 담당함 현-코뮌의 세수는 3할 정도
프랑스	* 광역자치체인 주(Région)가 유럽 본토에 13개, 해외에 5개, 전체 18개 존재 * 101개의 현(Département)	1956년 국가의 광역행정단위로서 주 설치. 1982년 지방분권법의 제정으로 관선 지사 및 후견 감독을	[주의 권한] *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정집행권만을 가짐 * 국가와 다른 주 및 외국과의 협정 체결권을 가짐 * 의원내각제(단 수장의 의장 겸임) * 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아 주 권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유럽 본토 96개+해외 5개) 과 그 밑에 말단자치체인 코뮌(Commune)이 36,569 개 존재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 김되며, 2003년의 헌법 개정으로 주가 처음으로 헌법상 지방공공단 체로 인정됨(연방제는 헌법에 의해 부정) * 지방자치 관련 안건은 상원(지방의 원에 의한 간접선거)에서 우선 논 의 * 권한배분법에 의해 정부와 주의 권 한이 규정되어 있고 정부가 임명 한 주 지방장관이 조정 권한을 가 집 *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2016년 유럽 본토의 22개의 주를 13개로 통합함	정부와 주의 공동사업을 통해 주와 정부의 이해를 일치하도 록 방향 조정 * 개정 헌법에 주의 재정자치권 명기 * 세입의 5할 정도가 주가 징수하는 지방세 [현-코뮌(Commune)의 권한] * 현, 코뮌 모두 법률의 틀 속에서 행정집행권만 가짐 * 정부의 후견 감독은 폐지되었지만 정부가 설치한 기관인 현 지방장관의 감독을 받음 * 의원내각제(단, 수장은 의장 겸임) * 현, 코뮌 모두 세율 결정권을 가지며 세율은 5할 정도임
--	--	--

이탈리아 지방제도는 이러한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이탈리아의 지방 자치는 상당히 제도적인 안정성을 보이고 있어 스페인의 카탈루냐의 분리독립과 같은 혼란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 같지 않다. 1960년대에 급진적 분리주의자에 의한 폭탄테러나 노동쟁의가 발생했던 남티롤의 분리독립 문제도 관계국간의 합의와 국제사법재판소의 중재를 통해 대폭적인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1970년대에 들어 안정화되고 있다. 1995년 오스트리아가 유럽연합에 가맹함으로써 이 지역은 오히려 국경을 초월한 협력관계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번성하고 있다. 2006년 5월 이탈리아의 중신 상원의원 프란체스코 콧시가(Francesco Cossiga, 1928-2019, 제8대 대통령/1985-1992, 제62대 수상/1979-1980, Sassari 출신)가, 이 지역의 이탈리아 잔류, 완전한 독립, 오스트리아 편입을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분리주의자를 포함하여 모든 당파가 민족간의 긴장으로 부활시키는 것으로 보고 부결시킨 일은 이를 웅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Daniele Bonamore, *Lingue minoritarie, lingue nazionali, lingue ufficiali nella legge 482/1999*, Milano : Francoangeli, 2004.

Getano Berruto, *Sociolinguistica dell'italiano contemporaneo*, La Nuova Italia Scientifica, Rome : La Nuova Italia Scientifica, 1989.

Nicola Ottokar, *I comuni cittadini del Medio Evo*(Quaderni di critica 5), Nuova Italia, 1936, N. オットカール(清水廣一郎, 佐藤真典共訳), 『中世の都市コムーネ』 創文社, 1972.

Daniel Waley, *The city-republics*, 4th ed. Longman, 2010.

Lucy Riall, *Risorgimento : the history of Italy from Napoleon to nation-state*, Palgrave Macmillan, 2009.

Jane Schneider, eds., *Italy's "Southern Question" : Orientalism in One Century*, Oxford/New York : Berg, 1998.

Silvio Lanaro, *Storia dell'Italia Repubblicana*, Venezia : Marsilio, 1992.

Aurelio Lepre, *Storia della Prima Repubblica*, Bologna : il Mulino, 1993.

Ilaria Sangiuliano, *Compendio di Diritto Regionale e degli Enti Locali*(12edizione), Napoli : Simone, 2003.

Augusto Baebera e Carlo Fusaaro, *Corso di Diritto Pubblico*, Bologna : Il Mulino, 2002.

Annuario Statistico Italiano 2003.

Annuario Statistico Italiano 2016.

佐藤真典, 『中世イタリア都市国家成立史研究』, ミネルヴァ書房, 2001.

井口文男, 『イタリア憲法史』 有信堂高文社, 1998.

北原淳編, 『イタリア史』 東京 : 山川出版社, 2008.

Ⅳ. 생태 및 환경을 둘러싼 이슈들

1. 들어가는 말

1921년 소설 <바다와 사르데냐>를 쓴 DH 로렌스는 “이 땅은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다. 사르데냐는 무언가 다르다. 매혹적인 장소와 여행하기에는 먼 거리. 아직 끝나지 않은, 아직 확고한 것이 없는, 이 땅은 자유 그 자체다”

전에는 이상적인 낙원이었던 곳이 NATO의 군사주의 산업복합체와 그것의 기생물들에 의해 지구상의 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위의 글은 바네사 빌리(Vanessa Beeley 2016)가 나토(NATO)를 포함한 군사기지와 이에 따른 독성물질 피해가 어떻게 사르데냐를 자유의 땅에서 지구상의 지옥처럼 변질시켰는지를 격하게 표현한 말이다. 현재 사르데냐의 생태유토피아적 특성들은 군기지가 일으키는 심각한 환경오염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다. 본 장은 생태유토피아적 특성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지만 동시에 군사 기지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경험하는 사르데냐의 상황은 ‘섬’이라는 특정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기인한 점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섬 또는 섬나라들은 물리적 위치, 기후, 함유하고 있는 천연 또는 문화자원, 파괴되지 않는 독특한 생태계 덕분에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대륙에서 떨어진 섬은 과학적 관심을 끌만큼 생태계가 소우주의 신비를 간직할 뿐 아니라, 종간의 내부 경쟁이 세지 않아 대륙보다 다양하고 특이한 형태의 동식물군이 생존할 수 있었다. 19세기 중엽 사르데냐를 연구한 지질학자들은 사르데냐의 ‘지질다양성’을 발견하고 매우 놀라워했다. 사르데냐는 5억만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축적될 수 있는 다양한 지층으로 이뤄져있었기 때문이다(Funedda 2016). 사르데냐는 24,000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진 지중해 연안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며, 이탈리아 본토의 10분의 1의 크기다. 사르데냐는 세계 최고의 장수지역으로 선발되었을 뿐 아니라, 자연그대로의 오염되지 않은 해변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섬이라는 지역성은 의식주 및 생계양식, 심리적 특질을 포함하여 토착성이 구성되는 곳이고, 생태계의 보고이면서 동시에 언제든지 중앙정부의

정치적 통제와 ‘남용’의 가능성에 노출된다. 본토의 중앙정부는 세금, 체류 규정, 특별 혜택 등을 통해 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관광유치를 촉진하기도 하지만, 지역민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정책을 집행하기도 한다.

국가에 의한 섬지역의 대표적 ‘남용’ 사례는 위험의 외주화(externalization of risks)를 목적으로 한 군사기지 설립이다. 최근 군사기지 지역의 오염과 동식물 및 인간에게 일으키는 재앙적 질병의 사례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환경’에 대한 우려가 증폭하고 있다. 사르데냐는 이탈리아 군사기지의 80퍼센트가 집중된 초고도화 된 군사복합단지이다. 오랜 기간 ‘비밀주의 원칙’에 의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군사시설 및 오염물질의 저장고인 사르데냐의 모습은 생태유토피아 섬의 또 다른 현실이다. 오염되지 않는 생태계의 보고 및 장수지역이라는 이미지와 최근 재앙적인 위험성이 폭로되고 있는 군사기지로서의 사르데냐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본토 혹은 중앙정부와 맺고 있는 모순적 관계를 잘 보여준다.

양립 불가능한 현실과 경험의 공존하는 사르데냐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섬 지역의 가능성과 취약성을 동시에 목격할 수 있다. 사르데냐는 현재 산업시설 및 군사기지에 의해 영향을 받은 해안과 육지를 복원하고, 토양 오염과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민의 의식 고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정책 또한 환경 및 사회문화적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Sistu and Statzu 2016).

이 장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사르데냐를 어떻게 낙원과 지옥이라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했는지를 분석한다. 문헌 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사르데냐의 경험을 외부인의 시선으로, 동시에 전 지구적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서 구성해보려는 시도이다. 이를 통해 제주의 개발 및 발전 정책과 그 방향을 위한 비교/참조체계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사르데냐의 생태유토피아적 특성

환경과 관련한 사르데냐 지역정부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고유한 ‘풍광’을 지켜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풍광은 단순한 자연 조건이 아니라 사르데냐의 정체성의 핵심이며 또한 ‘공공선’이라는 믿음이 강하다(Sistu and Statzu 2016). 이 때문에 사르데냐의 ‘환경’ 문제는 단순히 인간 외부의 자연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 생활양식, 문화적 습성 등과 결합한 일종의 총체적 인간 환경을 의미한다. 지역의 자연환경이 다르면 목축, 농업,

해안개발, 도시 개발 등 다른 생활양식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각각의 상황은 특정한 정체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 각각의 ‘고유성’을 지속시키는 것 또한 풍광을 보존하는 데 중요하다. 아래 사례는 사르데냐의 각기 다른 지역에서 ‘고유한 풍광’과 생활양식을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1) 장수 신화: “그 마을에서는 주말마다 함께 빵을 굽는다.”

사르데냐 섬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녀의 평균수명이 비슷하고” “현재 지구상의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100세 노인의 숫자가 평균 여섯 배 이상 많은” 지역이다(수전 핀커 2015: 25). 100세 이상 장수자의 수가 많아 ‘블루존’에 선정되었다.

수전 핀커(2014)는 <빌리지 이펙트>라는 책에서 사르데냐 산악지대 사람들이 어떻게 장수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면서 그 요인을 “그 마을에서는 주말마다 함께 빵을 굽는다.”로 표현한다. 사르데냐 사람들은 주말마다 이웃 친지들과 함께 모여 빵을 굽고, 광장에 모여 수다를 떠다. 양치기와 농사 등 주로 고된 육체노동을 하면서도 의료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산악지대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무려 20~30년이나 오래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고민하다가 나온 대답이다. 사르데냐인들은 산악지대에서 살면서 지정학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으므로 풍토병과 외부인의 침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고, 동시에 배타성을 갖게 되었다. 이 지역인들에게는 “바다에서 오는 자는 다 도둑이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런 배타성이 부정적 영향만을 끼친 것은 아니다. 고립은 오히려 끈끈한 가정애와 공동체 정신을 만들어냈다.

장수는 양젖, 치즈, 와인을 포함한 지역 음식과 함께 사회적 결속력 덕분에 가능했다. 사르데냐는 토착적인 재료와 스페인, 아랍, 북아프리카 등의 영향을 받아 발전된 독특한 식문화로 2010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중해 식문화’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토착적 방식으로 재배된 120여종의 포도에서 생산된 와인들, 목축업의 발달로 만들게 된 염소치즈 및 카스마루주(Casu Marzu)라 불리는 썩혀 만드는 치즈, 다양한 종류의 파스타와 빵 등은 사르데냐의 매력적인 ‘토착’ 혹은 향토 음식이다.

그러나 이런 물리적 요소만큼이나 사회문화적 ‘관계’가 장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르데냐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질병에 대한 면역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느슨하고 얕은 관계보다는 자신을 잘 아는 사람, 즉 가족이나 친족이 제공하는 진정한 사회적 지원과 강

렬한 소속감이 이러한 유대 관계의 핵심이다. 이는 사르데냐인들이 지위 혹은 거리와 상관없이 나이 든 가족을 찾아가는 일을 도덕적 의무로 여기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산지라는 지형적 특성에서 기인한 지역적 고립과 유전적 고립, 식습관 등이 사르데냐 지방의 놀라운 장수 비결이자 조건이다. 이때 가장 핵심적인 문화적 요소는 사르데냐 마을의 일상이기도 한 “얼굴을 마주하는 접촉”이다. 얼굴을 마주하고 빵을 나누는 문화는 외부인에 대한 관용과 환대로 확장된다.

이런 사회문화적 속성은 사르데냐 사람들이 단순히 배타적이라기보다 사르데냐인의 정체성과 강한 자부심을 지켜내면서 동시에 관광객이나 타인을 배려하고 환대하는 독특한 섬 정체성, 즉, 인솔라리타를 발전시켜낸 결과다. 이런 관점은 사르데냐의 관광 유치 및 생태계 보전 정책에 잘 반영되어 있다.

2) 해안 환경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

사르데냐의 생태 유토피아적 이미지는 관광객의 증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60만 인구인 사르데냐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1년에 1200만 명이나 된다. 사르데냐 지역정부는 최근 ‘끝이 없는 사르데냐(Endless Sardinia)’라는 구호를 내걸고 복합적 체험을 유도하는 관광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사르데냐는 산, 바다, 독특한 토착 문화, 역사, 지역적 다양성 등 끝이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사르데냐는 해안지역, 산악지역, 동서남북의 위치에 따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역사와 문화가 독특하고 다르다. 동시에, ‘끝이 없는 사르데냐’는 ‘섬’의 독특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미 과도한 개발과 정형화된 형태의 근대화를 통해 독특성이나 토착성을 상실한 자본주의적 도시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고립되어있던 섬은 오히려 강한 매력과 흡인력을 지닌 공간이 된다. 이런 ‘끝이 없는 사르데냐’라는 구호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관광객이 지나치게 여름 한철에 집중되어 해안 등 자연 자원에 대한 압력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한철 집중적으로 몰리는 관광객 때문에 해변지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본 보고서의 부록에서 보듯이, 사르데냐는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목표로 해안지역의 오염을 막기 위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해안 환경을 관리하고 있다.

연구진이 방문한 기아(Baia Chia)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자. 7년째 시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마리아 콘체다스타다씨는 한국에서 온 연구진을 해안이 한눈에 보이는 언덕 위로 데려갔다. 그녀는 “지금 보는 대로 바다의 파노라

마 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해수욕을 즐기러 온 관광객을 위해 편의시설로 큰 건물 등을 짓는 것보다는 세대를 거쳐 유지될 수 있는 지역민의 정체성을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런 지역 개발의 방향은 앞선 경험에서 얻은 교훈 덕분이었다. 이전에 이미 대규모 위락 및 숙박 시설을 지어 관광객을 유치해봤지만, 건물주 외엔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사르데냐 대부분의 해안가에는 그곳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만 건물을 짓게 하는 규정이 있고, 이는 매우 엄격하게 지켜진다고 한다. 기아 지역은 최근에는 500미터로 그 기준을 강화시키려고 한다.

또한 기아 지역은 해변까지 나무로 된 보행로를 만들었다. 해변 근처에는 기아 지역에서 설립한 샤워시설이 하나 있고, 여기서는 샴푸, 린스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숙소에 돌아가서 씻어야 한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그 안에서 버린 사람의 신원이 드러날 만한 영수증 등을 찾아 1000유로의 벌금을 물린다고 한다. 기아 지역 시장은 “관광의 목표는 주로 7,8월에만 몰리는 해수욕 위주의 관광객을 연중으로 분산시키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로맨스 보트를 띄우거나 트레킹 코스, 승마 코스를 개발하는 등 지역을 방문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지만, 승마를 해도 말을 타고 해변으로 갈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지속가능한 관광은 관광을 막는 것이 아니다. 관광객의 장기적 체류와 연중 분산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생태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사르데냐는 천혜의 오염되지 않은 해변을 홍보하며 관광객을 유치하고 동시에 해변이 관광 사업에 오염되지 않도록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르데냐는 휴가철에 갑작스럽게 몰려드는 외부인들은 장기적 관점으로 섬의 복지와 안녕에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섬 자원의 파괴에 둔감하다는 것을 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동식물 또한 파괴적 영향력을 갖기 쉽다. 이 때문에 동식물의 유출 및 유입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파트리치아 모디카(Patrizia Modica) 교수와 공동 집필진의 저작(2016)에서 보듯, 사르데냐는 해안 생태계를 보호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매우 엄격한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기아 지역이나 산탄티오코 지역의 예처럼 사르데냐에서 지역의 정체성, 자연문화 보존과 관광객 유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는 핵심적인 이슈다. 관광 정책의 목표는싼 가격의 대규모 관광을 유치하기보다 사르데냐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여행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즉, 바다 중심의 관광이 아니라 섬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질적인

관광을 지향한다.

에너지 대책도 생태계 보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풍력 발전소는 소음이 크고 자연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장려하지 않고, 대신 태양열을 비롯한 대체에너지 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해수욕을 하기 위해 관광객이 집중되는 7, 8월에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쓰레기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형태로도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민의 관점과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고 논의 구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3) 저항의 관광화

현지조사 시 심층면접을 한 교수는 아래와 같이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주었다.

통계청 설문조사에서 “당신은 유럽 사람인가, 이탈리아 사람인가, 사르데냐 사람인가”라고 물어 문항 분석한 결과 사르데냐 사람들은 사르데냐 사람, 유럽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말한다. 사르데냐 사람들은 국가의 국민이라는 의식보다 사르데냐 지역공동체 의식이 더 투철하다.

강한 정체성은 유연함을 요청하는 자본주의의 확산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즉, 자본이나 국가 통제력의 유입에 저항하는 지역민의 정체성은 항상 후진적이며 낙후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사르데냐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전통적이며, 접근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산악마을 중 오르고솔로의 사례는 매우 흥미로운 반전을 제공한다. 연구진이 방문한 젠나루젠투 산맥의 가파른 산비탈에 위치한 마을 중 하나인 오르고솔로는 가는 길이 매우 험난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관광 마을로 부상했다. 오르고솔로는 이탈리아 정부에 대항한 저항정신이 담겨진 건물 벽화들로 유명할 뿐 아니라 “분리주의 반대파”가 몰려있는 동네로도 유명하다. 오랜 기간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목축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온 사람들은 외부인을 경계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등 ‘악명’이 높았고, 이는 야만적이고 전통적인 것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현재 오르고솔로는 전 세계인의 저항 성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68년 11월에 발생한 오르고솔로 주민들의 저항은 지역민들이 자기 보호의 권리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지역에 들어설 계획이던 사격장 건설에 반대하며 열렬히 저항했다. 이런 지역 운동은 이탈

리아 정부와 사르데냐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관계에 의문을 표시하는 정치적 논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오르고솔로의 저항은 소외된 지역사회가 자신의 커뮤니티를 지킬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자성이란 개념을 확립시켰고, 프라토벨로 항쟁이라 불리며 군사주의와 군사기지에 반대하는 저항의 포문을 열었다.

이러한 오랜 저항의 역사는 마을 전체를 뒤덮은 벽화를 통해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억과 감정은 후세대들과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 계승되고 있다. 연구진이 방문할 당시 오르고솔로는 많은 관광객들로 붐볐고 지역 민속품이나 벽화를 담은 우편엽서 등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했다. 오르고솔로의 사례는 생태계 및 생계양식이 역사적 경험과 저항 정신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자유를 향한 움직임은 이제 관광객을 불러오는 문화적·역사적 자원이 되고 있다.

3. 군사주의적 재앙과 생태유토피아의 불가능성

1) 군사주의를 통한 섬의 남용

사르데냐는 ‘거대한 군사복합지역’(giant military complex)이 되고 있다. 이탈리아 군을 포함해 나토, 미군기지 등 군사기지의 집중은 사르데냐의 미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사르데냐에 어떤 배경과 이유로 군사기지화 실험장이 건설되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학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섬’이란 지역적 환경은 본토가 부담하기 어려운 위험을 ‘외주화’하는 기능을 오랜 기간 수행해왔다. 섬의 오용(abuse)이 가속화되면서 섬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며, 외부의 위협에 면역력을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위계적으로 육지에 통합되어 간다. 섬은 생태계적으로 독특하고 동시에 취약하다. 한번 파괴되면 다시 회복하거나 돌이킬 수 없다. 섬은 그야말로 생태계적 소우주이며, 내부 경쟁이 세지 않아 대륙보다 다양하고 특이한 형태의 동식물군이 생존할 수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 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의 보고서에 의하면, 섬이 활용돼 온 방식은 크게 민간차원과 군사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이주를 통한 정착이 발생해 섬에서 나오는 다양한 자원을 가져간다. 인간 정착은 영구정착자와 임시체류자로 구분될 수 있고, 토착적 운반능력(indigenous carrying capacity)의

한계를 곧잘 넘기는 수준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섬을 사용하는 것(use)과 오용하는 것(abuse)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짓기는 어렵다. 섬 오용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군사적 목적으로 섬을 사용하는 것이다(134~140). 냉전시대 강대국인 미국의 초국가적 군사주의의 전략지 역할을 하는 곳은 많은 경우 본토보다는 섬이다. 섬은 이런 점에서 대항 혹은 노동중개자의 역할을 맡도록 요구된다. 일련의 법적 장치 혹은 비밀스러운 거래를 통해 군대가 들어오고 다양한 무기 실험이 실행된다. 군대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섬 주민이나 근처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음벰베(Mbembe)가 개념화한 ‘죽음정치적 노동’을 수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군 복무와 군사 노동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위협에 처하게 함으로써만 수행될 수 있는 일이므로 죽음정치적 노동의 일종이다. 즉, 죽음이라는 궁극적 사건 자체보다 죽음의 가능성에 연결되어 전제적 노동 착취의 매개가 되는 것이다(이진경 2015: 41). 군사적 목적으로 섬이 사용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1) 군사 실험, 무기 실험장

섬에 군사기지가 들어서는 것은 외부 위협에 대한 방어와 전쟁을 위한 공격을 위해, 또는 섬의 독립 움직임이나 운동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외부 세력은 자원, 전략적 위치 등 때문에 호시탐탐 수많은 섬들을 점유했다. 섬은 개발무기의 실험지역, 군사훈련지, 그리고 전쟁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1967년 미국과 영국이 인도양의 작은 섬 알다브라(Aldabra)에 공군기지 및 통신시설을 세우려했다. 이 섬은 아프리카 해안으로부터 640킬로, 마다가스카르로부터 420킬로 떨어진 작은 섬이었다. 무엇보다 이곳은 거대한 군함새의 번식지였다. 공군 비행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대부분의 새들은 박멸 당했다. 섬에서 번식하는 레이산 알바트로스 새는 멸종됐다. 또한 이곳은 알다브라는 거대 거북이의 마지막 서식지기도 했다.

군사기지 설립은 사람들의 유입뿐만 아니라, 건물, 활주로, 인공 항구, 섬을 연결하는 주교 등을 포함한 도로 시스템의 건설을 수반한다. 이 때문에 생태계의 파괴와 멸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초래된다. 군사 기지인 푸에토리코의 쿨레브라(Culebra)섬, 하와이 마나나(Manana) 섬의 생태계 역시 철저히 파괴되었고, 위험한 불발탄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 회복조차 매우 어려운 지경이다. 1941~42년, 2년간 영국의 생화학 무기 시험기지였던 스코틀랜드의 그레나드(Gruinard) 섬은 1966년까지도 매우 심각한 상태로 오염되어 있었다. 핵무기 실험 시 크레이터의 모든 생명체가 사멸되

는 것은 물론 심각한 토양 오염은 수백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마살 군도 비키니섬에서 이뤄진 생태계 회복을 위한 조사(Held 1960)에 의하면 유독성 물질들은 이미 영구적인 방식으로 생물지역화학 순환시스템을 형성하고 있었다. 핵실험 기지가 있는 섬들에서 주민의 의료적 피해는 불가피하다. 특히 유아와 청소년들에게 갑상선 암 발병 비율이 매우 높다. 비키니 섬은 이후 지속된 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수, 토양, 식물들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여전히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남아 있다.

(2) 전투지역

섬들은 ‘전투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Cyprus, Rhodes, Malta, Khios 등 지중해의 몇몇 섬들에서는 지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다. 태평양의 섬들 또한 2차 세계대전 중에 폭격지가 되면서 생명체의 손실은 물론 생태계 교란과 사회적, 생태적 격변을 겪었다.

스톡홀름 보고서의 저자들은 설사 의도가 좋다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군사적 사용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전쟁 중에는 호전적인 세력의 분노감이 표출되기 쉬운 장소가 바로 섬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미사일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섬이 핵무기용 해군기지로 개발되어야 할 근거는 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섬이 군사기지화 되는 것은 냉전체제 종식 이후에도 여전히 군과 관련된 사업이 이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탈냉전 시대에는 군대의 민간 군사기업화가 촉진되는데, 역설적이게도 민간군사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한 것 또한 1990년대 초반이다(켄 실러스타인 2007, 강미연 118쪽에서 재인용). 이는 자본주의와 군사주의가 결합되었음을 의미한다. 탈냉전으로 군사비는 상대적으로 감축된 반면, 신무기를 만들기 위한 연구 개발비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들은 이 비용 부담을 시장에서 해소하고자 했다(강미연 2011: 122). 안보는 구매하는 것이고, 전쟁 그 자체가 새로운 시장 혹은 자본주의의 확장의 활로가 되고 있는 것이다(나오미 클라인 2008). 재난자본주의복합체라는 말은 전 지구적 불안의 상황, 즉 전쟁, 테러, 자연재해, 경제 위기 등의 ‘재난’이 민영화된 군사복합체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들이 ‘쇼크’ 상태를 유지, 활용해 자본 축적을 도모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2) 사르데냐의 군사기지 문제와 재앙의 일상성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구제 및 복구 자본의 대부분은 사르데냐의 군사기지화를 위해 사용되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로켓 발사장이 1956년 사르데냐에 건설되었다. 몇 년간의 확장을 통해 Inter-Service Test and Training Range(PISQ)는 유럽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적 실험과 훈련센터로 자리 잡게 된다. 이탈리아 공군에 소속된 PISQ는 사르데냐 동쪽 해안의 올리아스트라(Ogliastr)지역에서 12,000헥타르의 지역을 차지했다. PISQ에서는 일상적인 군사훈련, 미사일 우주 연구와 신원료 실험, 이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NATO)의 전자전쟁 훈련 등이 이뤄졌다. 사르데냐에 군사기지가 설립된 것은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던 섬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당시 이탈리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던 사르데냐의 경제회복을 위해 마샬 플랜의 원조를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사르데냐에는 생계형 농업이외의 별다른 경제 수입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군 기지는 유일한 대안처럼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경제적 혜택에 대한 믿음은 지난 47년간 군 기지로 인한 건강과 환경 위협에 대해 침묵하게 만들었다. 2000년이 돼서야 군 기지 주변 지역에서 생겨나는 암, 백혈병들의 발병 사례와 기형 동물들의 출현 등을 통해 군 기지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또한 군대의 ‘비밀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군대가 만들어내는 환경적 재앙은 조사될 수 없었다. 무엇보다 미디어나 언론이 영향이 컸다.

사르데냐에 군사기지가 들어선 이후 현재까지 군사기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시기별로 변화해왔다. 지역 신문 등 미디어의 기사 내용을 분석한 아이디 에수(Aide Esu)와 시모네 맛다누(Simone Maddanu)는 군사기지의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점이 정보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잘 보여준다. 사르데냐의 군사기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의제는 미디어에 의해 일정부분 ‘프레임’되어 왔다. PISQ가 설립된 1956년부터 1968년의 기간 동안 미디어는 군사기지의 설립을 낙후된 전통의 대안 즉, ‘현대화’로 규정했다. 우주, 미사일, 고급기술을 제공하는 군사기지야말로 기술적 혁신과 탁월함으로 사르데냐의 낙후성, 전통, 후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주장이 우세했다. 또한 1968년부터는 사르데냐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개입과 노력을 요청하는 담론이 지배적이었다. 군사기지 PISQ는 이탈리아, 미국,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회원국과의 국내, 국제적 관계를 만들어냄으로써, 사르데냐를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는 성공의 상징으로 재현되었다. 군사기지는 가난과 이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대화적 경제발전의 기회이며 농업-목축업에 고착된 지역경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기반 투자와 기술적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했다. 모든 위험이 집중된 군사기지의

부정적 영향에 주목하기보다는 사르데냐의 고립, 빈곤, 배타주의를 해결하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군사기지를 상상하게 만들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군사기지를 반대하는 지역운동이 일어났지만 이런 현실은 소수의 의견으로 수용되었다. 이 기간 동안 군사기지에 연관된 단어는 주로 로켓, 프로젝트, 계약, 선구자, 기회, 발전, 미래, 안전, 현대적이란 단어로 군사기지의 현존을 정당화하고 미화했다. 즉 군사기지의 위험성이나 환경 평가의 필요성, 지역 주민의 입장 등에 대한 조사나 의견 수렴 과정 자체를 차단하는 미디어의 일방적인 홍보 및 선전이 주를 이뤄왔다.

1969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핵무기의 위험성이 알려지고 반전운동이 확산된 시기였기 때문에 사르데냐의 군사기지에 대한 사회적 저항과 평화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저항의 초점은 사르데냐 북부의 라 마다레나(La Maddalena)에 위치한 미국 핵무기 잠수함 부대였다. 오로고솔로 지역의 격렬한 저항 운동 및 군사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평화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디어와 언론은 군사기지가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외연들을 확장한다는 이유로 군사기지를 적극 옹호했다.

1981년부터 2000년 동안 처음으로 군사기지가 지역주민에게 어떤 위험과 재앙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주요 행위자들은 군사주의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단체였다. 이런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이미 군 기지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서 일으키는 사고와 재앙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언론은 군사기지가 성공적인 국제관계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준다는 이유로 시민사회와 군사기지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갈 수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문제를 회피했다. 체르노빌 이후 핵 관련 사고와 재앙에 대한 성찰이 시작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PISQ 인근 지역의 주민 피해 사례를 공론화시켜냈다. 하지만 다른 민간기업과는 달리 군대는 어떤 정보나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비밀주의 원칙에 의해 늘 면죄부를 받을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지역 운동은 어떻게 군대가 헌법에서 보장된 지역민의 경제적 발전과 지방자치의 힘을 약화시켜왔는지 말하며 의식화 운동을 전개했다. 군대는 지역민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지역민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은 발칸 신드롬(Balkan Syndrome)과 쿠이라 신드롬(Quirra Syndrome)으로 대표되는 군사기지의 직접적 영향이 인간의 신체에 일으키는 치명적인 병에 대한 ‘증거’가 보고되는 시기다. 발칸반도에 배치되었던 나토 군인들의 암과 백혈병 증상을 보고한 발칸 신드롬과,

쿠이라 지역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치명적인 질병의 발명이 보고되면서 경제적 이익보다 인간과 동물의 건강 문제가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군사기지와 건강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지만, 환경오염에 관한 연구는 이미 피해가 엄청나게 가시화된 2013년에 처음 진행되었다. 마우로 크리스탈디 등은(Cristaldi et al, 2013) 로켓발사 실험 등의 무기 실험장으로 이용된 남서부 군 기지 지역의 환경오염조사를 통해 유해 물질이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밝혀냈다. 동물 기형이 발생했고, 양, 치즈, 꿀 등에서 다양성이 축소되었으며, 밀을 포함한 푸드 체인 깊숙이 오염이 진행되었다. 인간 혈액 림프 종양과 암 발생이 높았지만, 여전히 비밀주의 원칙에 의해 전수조사가 불가능했으며, 해양 오염은 아직 연구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안전, 안보, 일자리 등의 이유로 지지를 받아 온 군사기지의 위험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환경오염 피해자를 구제하여 돈을 버는 재난자본주의 복합체까지 등장할 판이다. 군사주의 산업은 무기 거래나 군수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위기를 관리하고 복구하는 모든 작업에 참여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사르데냐에서는 군사기지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여전히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믿음이 매우 강하다는 데에 있다. 연구진이 인터뷰한 공무원과 지식인 등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는 “군사기지의 오랜 현존 덕분에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어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었다”라는 매우 역설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만큼 사르데냐는 생태 중심의 관광과 군사기지에 대한 의존이라는 역설적 경로를 모두 포괄하고 있었다.

4. 제주와의 비교 및 참조체계로서의 사르데냐

이미 난개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제주는 평화의 섬이라는 핵심가치와 군기지, 쓰레기 처리, 생태 지향적 정책과 가이드라인 부재 등에서 오는 반-생태적 상황 사이에서 새로운 경로를 구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강정에 들어선 해군기지까지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사르데냐는 제주보다 면적은 13배 크고, 인구는 3배 더 많다. 그렇지만 생태와 토착성의 보존지이자 군사적 전략지로서 기능을 동시적으로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토착적 식문화와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에 에코파라다이스로 부상하는 사르데냐와 군 기지의 집중화로 인한 환경오염 및 인간 생명에 대한 위

협 사이에서 사르데냐가 취해온 노선을 어떻게 제주의 발전을 위한 참조체계로 구성할 수 있을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르데냐가 보여주는 섬으로서의 오용된 경험과 자치를 둘러싼 투쟁의 역사는 제주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인간이 초래한 다양한 ‘위험’들이 전 지구적으로 산재한 상황에서 섬 지역 주민들과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섬’이란 특수성이 토론과 논의의 방식, 해결책에 있어서 서로 다른 입장과 생각들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환경은 단순히 인간 ‘외부’를 의미하지 않는다. 환경은 물리적, 생물학적, 인지적으로 구성된 상호의존적인 개념이며 인간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또한 재앙은 자연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사르데냐와 제주는 상호 참조 체계를 갖게 될 수 있다. 서로 연결되고 대화하며 접속의 정치를 구성해갈 수 있다. 나아가 이를 시작으로 생태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전 지구적 섬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능력 또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미연.(2011). “탈냉전 자본주의: 전쟁도 상품이다,” 김현미 외 친밀한 적: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서울: 이후, 105-135
나오미 클라인. 김소희 역. (2008). 쇼크 독트린. 서울: 살림.
수전 핀커. 우진하 역. (2015). 빌리지 이펙트. 21세기 북스.
이진경. 나병철 역. (2015). 서비스 이코노미: 한국의 군사주의·성노동·이주노동. 서울: 소명출판.

Aide Esu. et al. (2017) Military pollution in no war zone: The military representation in the local media. *Journalism* 18(4): 1-19

Antonio Sorge. (2015). The past sits in places: Locality, violence, and memory in Sardinia. *Critique of Anthropology* 35(3): 263-279,

Eliot A. Cohen. (2000). Reviewed Work(s): The Postmodern Military: Armed Forces after the Cold War by Charles C. Moskos, John Allen Williams and David R. Segal. *Foreign Affairs* 79(3):165

Fabrizio Bianchi. (2012). Lessons learned from the 'Quirra syndrome': more epidemiology and prevention. *Epidemiologia e prevenzione* 36(1): 45-48

Franco Lail. (2013). Nature and the city: the salt-works park in the urban area of Cagliari (Sardinia, Italy). *Journal of political ecology* 20(1): 329-341

Funedda, Antonio. (2016), "Geodiversity" of Sardinia. In Andrea Corsale and Giovanni Sistu, eds. *Surrounded by Water: Landscapes, Seascapes and Cityscapes of Sardinia*.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Chapter 2, pp. 16-26.

Giuseppe Ioppolo et al. (2013). From coastal management to environmental management: The sustainable eco-tourism program for the mid-western coast of Sardinia (Italy). *Land Use Policy* 31: 460-471

Massimo Zucchetti. (2005). Environmental Pollution and Health effects in the Quirra Area, Sardinia Island (Italy) and the Depleted Uranium Case. *Journa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logy* 7: 82-92

- Mauro Cristaldi. et al. (2013). Toxic Emissions from a Military Test Site in the Territory of Sardinia, Ital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0: 1631–1646
- Modica, Patrizia and Muzaffer Uysal. (2016). *Sustainable Island Tourism: Competitiveness and Quality of Life*. CABI.
-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1980). *Warfare in a Fragile World: Military Impact on the Human Environment*. LONDON: Taylo & Francis Ltd.
- Sistu, Giovanni and Statzu, Vania (2016). Environmental Policies in Sardinia: Some Desirable Scenarios of a Complex Development Strategy. In Andrea Corsale and Giovanni Sistu, eds. *Surrounded by Water: Landscapes, Seascapes and Cityscapes of Sardinia*.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Chapter 7, pp. 242–255.

기사

- Biagio Guccione et al. eds. (2008). Linking Urban Developments to Green Areas; An Overview of Good Practices In Europe. Green Links
- Giulia Lombardo. <Sardinia's future under threat!>. Backhill Online
- Tracy Wilkinson. <Sardinia Says It's Time for the U.S. Navy to Leave Port; The military's presence impedes the island's growth as a tourist haven, locals say.>. Los Angeles Times, 2005. 7. 17
- Sandra Jontz. <U.S. Navy closes base on Sardinia>. Stars and Stripes, 2008. 3. 1
- Helen Jaccard. <Sardinia: Militarization, Contamination & Cancer in Paradise> WarIsACrime.org, Scoop Media, 2012. 6. 26
- Vanessa Beeley. <NATO's Military Enslavement and Toxic Invasion of Sardinia> 21st Century Wire, 2016. 7. 14
- Focolare Movement, <Sardinia: Converting weapons to jobs> 2017. 5.

V. 사르데냐의 관광

-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사르데냐의 노력

1. 연구목적

본 장에서는 최근 제주가 고민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구상하는데 하나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르데냐에서 관광이 어떻게 문제화되고 있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구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장은 2017년 6월 15일에서 20일까지 수행되었던 현지 방문조사와 Monica Iorio가 쓴 ‘Tourism in Sardinia: A Potential Yet to be Achieved’¹⁶⁾ 논문을 비롯한 사르데냐와 관련된 문헌자료들이 사용되었다. 현지 방문조사에서 관광, 음식, 문화를 중심으로 실시된 학자 및 전문가 면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일자	면담자	소속 및 지위	내용
6월 15일	Marco Sechi	사르데냐 지방정부 대외협력 담당관	사르데냐 관광정책 및 주정부의 역할
	Ilenia Ruggiu	칼리아리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르데냐 관광 및 발전
	Sanrina Perra	칼리아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르데냐 젠더 문제 및 정책
	Gianmario Demuro	칼리아리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르데냐 정치구조 및 헌법
6월 16일	Alessandra Carucci	칼리아리대학교 부총장	사르데냐 지속가능한 발전 및 정책
	Pierluigi Caboni	칼리아리대학교 약학과 교수	사르데냐 음식, 장수, 영양학
	Patrizia Modica	칼리아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유럽연합 및 사르데냐 지속가능한 관광
6월 17일	Maria Concetta	기아(Chia) 시장	기아 지역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
6월 20일	Antonio Piga	사싸리대학교 농업학 교수	사르데냐 음식, 장수, 농업경제

16) Monica Iorio(2016), ‘Tourism in Sardinia: A Potential Yet to be Achieved’, *Surrounded by Water*, Cambridge Scholar Publishing, pp.220~241.

2. 사르데냐 관광산업의 시작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사르데냐의 관광산업은 지중해의 코르시카나 시칠리아보다 늦게 발전되었다. 그 이유는 주로 역사적, 사회경제적 조건 때문이다. 항상 외부의 침입자들에게 시달렸고, 말라리아 전염 때문에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살지 않았다. 대신에 섬 내륙에 도시와 마을을 건설했고 목축과 농업에 기반을 둔 경제를 발전시켜왔다.

경제활동으로 관광산업이 시작된 것은 1948년이다. 1948년에 사르데냐 섬의 관광산업에 대한 첫 번째 투자가 시작되었고, 관광산업과 관련된 1차 발전계획이 입안되었다. 특히 1948년은 사르데냐가 특별자치구로서의 지위를 성취한 해이며 해안지역에서 말라리아가 근절되었던 시기이다. 사르데냐의 관광에 대한 첫 번째 홍보와 기반시설의 발전은 지역 조직인 ESIT(Ente Sardo Industrie Turistiche)¹⁷⁾에 의해 추진되었다. ESIT가 호텔 개발 구상과 재정지원을 도맡았다. 관광산업의 첫 번째 도약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사이에 주로 알게로(Alghero) 자치지역과 알게로의 리비에라 델 코랄로(Riviera del Corallo)에서 시작되었다. 1955년에 357,000명이던 관광객은 1961년에 두 배로 성장하여 760,000명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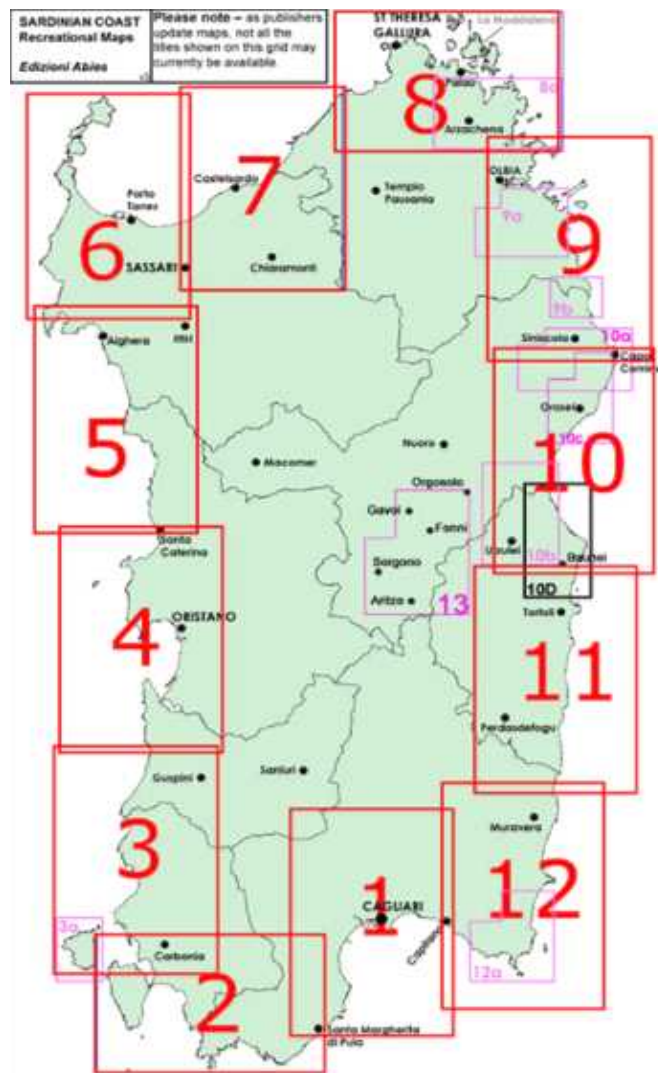
관광산업의 가장 큰 붐은 1960년대 초기에 일어났다. 아랍의 왕자인 Shah Karim Al Husseini Aga Khan(IV)이 아르자케나(Arzachena) 자치지역의 코스타 스메랄다(Costa Smeralda) 지역에 투자를 하면서 포르토 세르보(Porto Cervo)¹⁸⁾와 함께 고급관광산업의 중심지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이 지역은 사르데냐 관광산업의 상징이 되었다.

스메랄다 해안이 국제 제트기 족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면서, 새로운 관광산업의 시설들이 섬의 해안 자치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다른 지역의 관광산업들도 이와 비슷한 경로를 따르면서 사르데냐의 관광산업은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관광산업은 사르데냐 섬의 주요한 경제가 되게 된다. 1970년대부터 섬의 많은 해안지역에 집중적으로 무분별한 숙박시설과 별장 건설 붐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르데냐는 공간과 지

17) 영어로 Sardinia Tourism Authority, 사르데냐 관광청을 뜻한다.

18) 포르토 세르보(Porto Cervo)는 영어로 사슴 항구 (Deer's Port)라고 말해지는 사르데냐 북쪽에 있는 해안 리조트이다. Karim Aga Khan 왕자와 다양한 투자자들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는데, 포르토 세르보는 스메랄다 해안의 중심이다. 포르토 세르보의 거주 인구는 420명인데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리조트 중의 하나가 있고, 비싼 요트들의 정박지이며 백만장자들의 놀이터이다. 유럽의 럭셔리 부동산 정보지에 따르면 포르토 세르보에 있는 로마찌노 해안(Romazzino Bay)은 유럽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지역으로 간주된다. 2011년 코스타 스메랄다 해안에는 세계에서 2번째, 4번째, 6번째로 비싼 호텔이 있다(Wikipedia, 2017).

역발전에 대한 계획과 정책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림 11] 사르데냐의 해안 하이킹 및 산책 지도(Climb-europe, 2017)

1990년대 이후로 다양한 지역 행정들이 해안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기 시작하면서 지역 구획 계획(Piano Paesistico Regionale; Regional Territorial Plan)이 승인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첫 번째로 만들어진 행정 규제 정책인데, 해안선을 변형시키는 개발을 강하게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정책들이다(RAS, 2006). 그러나 이 계획은 원안대로 이행될 수 없었고, 점차 후퇴하다가 현재는 수정되었다. 카루치(Carrucci) 교수¹⁹⁾는 실제로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고 구옥을 계속 고쳐서 복원하고 유지하는 것

19) 2017년 6월 16일, 칼리아리대학교 부총장이자 국제교류협력 담당인 Alessandra Carrucci 교수와의 면담 내용.

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마을 환경과 경관을 해치지 않고 건축, 도시 재생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과제도 함께 해결해야하니 여러 이해집단들의 갈등을 조정해야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카루치 교수는 현재 해변을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해변에서 300m 이내에는 새로운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설명했다. 기아(Chia)에서 7년째 시장을 하고 있는 마리아 콘체타 시장²⁰⁾은 2004년 레지오네(지방정부) 자치법은 해안가로부터 300미터 떨어진 곳에서만 건물을 짓게 했지만, 지금은 500미터로 그 기준을 강화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해변에 카페나 바를 짓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사르데냐 레지오네 자치법을 이탈리아 중앙정부의 법보다 더 강한 규정으로 만들어서 실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해변에 지어져 있는 해변 숙박시설은 이 법이 적용되기 전에 지은 건축물이라고 했다.

관광객 숫자도 계속 늘어났는데, 매 10년마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1960년대에는 백만 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 1970년대에 2백만 명, 1980년대에 4백만 명, 1990년대에 거의 7백만 명이 되었고, 21세기 초에 천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마르코 세키 담당관²¹⁾은 면담에서 관광객이 현재 1,200만 명 정도인데,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광객의 수는 공식적인 숫자인데, 관광객 4명 중 3명이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르데냐의 관광객 수는 4,000만 명 이하로 보면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Iorio, 2016: 234).

3. 해안/해변과 별장 중심 계절성 관광의 특성과 한계

사르데냐 지역 관광산업의 가장 큰 강점은 아름다운 바다와 해변이 있다는 것이다. 사르데냐는 약 1,800km에 달하는 천혜의 해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이상적인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왔다. 특히 여름휴가를 바다에서 찾는 이탈리아 관광 시장은 사르데냐를 해변 중심의 여름 관광지로 부각시켰다. 사르데냐는 지중해의 보석이라고 알려져 왔고 많은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 특히 바다 때문에 사르데냐에 가고 싶어 한다. 사르데냐의 물의 청정도는 세계 15위로 사르데냐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바로

20) 2017년 6월 17일, 기아(Chia)의 마리아 콘체타 시장과의 면담 내용.

21) 2017년 6월 15일, 사르데냐 대외협력 담당관 Marco Sechi와의 면담 내용.

바다이다.

바다-해안 중심의 사르데냐 관광은 특히 해안 지역에 집중된 숙박시설의 분포에 의해 조건 지어진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관광 숙박시설의 대부분이 북동, 북서, 남동 그리고 남서의 해안선을 따라서 해안 자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들이 바로 바다의 배편과 비행기를 통해 사르데냐로 들어오는 입구이다.

2012년 자료에 따르면, 인가된 관광 숙박시설은 4,104개이고, 객실 수는 204,571개이다. 관광 숙박시설의 77.8%가 호텔이며 그 중 3성급 호텔이 45%, 4성급과 그 이상의 고급호텔이 30%이다. 기타의 숙박시설로는 게스트 하우스(bed and breakfast)가 62.7%이고, 농가민박(agro-tourism)이 20%이다. 관광객의 공간적인 분포는 다음의 표에 잘 나타나 있다.

<표 7> 2012년도 유형별 관광 숙박

숙박 유형	수	전체 숙박에서의 비율(%)
5성급 호텔	25	2.7
4성급 호텔	248	27.2
3성급 호텔	412	45.1
2성급 호텔	97	10.6
1성급 호텔	46	5.0
아파트 호텔 및 콤플렉스	85	9.3
총계	913	100
캠핑장 및 휴양촌	90	2.8
아파트/가정집	426	13.4
농가민박	639	20.0
유스호스텔	12	0.4
사회 관광 숙박	18	0.6
기타 관광 숙박	4	0.1
게스트하우스	2,002	62.7
총계	3,191	100

(RAS, 2014; Iorio, 2016에서 재인용)

가장 많은 객실을 갖고 있는 지역은 올비아-템피오(Olbia-Tempio)인데, 사르데냐 전체 숙박시설과 객실의 1/3 정도가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고급 호텔이 가장 많은 곳이다. 4성급 이상 고급호텔의 42%가 올비아-템피오에 있고, 그 다음이 주 정부가 있는 칼리아리(Cagliari)와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중심지였던 사싸리(Sassari)에 있다. 이 세 곳은 사르데냐 관광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사르데냐에 있는 3개의 공항이 올비아, 칼리아리, 알게로에 소재해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유명한 관광명소인 코스타 스메랄다, 리비에라 델 코랄로, 빌라시미우스(Villasiminus)와 풀라(Pula)가 있는 곳이다.

2012년에 관광객은 대략 2,120만 명 정도로 기록되고 있고, 평균 사르데냐에 머문 기간은 약 5일이다. 관광객의 대부분이 올비아-템피오, 칼리아리, 사싸리 3개 지역에 집중되어 머무는데 그 중 내국인이 59%이고, 외국인 관광객이 41%이다. 최근 칼리아리 공항에 저가 항공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적을 보면 독일, 프랑스, 스위스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뒤를 이어 영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러시아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를 차지한다. 최근에는 스페인과 러시아에서 오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Iorio, 2016).

<표 8> 2012년도 지역별 호텔 및 다른 시설별 관광 숙박

주	호텔		다른 숙박시설		총계 (단위: 개)	
	시설	침상	시설	침상	시설	침상
싸싸리	117	15,110	790	14,975	907	30,085
누오로	102	10,089	337	9,139	439	19,228
칼리아리	186	24,838	602	15,637	788	40,475
오리스타노	61	3,845	460	9,130	521	12,975
올비아-템피오	290	43,248	511	35,639	801	78,887
오그리아스트라	65	5,870	142	8,099	207	13,969
메디오 캄피다노	32	1,215	115	1,413	147	2,628
카르보니아	60	3,049	234	3,275	294	6,324

이그레시아스						
총계	913	107,264	3,191	97,307	4,104	204,571

(RAS, 2014; Monica Iorio, 2016에서 재인용)

사르데냐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83%가 6월~9월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8월이 가장 성수기인데, 전체의 28%가 8월에 방문한다. 국내 관광객들이 8월에 많이 오고, 외국인도 7월이 성수기이다. 이것은 각 나라의 여름휴가의 시작과 끝이 언제인지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점차 관광과 관련한 계절적 요인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사르데냐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바다와 해변을 중심으로 관광을 소비하고 있고, 계절적으로 여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한 비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름 한 시즌을 목표로 하여 운영되는 많은 숙박시설의 문제가 있다. 또한 바다와 해변을 벗어난 대안적인 관광 상품 개발이나 기반시설의 정비도 약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2014년 사르데냐의 경제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해안 및 여름 계절 중심의 관광산업은 기존의 숙박 시설의 활용도를 낮추고 단지 일 년에 몇 개월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관광산업 자원 또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사르데냐와 내륙과의 경제적 연관성도 낮아 중요한 마이너스적인 환경적, 경제적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숙박시설의 점유율은 1월에는 2.7%, 8월에는 최대 64.2%이고, 1년 평균이 26%로 이탈리아 전국 평균인 3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CRENoS, 2014; Iorio(2016:226)에서 재인용).

해안 지역 중심 그리고 여름 계절에 집중되는 관광산업은 노동시장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공급 부문에서도 비효율적인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관광산업 내부의 고용 불안정성과 계절에 따른 관광수요의 급격한 감소는 서비스 부분의 질적 향상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자산, 서비스 그리고 산업의 다른 요소와 관련하여 사르데냐의 섬 관광자원에 대한 매력을 강화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이다(RAS 2007). 모디카 교수²²⁾는 면담에서 성수기 시즌과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관광 특성으로 인해 환경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했다. 사르데냐의 한 동네에 7,000명의 주민이 사는데, 5만 명의 관광객이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방문하면서 쓰레기, 물 문제 등 다양한

22) 2017년 6월 16일, 칼리아리대학교 경제학과 Patrizia Modica 교수와의 면담 내용.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분리수거로 쓰레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관광객을 위한 의료시스템과 응급처치 시스템 등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7, 8월에만 오는 게 아니라 성수기를 좀 더 늘려서 1년 내내 관광객이 꾸준히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주 정부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산을 하거나 축제에 참가하는 등 성수기인 7~8월에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성수기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문제는 이번 사르데냐 현지조사 시 면담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주요한 문제로 느끼고 있었다. 카루치 교수²³⁾ 역시 현재 칼리아리에서 가장 큰 문제를 쓰레기 문제로 손꼽았다. 예를 들어 마을에 1,000명의 주민이 있는데 성수기에 관광객 2만 명이 왔다 갈 경우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는 지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사르데냐가 다른 이탈리아 지역에 비해서 쓰레기 문제나 재활용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수기에 관광객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처리는 사르데냐 전체의 큰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는 쓰레기를 집 앞에 두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사르데냐는 휴일에 이용하는 세컨드 홈으로서의 별장(holiday house)이 많은 지역이다. 그런데 이러한 휴일 별장의 유행 역시 환경적인 차원에서 또 경제적인 차원에서 지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증가시키고 있다. 별장은 인가된 숙박업소에 적용되는 규제와 다른 통제들을 피하면서 지역 숙박 서비스의 적절하고 올바른 구조화를 방해한다. 별장의 난립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피하기 때문에 경관의 저하를 비롯해 주 정부가 요구하는 관광 상품으로서 건물에 요청할 수 있는 공간의 질을 떨어뜨리고, 주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물 공급과 치료시설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교통 기반시설, 쓰레기 증가와 기존 주민들과의 갈등을 발생시킨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등급화 된 숙박시설은 다른 숙박업소 및 인가되지 않은 숙박시설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수요의 변화에 민감하게 되고 최소한의 대응을 위한 노력을 피하는 동시에 변화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사실상 인가되지 않은 별장들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채,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인가되지 않은 별장들의 비공식적 영업이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의 이용도가 낮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비수기 때에도 숙박의 수요를 담당해주고 있다는 것이 지역단위에서 보고되

23) 2017년 6월 16일, 칼리아리대학교 부총장이자 국제교류협력 담당인 Alessandra Carucci 교수와의 면담 내용.

어 확인된다고 했다. 칼리아리 대학의 모디카 교수는 현재 사르데냐에서 세컨드 하우스 정책은 장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새 건물을 건설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르데냐 관광산업 체계의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관광산업 부문들 간의 낮은 통합이다. 협소한 의미에서 숙박과 음식 공급업체 및 관광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생산부문들, 예를 들어 농산물 산업과 공예 산업 간의 통합이 전혀 조정되거나 기획되지 않고 있다. 물론 관광산업 내부의 통합이나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관광산업 내 자원이나 부문들 간의 협력 부재라기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관광자원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없는 사르데냐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관광산업 내부에서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체계가 없다. 현재 성업하고 있는 숙박업소나 음식공급 업체에서 요구하는 일관된 양적, 질적 수준의 관광 자원을 사르데냐의 전통적인 관광 자원 생산체계에서는 공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숙박업소와 음식 공급업체들은 자신들의 생산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와 서비스 전문가들을 사르데냐 외부에서 찾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탈리아 내부에서 오는 내국인보다 더 강한 소비능력을 갖고 있고, 현지 생산물을 선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 요구들을 더 확대 창출할 수 있는 견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국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는 유럽의 다른 관광지들과 비교했을 때 외국인들이 사르데냐에서 쓰는 관광비용이 적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4. 다양한 관광산업으로의 변화 모색

1) 지역과 계절의 한계를 넘어서는 농촌관광(Agro-tourism)

최근에 사르데냐의 관광 상품들이 점차 다양화되고, 변화하고 있다. 자연자원인 태양, 바다, 모래를 상품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촌의 삶, 고고학적 유적, 문화, 음식, 자연적인 삶, 스포츠 및 이벤트와 같은 것들이 중요한 관광개발의 근간이 되고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이러한 새로운 상품들이 해안과 해변 중심 사르데냐 관광의 흐름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방향으로 관광산업

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루치 교수는 면담에서 해변을 위주로 개발된 사르데냐의 관광정책이 이제는 어떻게 내륙지방을 관광산업으로 포섭하여 사르데냐 전역으로 관광을 확대하고 활성화 시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학자들과 지역관광 전문가들은 사르데냐가 지중해의 다른 관광지들과의 커져가는 경쟁 및 불안정해지는 국제 경제의 국면에서 관광 목적지로서의 도전은 관광 상품의 질 향상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이는 사르데냐만이 아니다. 지중해 지역의 관광 경쟁력은 관광 목적지가 얼마나 자신의 지역성을 드러내 줄 수 있는가, 독특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더 체계적이고 통합된 관리를 목표로 하는 관광 지역 정책이 얼마나 최신화 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설명한다.(Patrizia and Barbara, 2017)²⁴⁾ 사르데냐 지역행정의 공식적인 웹사이트 관광 섹션에는 다양한 관광 상품들이 홍보되고 있는데, 스포츠, 음식, 문화, 전통, 마을, 바다, 자연과 웰빙 같은 것들이 있다.(Sardegna turismo, 2017)

대안적인 관광자원으로 부각되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농업관광(Agro-tourism)이다. 농업관광은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부문이다. 여름에 국한되었던 관광 계절을 확대시키고, 해변 중심의 사르데냐 관광산업을 사르데냐의 내륙지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관광산업인 것이다. 더욱이 농업관광 부문은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농가 숙소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1987년에 57개였던 농가 숙소가 1996년에는 346개, 2007년에는 681개, 2013년에는 827개로 증가했다. 지역적인 분포도 증가해서 337개 자치지역 중 247개 지역에서 최소 한 개 이상의 농가 숙소가 분포되어 있다.(RAS, 2014; Iorio, 2016:227에서 재인용) 그러나 농가 숙소도 여전히 사르데냐 북쪽(올비아-템피오, 누오로와 사싸리)에 많이 분포하고 낙후된 중남부 지역에는 농가 숙소도 많지 않다. 중남부 지역 전체 농가 숙소는 13.7% 정도이다. 51%의 농가 숙소가 해안지역에 있고 내부 자치지역에는 전체의 49%의 농가 숙소가 있는데, 이 내부지역 역시 관광객들의 주요 노선들과 연관되어 있는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농가 숙소 역시 기존 관광객들의 흐름과

24)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공통의 비교 가능한 접근법을 사용하여 관광목적지가 지속 가능한 관광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3년 유럽관광지표시스템(이하 ETIS)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ETIS는 관광목적지를 위한 세부적인 관리, 정보, 모니터링 도구이며 자발적인 관리 도구로서 관광목적지가 ETIS의 핵심 지표를 통해 효과적으로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고 관광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이를 통해 EU에서는 여행목적지들이 더욱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ETIS는 본 보고서의 말미에 <부록 1>로 첨부되어 있다.

연관되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안지역은 아니지만 누오로(Nuoro)에서 농가 숙소가 95개가 있는 것은 흥미로운 점인데, 이는 누오로 지역이²⁵⁾ 가지고 있는 특징과 연관되어 있다. 누오로 지역은 머물거나 경관을 향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문화적인 자원과 인근 지역에 있는 박물관들이 특징적이다. 특히 중앙정부에 대립하면서 마을 벽에 저항의 표현 수단으로 그렸던 벽화가 남아있는 오르고솔로(Orgosolo) 지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농가 숙소의 60%가 숙소와 함께 식당과 음식제공 시설을 가지고 있고 22%가 식당시설만, 15%가 숙소만을 제공하고 있다. 11개(1.3%)의 숙소가 농촌캠핑 시설을 제공하고 15개(1.8%)의 숙소가 트레킹과 말 타기 활동, 지역 생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전체의 11.1%가 여러 서비스와 함께 숙소와 식당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사르데냐에서는 농가 숙소 부문이 해변중심 관광을 넘어서는 하나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농가 숙소 관광산업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다른 요소들과 함께 동반하여 발전할 때에 성공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즉, 농촌활동의 관광자원화, 자영업적인 문화훈련, 숙소의 품질 인증화, 농업 산업의 개선, 전통 미식의 창조, 문화적, 생태적인 것에 대한 이해 및 지역 자원을 연결시키고 안내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같은 것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동질의 질을 확보하는 지역관광 자원으로서 농가 숙소 기반의 관광산업은 성공이 가능하다.(Corsale et al, 2007; Iorio, 2016:229에서 재인용)

2) 역사와 문화가 통합된 질 높은 문화 관광(Cultural tourism)

문화관광은 해변과 여름에 집중되었던 관광을 벗어나는 데 필수적이다. 문화관광은 지역적 독특성과 강하게 연결되어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측면에서 지역을 광범위한 관광 상품으로 제공하는 전략이고, 관광지의 장소성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기도 하다. 최근에 관광객들은 자신이 방문하는 관광지를 경험하고 그 장소의 정체성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데 많은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문화관광은 현재 국제적인 하나의 경향으로 대표되고 있다.

25) 누오로(Nuoro)는 사르데냐 동쪽 중앙부에 위치해있다. 인구는 2011년에 36,347명이고, 사르데냐에서 6번째로 큰 도시이다. 유명한 예술가, 작가, 화가, 조각가들이 태어난 곳이고, 1926년에 노벨상을 받은 첫 번째 여성작가인 Grazia Deledda의 고향이다. 문화적인 것들이 많은 곳이어서 해안은 아니지만 해안만큼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그래서 많은 박물관이 있고, 인근에 오래된 돌문명인 누라게(Nuraghe) 유적지가 있다. 누라게의 돌을 보게 되면 제주를 연상시키는 것들이 있지만 유럽에서 가장 오랜 땅이란 느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인근에 벽화로 유명한 오르고솔로(Orgosolo), 안토니오 그람치(Antonio Gramsci) 생가 박물관 등이 있다.

오랫동안 천연자원 중심의 관광산업을 추진했던 사르데냐가 문화관광으로 전환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주 정부의 마르코 세끼 담당관은 최근 사르데냐에서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관광산업과 정책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화두라고 했다. 이제싼 가격으로 많은 관광객이 왔다가는 방식의 관광은 지양하고, 섬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질적 관광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최근 슬로건인 “끝이 없는 사르데냐(Endless Sardegna)”의 의미는 산이나 바다 등 하나로 만족하는 여행이 아니라, 여행이 도시의 역사와 문화의 여러 방면으로 연결되어 많은 사람들의 취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을 지향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화관광이란 관점에서 사르데냐는 방문객들에게 사르데냐의 방대한 무형 및 유형의 문화적 자원들을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문화관광산업을 조직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르데냐는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목록(World Heritage List)에 4개의 항목이 올라와 있다. 두 개는 유형문화유산이고 나머지 두 개는 무형문화유산이다. 유형문화유산으로는 바루미니(Barumini)에 있는 누라게 유적단지(Nuragic Complex)와 8개의 지역이 연계되어 있는 사르데냐의 지질학 광산공원(Geological and Mining Park of Sardinia)²⁶⁾이 있다. 누라게 유적단지는 오래된 사르데냐의 돌 문명을 볼 수 있는 유적지이고 오래된 땅으로서의 사르데냐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8,000년 전부터 사르데냐에 들어온 다양한 정착민들이 채굴했던 광산을 공원으로 지정해 지질학적, 광물채취의 역사적, 고고학적, 자연적 차원에서 의미를 탐색하고 드러내는 지질학 광산공원 역시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고고학적 유적이다. 구술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칸토 아 테노레(Canto a Tenore)라고 알려진 사르데냐 목동의 노래와 사싸리에서 열리는 촛대 축제인 ‘촛대의 가계(Descent of Candlesticks)’²⁷⁾이다. 전통 생계경제

26) 사르데냐는 국제적으로 탄광산업의 지질학적 풍부함, 광석 매장량 및 탄광으로 유명하다. 모든 지질학적 시기를 보여주는 광대하고 다양한 이질적인 광물, 암석 및 화석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광물들이 지난 8,000년간 채굴되어 왔다. 지질학, 광물 매장량과 광물들이 사르데냐의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유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사르데냐 자치주가 지질학적 광물 공원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2001년) 그 유산들을 보호하고 있다. 사르데냐는 광산업과 관련된 역사적이고 고고학적 측면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7) 매년 8월 15일 (Ferragosto; 8월 15일로 이탈리아의 국가공휴일이다. Ferragosto의 역사는 가톨릭교회에서 성모 마리아가 지상에서의 삶 후에 하늘로 승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8월 15일에 성모마리아의 상을 운반하는 기념행렬이 있다) 전날 밤에 사싸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르데냐의 여름 축제인 ‘촛대의 가계(the Descent of the Candlesticks)’를 주관한다. 이 축제는 아주 강한 종교적 색채를 띤 의례인데 사르데냐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인다. 이 축제는 1652년에 성모 마리아에게 했던 맹세로부터 유래한다. 성모 마리아가 흑사병으로부터 이 도시를 구했는데, 비록 그 시기가 더 이르긴 했지만 과사공화국에서 열렸던 비슷한 축제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피사에서 행해지던 축제를 당시 최고 행정관이 큰 촛불 형태에 밀랍을 입혀 8월 중순에 성모 마리아를 경배하는 전통으로 사싸리에 가져왔다. 당시 사싸리는 피사공화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촛대의 가계 축제는 춤추는 행렬로 구성되는데, 거기에 촛대(현재는 색깔이 있는 실크 리본, 꽃, 면사포로 장식되어 있는

인 목축업을 하는 목동들이 산에서 부르는 노래와 성모 마리아의 승천을 기념하는 행진 의례인 ‘쫓대의 가게’는 일종의 축제이다. 사르데냐에는 다양하고 방대한 문화유산들이 주로 종교적인 기념이나 축제, 민속 및 광산 산업의 유산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적 풍습이나 관습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해 일반인들이 공유하고 기념하는 자원이 되고 있지 못하다. 칼리아리 대학의 카보니 교수²⁸⁾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인 몬테 데필로를 포함하여 사르데냐에는 3개의 국립공원이 있고 7개의 해변은 해수욕을 하지 못하는 보전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문과 관련된 관광 상품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주로 박물관과 고고학적 유적지와 관련하여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박물관 방문객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Iorio, 2007; Iorio, 2016:229에서 재인용).

2011년에 사르데냐의 문화유산관광 자원은 225개에 달한다. 그 숫자는 이탈리아 전국의 5%이고, 남부 이탈리아에 있는 문화유산자원 중 20%에 해당한다. 민속학적, 인류학적, 고고학적 박물관이 많은 반면 과학 및 자연과 관련된 현대 전시관이나 예술전시관은 매우 적다. 기존의 유산들을 전시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방식으로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문화자원으로 발굴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이다.

문화관광 자원의 지역적인 분포를 보면 칼리아리와 사썬리에 많다. 특히 문화적인 유산들은 비해안 지역에 많은데, 전체의 60%가 비해안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을 찾은 1,600만 명 중 58%가 해안 자치지역에 있는 문화유산 장소를 방문했다. 문화유산 방문객들의 흐름을 보면 주 관광지인 해안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여전히 고고학 유적지 방문이 해변이나 해안으로 온 휴가경험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관광객들이 실제로 교통이 편리하지 않거나, 인기 있는 여행지들과 관련되지 않은 문화유적지를 방문한다는 것이 어려운 현실임을 알 수 있다. 카보니 교수에 따르면 현재 내륙지방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관광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르데냐 내륙지방을 걸을 수 있는 400km 정도의 길을 만들었고, 전동 자전거를 타고 산을 타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졌다. 또한 5일 간 해변의 80km를 걷는 길도 만들었고, 사르데냐 서쪽에서 동쪽으로 120km 걷는 길도 만들었다. 현재 옛날 기차를 복원하여 사르데냐 중앙 지역으로 올라

큰 나무로 된 오벨리스크인 ‘쫓대’)를 자원자들이 어깨에 메고 타운을 가로질러 카스텔로 광장(Piazza Castello)에서 산타마리아 드 베크렘(Santa Maria de Betlem) 교회까지 운반한다. 이 축제는 2013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제 목록에 포함되었다. 사썬리 사람들은 이것을 ‘큰 파티’(la festha manna)라고 부른다.

28) 2017년 6월 16일, 칼리아리대학교 약학과 Pierluigi Caboni 교수와의 면담 내용.

가는 방식도 개발 중이다.

문화관광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관광산업 전문가들과 문화정책가 또는 행정가들이 문화관광 자원을 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 보상으로 서비스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화관광은 운영이나 관리, 효과에 대한 계획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는 부문이다.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화관광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많다는 지적(Iorio, 2007; Iorio, 2016:232에서 재인용)은 박물관이나 고고학적 현장을 관리하는 체계를 검토해 볼 때 왜 방문객들이 적은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준다. 적절히 훈련되지 않은 인력, 자격이 없는 인력, 방문객의 특성이나 요구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인력, 문화관광 서비스에 대한 작업이나 창조성이 결여된 인력이 문화관광 업무를 담당하고 책임질 때 문화관광 방문객들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물관이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관광과 관련한 서점, 부대상품, 기념품, 음식과 같은 부가적 발전 및 문화유산과 환경의 상호작용, 경제적 현실과 시민사회 간의 수평적, 수직적 관계에 대한 고려 역시 중요하다.

3) 지역고유성과 건강이 담긴 음식관광(Food tourism)

관광서비스 소비에서 먹거리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2012년 기준 식음료 분야를 보면 OECD 평균 17%이다. 스페인의 바로셀로나 같은 경우는 음식분야가 관광 지출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⁹⁾.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국내 관광객의 하루 평균 지출액은 55유로이지만, 와인 관광객의 지출은 하루 평균 200유로이다(OECD, 2012). 관광에서 음식에 지출하는 비용은 직접적으로 로컬 비즈니스에 연결되며, 특히 농촌 및 변두리 지역의 발전에 기여한다. 로컬 음식의 관광 상품화는 새로운 큰 투자 없이 특별한 발전의 요인이 없는 지역에서도 농촌경제를 다각화시키는 차원에서 가능하다. 예를 들면, 대규모 식품축제나 각종 식품 관련 행사에서 농업인 생산자들이 직접 참가하여 식품의 생산과정과 특징을 설명하고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일반방문자 뿐만 아니라 미식가들도 이런 행사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비교하고 평가하게 된다. 미식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은 음

29) 스페인 바로셀로나의 경우, 관광 지출의 30%이상이 음식분야로 조사 된다(2001).

식을 관광산업의 한 부분으로 통합시키기 위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인 접근과 많은 노력을 쏟았다(OECD, 2012).

음식은 관광객들이 지역의 여러 문화관광 자원들 가운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다. 미식 경험은 관광객들에게 지역 문화와 경치, 음식 사이를 연결시켜 주며 관광의 가치를 더해줌으로써 관광객들에게 기억할만한 관광경험의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Hjalager and Richards, 2002). 즉, 음식이 지역/장소의 문화적 정체성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음식의 식자재 생산과 음식 소비는 직접 지역의 경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음식관광은 지역에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의 소비와 더불어 장소의 소비 및 생산과 연결되도록 한다 (서용석, 2009; 조혜정, 2011). 최근 들어 음식의 메뉴뿐만 아니라 식재료를 얻는 방식, 조리법, 식사법 등 음식문화 전반을 하나의 패키지로 상품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프랑스, 멕시코, 지중해의 미식 문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선정되는 등 음식과 문화를 결합한 음식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음식관광(Food Tourism)을 정의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³⁰⁾ 음식관광은 지역의 전통이나 문화 등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로컬 푸드를 기반으로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음식자원이 융합될 때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로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독특한 로컬 푸드의 고품질 식사는 관광지의 지역 정체성과 고유성(authenticity)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고, 다른 지역과의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하면서 관광 발전의 지속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 (조혜정 2011; Di Mauro, Vanni, Trampetti, Raschi, & Cinelli-Colombini, 2011; Angelo and Giacomo, 2013). 따라서 음식관광은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수 있는 중요한 관광수입의 원천이며,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영역이다.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는 음식관광의 성공 요인을 일곱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세 부요인인 지역, 상품, 문화유산, 지속가능성, 질, 커뮤니케이션, 협력으로 구분된다 (정명희 외, 2013).

음식관광을 하는 관광객들이 음식을 선택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계기들이 관련된다. 특히 사르데냐는 세계적인 관광산업의 블루존으로 분류되어 장수 음식의 관광 목적지가 되고 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일본 오키나와, 코스타리카 니코야반도, 그리스 이카리아섬 4개 지역은 세계적인 장수 지역으로 블루존으로 불리는데, 블루존 관광은 이미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의 주목을 받고

30) <부록 3>에 음식관광 정의 방식에 대한 표가 첨부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부록 3>을 참고 바란다.

있다 (Buettner D., 2015). 특히 블루존 지역으로의 관광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령층에게 '성공적으로 늙어가기'라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고령층 관광객들은 블루존 관광을 통해 장수의 요소 중 하나인 지역에서 생산되고 영양가가 높으며 집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건강한 신체적 활동의 실천으로서 소비한다.

사르데냐 섬의 지중해 식단이 장수에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발효 빵(사워 도우 빵)이 당뇨 발병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Maioli M, Pes GM, Sanna M, et al., 2008). 와인은 심혈관 질환과 암을 예방하게 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준다고 밝혀졌다(Corder R, Mullen W, Khan NQ, et al., 2006). 안토니오 피가 교수³¹⁾는 여름에 해수욕장 주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들은 사르데냐의 빵, 오일, 와인 등을 먹고, 이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사르데냐 음식을 찾기도 하지만 그 수요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했다. 사르데냐의 오랜 음식들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관광 자원이 되고 있지만 이를 고령층 관광 시장의 발전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령층들의 관광 실태와 욕구를 본격적으로 탐구해본다면 전통적인 음식 생산의 잠재적 성장을 하게 만들어 '지속가능한 관광'의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장수 음식 관광은 기존의 관광방식을 재구조화하고 식자재 생산과 관련된 생태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장수 음식관광은 지역적, 국가적 관광정책의 전략이 될 수 있다 (Gianni Pes and Michel Poulain, 2015).

사실 사르데냐의 장수음식은 사르데냐인들의 역사와 문화가 재현된 일상적 밥상이다. 안토니오 피가 교수와의 면담에 따르면 사르데냐인들은 산이 많아 교통이 불편하여 자급자족해야만 했고 여기서 찢득하고 거친 밀인 두라노 듀럼밀로 만든 빵을 먹었다. 산간마을의 사람들과 오랜 시간 이동생활을 하는 목동들은 몇 달간 보관이 용이한 얇은 빵인 '카라사우(Carasau)'를 주식으로 먹었다³²⁾. 그리고 또한 사르데냐인들은 산에서 풀을 먹고 자란 양고기와 양젖으로 만든 치즈인 페코리노를 먹는다. 이탈리아 페코리노의 90%가 사르데냐에서 생산되고 50% 이상은 수출을 한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양유의 80%가 사르데냐에서 생산이 되는데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한다. 바닷가 지역에서

31) 2017년 6월 20일 사쓰리 대학교 농과대 Antonio Piga 교수와의 면담

32) 사르데냐 목동들의 오랜 외지 생활을 위한 식품으로 오랜 저장을 위하여 물과 밀가루를 사용하여 얇고 바삭 하게 만들었다. 사르데냐는 두라노 듀럼밀 생산으로 유명하다. 로마 제국 시대에 밀을 생산해서 로마로 보내었다. 찢득하고 거친 밀이다. 사르데냐의 해변가쪽으로 식민지역이 많았고 이 지역에서는 로마로 밀을 보내야했다. 내륙 지역은 로마에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밀을 로마로 보내지 않았다. 지금은 옛날만큼 밀 생산을 하지는 않지만 현재 7만 킬로를 생산하고 있다. 이 밀은 부드러운 빵을 만드는 밀이 아니다. 사르데냐에는 70가지 종류의 빵 종류가 있는데, 모두 이 밀로 만든다.

는 전통음식인 메디테라노(Inslata di Mar del Medi-terraneo)를 먹는다³³⁾. 적포도주와 올리브도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영국의 퀸즈메리대학의 코더(Corder)박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적포도주를 규칙적으로 마시면 포도주의 폴리페놀 성분으로 인해 심장병 발병이 줄고 사망률도 낮아진다고 발표했다. 그는 적포도주 중에서도 사르데냐에서 생산되는 카노나우(cannonau) 품종의 포도주가 폴리페놀 성분이 평균보다 5~10배나 높다고 밝혔다(Corder R, Mullen W, Khan NQ, et al., 2006). 그러나 피가 교수는 자신은 음식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장수가 음식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실 사르데냐의 어떤 동네에서는 제일 젊은 사람이 92살인데, 그 동네는 가장 못사는 동네여서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 음식을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자신은 지역의 환경이나 삶의 환경이 장수와 더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고 했다. 옛날 사람들은 조금 먹고 일을 많이 했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음식을 해먹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 삶의 방식은 현대의 삶과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피가 교수는 사실 사르데냐의 식량 자립도가 아주 낮다고 했다. 야채와 과일의 80%가 외부에서 수입되고 있고, 와인이나 치즈 역시 내부 소비를 위해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향토음식이 관광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식자재의 자립도가 25% 정도인 제주와도 비슷한 상황이다. 음식관광이 지속가능한 관광 상품이 되기 위해서 사르데냐뿐만 아니라 제주도 함께 식량 자립의 문제를 풀어야한다..

한편 건강하면서도 전통 식문화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슬로우 푸드’ 또한 음식관광의 주요한 상품이다. 국제슬로우푸드 협회는 전 세계 ‘맛의 방주(Tasted of Ark)’ 목록을 통해 소멸위기에 처한 소규모의 좋은 먹을거리를 발굴하고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일반인들에게 먹을거리의 맛을 재발견하고 널리 알리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맛의 방주 목록은 전체 797개인데, 이 중 사르데냐 맛의 방주는 32가지이다.³⁴⁾ 한국의 경우 총 60개 품목이 맛의 방주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제주는 16

33) 해산물과 야채를 섞어 만든 음식으로 섬의 해안가에서 나오는 조개, 오징어, 문어, 새우 등 해산물을 살짝 데치고, 오이, 당근, 호박 등을 채 썰어 데쳐 해산물에 섞은 다음 올리브유에 살짝 볶다가 와인과 토마토소스를 뿌린 후 파슬리와 레몬을 첨가한 것이다.

(출처: http://www.yuhantruth.co.kr/HealthFriend/?mode=detail&HF_IDX=863&HFS_IDX=10989)

34) Cardoon Honey, Wild Lavender Honey, Rosemary Honey, Da tradurre Tardivo di San Vito(과일), Selargius Caper, Masedu Artichoke(채소류), Arbus Black Sheep, Desulo Ham, Tergu Salami(육류), Filindeu, Andarinos, Lorighittas(과스타류), Terraseo White Bean, Terraseo White Bean, Tiana Bean(콩류) Cabras Mullet Bottarga, Marceddi Arselle, Merca, Pesci Affumau(어류), Ozieri Copuleta, Ozieri Copuleta, Picchirittus, Pistoccus de Nuxi(디저트류), Axrida Cheese, Casu Axedu, Casu in Filixi, Casu Marzu, Gioddu, Ozieri Greviera Cheese, Perette di Pattada, Ricotta Mustia(치즈류), Lentisco Oil, Moddizzosu Bread, Pillu Bread(빵)
(출처: 국제슬로우푸드 협회 홈페이지)

가지³⁵⁾가 등록되어 있다(국제슬로푸드협회, 2017). 제주는 한국 맛의 방주 목록에서 최다 등재된 지역이다. 사르데냐가 전통 음식을 장수와 연결시켜 음식관광의 주요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듯이 제주 또한 제주의 음식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은 물론 관광의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지역 고유의 외식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상호 참조와 협력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5. 사르데냐 관광의 최근 경향: 생태와 지속가능한 관광

2008년 경제 침체 이후 관광객들이 사르데냐 섬에 머무르는 날짜가 감소했다. 그런데 문제는 관광객들의 구성 요소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를 통해 사르데냐에 들어오는 승객들이 감소한 반면, 비행기로 사르데냐에 도착하는 관광객이 늘어났다. 2010년부터 비행기로 도착하는 수가 배를 타고 들어오는 수를 추월했다. 4성급 이상 되는 호텔에 투숙하는 상류층 관광객의 숫자는 변화가 없다. 고급호텔 관광객들은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최근 사르데냐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호텔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부분적이라는 것이다. 모든 숙박업소들이 지방당국에서 요구하는 통계를 제출하지 않는다. 특히 올비아, 템피오, 사싸리, 누오로 지역이 그러하다(Renoldi, 2012a; Iorio, 2016:235에서 재인용). 호텔산업과 관련하여 자료가 없는 지하경제가 76%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4명의 관광객 중 1명만이 공식적으로 등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앞에서 말한 관광객의 실질 숫자가 4천만 명에 이른다는 계산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르데냐를 관광하고 또 사르데냐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지 방문조사 및 면담에서 만난 대부분의 학자 및 전문가들은 현재 사르데냐 관광산업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했다. 현재 자연보존과 지속가능성이란 틀이 가장 중요한 사르데냐 관광산업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르데냐 지방 정부의 대외협력 담당관인 마르코 세끼는 이제 사르데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해수욕을 하고 큰 빌딩을 짓는 방식의 관광산업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르데냐의 관광정책은 사르데냐를 잘 유지하

35) 푸른콩장, 흑우, 강술, 꿩, 땃쥐, 신다리, 재래감, 재래돼지, 골감주, 산물, 다금바리, 자리돔, 구역배추, 오본자기, 툇, 우뭇가사리 (출처: 위와 동일)

고 보존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다. 지중해의 섬들 역시 마르요카처럼 발전중심의 난개발 관광산업정책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사르데냐-마요르카-코르시카 등 지중해 섬들끼리 연대해서 새로운 관광산업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르코 세끼 담당관은 사르데냐는 해외 투자를 환영하지만, 그들이 사르데냐가 정한 규칙을 지키면서 개발하기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최근에 카타르의 아랍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투자자로 사르데냐를 방문하고 있고, 스메랄다 해안지역에 러시아 투자자들이 리조트를 건설하고 있다. 사르데냐 정부는 투자자들에게 사르데냐의 법과 정해진 규율에 따를 것을 안내하고 있다. 최근 자연환경 보존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존하면서 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최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르데냐에서도 개발과 자연보호 문제는 항상 긴장과 갈등 관계가 있다. 몇 년 전에는 국립공원을 만드는데 있어 목초지가 포함되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과 큰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다. 목축을 하지 못하는 문제로 지역 사회와 갈등이 있었지만 지방정부는 함께 논의하고 협상하여 현재는 국립공원 지정 문제가 해결되었다. 사브리나 교수³⁶⁾는 사르데냐가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나아졌지만 과거에는 가난한 지역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이 필요했고, 많은 군사기지의 유치 역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주요한 근거였다고 설명했다. 1950년대부터 중앙정부로 많은 지원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미군도 철수하고 알루미늄 공장도 폐쇄되었다. 지금부터 사르데냐가 독립적으로 재정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인데, 질적으로 고부가 가치 관광산업을 유치해야하는 어려운 도전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르데냐 주정부 재정의 5%가 관광산업에서 발생한다.

일레니아 교수³⁷⁾는 이제까지 발전의 맥락에서 추진되었던 관광산업과 정책은 대량의 난개발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현재 큰 문제에 봉착했다고 설명했다. 데무로 교수³⁸⁾ 역시 시칠리아의 관광시설 건설과 난개발은 관광발전에 좋지 않은 사례이고, 마요르카 역시 실패한 관광모델의 대표라고 설명했다. 일레니아 교수는 난개발을 가능하게 했던 발전모델은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데무로 교수는 사르데냐의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기회를 주기 위한 관광산업은 고대 사르데냐의 수공업, 토착적 예술 문화를 다시 현대적으로 적용해서 좀 더 고급의 수공예품, 세라믹 생산으

36) 2017년 6월 15일 칼리아리대학교 사회학과 Sabrina Perra 교수 면담내용

37) 2017년 6월 15일 칼리아리대학교 법학과 Ilenia Ruggiu 교수 면담내용

38) 2017년 6월 15일 칼리아리대학교 법학과 Gianmario Demuro 교수 면담내용

로 연결시키면서 관광산업의 여러 부문들이 서로 연관되는 좀 더 질 높은 관광 모델을 만들어낼 때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르데냐의 관광 정책은 최근에 강한 규제정책으로 나가고 있다. 카보니 교수는 자신이 있는 건물만 하더라도 에어컨을 밖에 설치하지 못하고, 모든 건물에 대한 개조와 개발은 레조네에서 지정한 법규를 따르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모디카 교수는 다른 도시와 달리 사르데냐도 사르데냐만의 정체성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이러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관광객이 오는 것도 배려해야하지만, 사르데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삶의 환경을 지키는 것 또한 관광객들이 배려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관광객 총량제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관광객 총량제 이슈는 사르데냐에서 오래도록 논의되어왔던 이슈이다. 따라서 국제연합(UN)에서 발행한 자료, 유럽연합(EU)에서 발행한 자료, 레조네에서 발행한 자료 등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통해 관광객 수를 분석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포화상태가 돼버려 관광객도 주민도 불편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아(Chia)의 마리아 콘체타 시장은 오랜 관광산업의 결과 이제 사르데냐 사람들은 지혜를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마리아 콘체타 시장은 “큰 건물을 지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지역민의 정체성을 성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전에는 대규모 시설을 지어 관광객을 유치했지만 건물주 외엔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7년간 시장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관광산업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카페와 술집으로부터 해변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리아 콘체타 시장은 “기아(Chia)에서는 해변에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한다. 해변 근처에는 기아 지역에서 설립한 샤워시설이 하나 있고, 여기서는 샴푸, 린스 등을 쓰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숙소에서 가서 샤워를 해야 한다. 샴푸, 린스를 사용한 물은 다른 곳에 재사용한다. 이를 위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7~8번을 교육한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그 안에 영수증 같은 것을 찾아내어 쓰레기를 투기한 사람을 알아내서 1,000 유로의 벌금을 물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수욕장에서는 개인영업이나 취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에 반대한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고, 법적 소송으로 까지 비화되었었다.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결국 원고 측(레지오네)이 승소하였다. 기아 시장은 “지속가능한 관광은 관광을 막는 것이 아니다. 관광객의 장기적 체류와 연중 분산을 위해 또한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 환경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라고 했다.

현재 사르데냐는 지역이나 계절에 집중되는 관광관행을 변화시키고 문화관광으로 변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관광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실천하기 위해 새롭고 실험적인 도전을 해나가고 있다.

6. 나가며

국제적 맥락에서 보면 관광목적지의 경쟁력은 자연적, 문화적 환경의 질에 강하게 달려있다(Mihalic, 2000). 사르데냐에서 제공되는 문화적, 환경적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것은 관광 상품의 질과 관련하여 표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유럽연합에 의해 권고되는 정치적인 전략이다(European Commission, 2010). 이러한 권고의 대표적인 방안이 바로 유럽관광지표시스템(The European Tourism Indicator System; ETIS)이다. ETIS는 관광의 관리체계를 표준화하여 관광 상품의 질을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제주에서 지속가능한 섬 관광을 위해 모디카 교수와 테렌지 박사가 발표한 내용이다³⁹⁾. 특히 ETIS를 통해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은 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섬 관광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개입하여 기획, 관리,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ETIS 적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거버넌스 구축과 협상, 전략을 토대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관광산업을 어떻게 재구조화하여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만들 수 있을까하는 것은 지금 현재 논의해야하고 새로운 전략이 나와야하는 시급한 사안이다. 여전히 강하게 해안지역에 의존해있는 사르데냐의 관광산업의 구조를 내륙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 해변 관광 상품을 다양화하는 강력한 추진캠페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안적인 관광 경험의 다른 형태들 즉, 농업관광이나 문화관광은 사르데냐 관광산업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강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해변관광에 이차적인 것으로 치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ETIS와 ETIS를 적용한 유럽지역의 실제 사례들은 어떻게 새로운 방식의 관광산업 모델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참조이고 준거이다(부록1, 부록2 참조)⁴⁰⁾. 기존 여행사를 매개하지 않은 채

39) Modica 교수는 지속가능 관광 산업에 대한 석사 프로그램(1년은 이탈리아어로, 1년은 영어로 운영)을 개발하여 전 세계에서 관심 있는 젊은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기를 바란다.

혼자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여 여행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 여행 일정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정보망을 이용하지 않거나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소규모 숙박업소들은 미래의 관광산업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될 것이다. 이것은 사르데냐뿐만 아니라 제주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저가 항공사들이 등장하면서 젊은이들의 여행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런 집단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또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체계 구축 등이 사르데냐와 제주 두 곳 모두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다.

40) 유럽관광지표시스템(ETIS)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구성, 활용 방안 및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말미의 <부록 1>과 <부록 2>를 참고하길 바란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정명희 외, 2013, 전라북도 음식관광 활성화방안 연구, 전북발전연구원
조혜정, 2011,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인천시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인천
발전연구원
Patrizia Modica and Barbara Terenzi, 2017, Sustainable Island Tourism:
the Experience of Sardinia, 제2회 제주학 대회 세계 섬, 해양문화와 미
래비전 자료집

<해외 문헌>

- Angelo Presenza and Giacomo Del Chiappa, 2013, Entrepreneurial
strategies in leveraging food as a tourist resource a cross regional
analysis in Italy, *Journal of Heritage Tourism*, Volume 8, pp.182-192
Bessière J, Tibere L., 2013, Traditional food and tourism: French tourist
experience and food heritage in rural spaces. *Journal of Science Food
and Agriculture*
Buettner D., 2015, The Blue Zones Solution: Eating and Living Like the
World's Healthiest People, *National Geographic Society*
Corder R, Mullen W, Khan NQ, et al, (2006) Oenology: red wine
procyanidins and vascular health, *Nature*
CRENos, 2013, *Economia della Sardegna, Ventsimo rapporto*, CUEC
Di Mauro, M., Vanni, M., Trampetti, S., Raschi, A., & Cinelli-Colombini,
D., 2011, Identity expressed by local food tradition. Paper presented
at the first European conference on wine and food tourism, Volterra
(Pisa), Italy
European Commission, 2010, *Europe, the world's No 1 tourist
destination*, COM 352 final
Gianni Pes and Michel Poulain, 2015, Health factors and diet: a tourist
attraction for seniors, Espacio Transfronterizo sobre el Envejecimiento,
At General Foundation of the University of Salamanca

- Hjalager, A. M., & Richards, G., 2002, *Tourism and gastronomy*. London: Routledge
- Mihalic, Tanja, 2000, Environmental management of a tourist destination: A factor of tourism competitiveness, *Tourism Management* 21(1)
- Monica Iorio, 2016, Tourism in Sardinia: A Potential Yet to be Achieved, *Surrounded by Water*, Cambridge Scholar Publishing, pp.220~241.
- OECD, 2012, Food and the Tourism Experience: The OECD-Korea Workshop, *OECD Studies on Tourism*, OECD Publishing
- Renoldi, Stefano, 2012, *Il sistema di offerta museale della Sardegna*, CRENoS, Note Economiche della Sardegna

<인터넷 자료>

- 국제슬로우푸드협회, 2017, <https://www.slowfood.com/> (2017년 12월 21일 최종검색)
- Climb-europe, 2017, <http://www.climb-europe.com/WalkingSardinia/Coastal-Walking-Maps-Sardinia.html> (2017년 12월 21일 최종검색)
- RAS(Regione Autonoma della Sardegna), <http://sardegnastatistiche.it/argomenti/turismo>, (2017년 12월 21일 최종검색)
- Sardegna turismo, 2017, <http://www.sardegnaturismo.it/en/Holidays> (2017년 12월 21일 최종검색)
- Wikipedia, 2017, https://en.wikipedia.org/wiki/Porto_Cervo (2017년 12월 21일 최종검색)

VI.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본 연구보고서는 제주 섬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섬들 간의 역사문화와 현실, 미래비전 등을 상호 비교 탐색하고자 제주학연구센터가 <세계섬문화 비교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한 성과물이다. 현재 제주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갈등과 문제들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비전을 모색하고자 제주와 비슷한 여건을 갖춘 세계적인 섬들로부터 비교문화적인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시도한 연구결과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팀은 섬의 정체성, 자치성, 이주, 관광, 장수, 생태,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긴장과 실천, 역동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의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르데냐의 인구 및 이주의 최근 동향과 특성을 검토한 결과, 최근 인구 안정화 경향과 함께 고령화 문제와 인구의 해안도시 집중에 따른 내륙 공동화 현상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청장년층 인구의 유출과 외국인 주민의 유입 현상이 주목되는데, 특히 외국인 주민의 증가는 섬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틈새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르데냐의 인구 및 이주 동향에 따른 정책 방향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대규모 개발과 상업화, 관광객 포화 등의 문제가 대두하고 있는 제주도에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둘째, 사르데냐의 역사 속에서 특별 자치주의 법적 지위 및 행정 재정 분권화를 연구하여 정리한 결과, 1948년부터 현재까지 이탈리아공화국의 고도의 특별자치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르데냐는 이탈리아 왕국의 주축으로 국토통일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생태환경이나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보호나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1948년 2월 헌법적 법률의 형식으로 채택된 주헌장에 의해 특별자치주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독자적인 입법권 외에 관할 영역 내에서 징수되는 부가가치세 90%, 소득세 70%, 상속증여세 50% 등 국세 일부를 배분받는 등 재정적인 자립성도 확보한다. 1990년대 「신지방자치법」, 「코무네 수장, 현 지사, 코무네 의회 및 현 의회의 직접선거법」 등 일련의 법령 제정으로 지방자치가 정비되고, 1999년 헌법적 법률 제1호 「보통주 주지사의 직접선거 및 주의 현장 자치 강화에 관한 규정」과, 2001년 헌법적 법률 제2호 「특별주 지사의 직접선거에 관한 규정」에 의한 헌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개혁이 마무리되었다.

셋째, 사르데냐의 생태 및 환경을 둘러싼 이슈들을 정리한 결과, 섬이라는 지역성은 의식주 및 생계양식, 심리적 특질을 포함하여 토착성이 구성되는 곳이고, 생태계의 보고(寶庫)이면서 동시에 언제든지 중앙정부의 정치적 통제와 ‘남용’의 가능성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사르데냐는 이탈리아 군사기지의 80퍼센트가 집중된 초고도화 된 군사복합단지로서, 천혜의 생태계와 장수의 지역이라는 이미지와 군사기지로 인한 오염과 질병 발생이라는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넷째, 사르데냐의 지속적인 관광을 위한 노력에 대해 조사하여 보았다. 1960년대 이후에 사르데냐 북쪽 해안이 고급 관광산업의 중심으로 개발되기 시작했고, 1970년대 이후 섬의 많은 해안지역에 집중적으로 무분별한 숙박 시설과 별장 건설 붐이 일기 시작했다. 1990년대가 되어서야 해안지역을 보호하고, 해안선을 변형시키는 개발을 강하게 규제하는 행정규제 정책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사르데냐 관광이 해안지역에 집중되고 또 여름에 집중되는 문제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관광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는데, 최근 농촌관광, 역사문화가 통합된 질 높은 문화관광, 지역고유성과 건강이 담긴 음식관광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사르데냐 관광정책의 가장 중요한 방향은 자연보존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조이고, 이를 위해 강한 다양한 규제정책을 입법하고 유럽관광지표시스템(The European Tourism Indicator System; ETIS) 등을 통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노력을 펴하고 있다.

2.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최근 세계적인 섬들이 겪는 내적 외적인 사회경제적, 문화적 변화 추세의 공통적이면서도 차별적인 면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정책적 대안을 상호 비교검토 함으로써 섬들이 겪는 현실과 미래비전 제시에 대한 많은 시사점이 관련 연구자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르데냐와 제주도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섬으로서 공유하는 여러 가지 특성 외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소득 수준,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 관광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두 섬은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인구 및 이주 동향에서는 사르데냐와 제주도 사이에 눈에 띄는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사르데냐와 달리 제주도는 최근 들어 전체 인구와 순유입 인구가 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변 휴양지에

휴가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사르데냐에 비해 제주도는 관광객이 시간적·공간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제주도는 경쟁적이고 불안정한 도시를 떠나 대안적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젊은 연령층이 선호하는 이주지가 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최근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대규모 투자와 과도한 상업화, 특정 지역의 관광객 포화 현상 등이 계속 진행되어 제주도가 갖고 있는 청정과 대안적 삶의 장소라는 이미지가 사라진다면 현재와 같은 인구의 지속적 유입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제주도 인구 증가 추세는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르데냐가 중앙 국가권력에 의해 생태적으로 오용된 경험과 그에 대응한 자치를 둘러싼 투쟁의 역사는 제주에서도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생태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사르데냐와 제주는 섬이라는 공통적인 문화적·생태적 특수성을 기초로 상호 참조 체계를 갖추어서 서로 연결되고 대화하며 접속의 정치를 구성해갈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상호연대를 바탕으로 생태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전 지구적 섬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능력 또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진이 현지 방문조사 및 면담에서 만난 대부분의 학자 및 전문가들은 현재 사르데냐 관광산업 정책 방향의 기준이 자연보존과 지속가능성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마르요카처럼 난개발 관광산업정책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사르데냐-마요르카-코르시카 등 지중해 섬들끼리 연대해서 새로운 관광산업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고 하였다. 주 정부 담당관은 사르데냐는 해외 투자를 환영하지만, 사르데냐가 정한 규칙에 따른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광객이 오는 것도 배려하지만, 사르데냐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삶의 환경을 지키는 것 또한 관광객들이 배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관광객 총량제 문제도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3. 제언

사르데냐와 제주도는 산, 바다, 독특한 토착 문화, 역사, 지역적 다양성 등 끝이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섬으로서, 비슷한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지역자치의 현실 경험 및 미래비전을 갖고 있다. 이런 사회문화적 속성은 사르데냐와 제주의 섬사람들이 단순히 배타적이라기보다 섬사람들의 정체성과 강한 자부심을 지켜내면서 동시에 관광객이나 타인을

배려하고 환대하는 독특한 섬 정체성, 즉, 인슐라리티(인슐래리티, Insularity, 섬사람의 기질, 섬 정체성)를 발전시켜낸 결과라고 보인다. 이런 섬사람들의 정체성은 사르데냐 산악지대 오르고솔로의 오래된 저항의 전통, 군사기지 반대 저항운동의 경험, 제주도의 민란의 전통과 4·3항쟁, 민주화운동과 군사기지 설치 반대 및 개발반대 주민운동 등에 잘 반영되어 있다. 최근 사르데냐와 제주는 이러한 저항운동의 전통을 다크투어, 피스투어로 승화시켜 관광자원화 하고 있다. 또한 두 섬 사이의 공통적인 정체성의 관점은 인구 변동의 추이, 특별자치의 구현 및 운영, 관광 유치 및 생태계 보전 정책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이미 난개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제주는 평화의 섬이라는 핵심가치와 군사기지, 청정의 섬 이미지와 배치되는 오버투어, 쓰레기 처리, 교통지옥, 제2공항 건설 등에 따른 갈등 문제 등 복잡한 현실적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사르데냐는 제주보다 면적은 13배 크고, 인구는 3배 더 많다. 면적과 인구의 차이를 넘어서서 두 섬은 생태와 토착성을 보존해 오면서도 군사적 전략지로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토착적 식문화와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에 에코파라다이스로 부상하는 사르데냐와 군 기지의 집중화로 인한 환경오염 및 인간 생명에 대한 위협 사이에서 사르데냐가 취해온 노선을 어떻게 제주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참조 자료로 삼을 수 있을지 향후 심도 있는 토론과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사르데냐와 제주의 ‘섬’이란 특수성과 보편성(인슐라리티)에 대한 더욱 깊은 이론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번 두 섬 간의 문화를 비교 연구한 결과를 밑바탕으로 다양한 토론과 논의의 방식, 해결책을 상호 모색하며, 두 섬 간 학술교류 및 정책교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아가 세계적인 섬들에 대한 비교연구로 확대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부 록 1. 유럽관광지표시스템(ETIS) 소개

다음은 2016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발간한 『The European Tourism Indicator System』 보고서를 번역 정리한 내용입니다⁴¹⁾.

1. 유럽관광지표시스템이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공통의 비교 가능한 접근법을 사용하여 관광목적지가 지속가능한 관광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3년 유럽관광지표시스템(The European Tourism Indicator System, 이하 ETIS)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ETIS는 관광목적지를 위한 세부적인 관리, 정보, 모니터링 도구이며 자발적인 관리 도구이다. 관광 목적지가 스스로 관광효과를 측정하고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해 지역이 스스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고안되었다. 모니터링 결과는 관광목적지가 스스로 자기평가, 측정, 자료 수집 및 평가를 통해 도출된다. ETIS는 달성해야 하는 최소한의 수치가 없으며 어떠한 인증서도 교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광목적지는 ETIS의 핵심 지표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고 관광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TIS는 27개의 핵심지표와 40개의 선택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의 4개 범주로 분류되어 있다.

1. 관광목적지 관리
2. 사회문화 영향
3. 경제적 가치
4. 환경 영향

지표는 2년에 한 번씩 피드백을 통해서 재개정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실제 사례에 토대한 더 현실적인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다.

41) 원문 출처: <http://ec.europa.eu/DocsRoom/documents/21749>

2. 왜 지속가능성 지표를 측정하고 관리하는가?

지역의 정책결정자들은 관광목적지의 관광을 관리하기 위해 오랫동안 관광객 숫자, 고용률, 관광만족도 평가와 같은 제한된 통계에 의존해왔다. 이러한 통계는 관광 효과에 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전달하지 못한다. 지역경제, 공동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된 폭넓은 주제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관광목적지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려줄 것이다.

3. 관광목적지는 어디인가?

ETIS의 목적은 관광목적지가 다음 내용을 정의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방문객/관광객에게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이목을 끄는 지리적 지역
- 관광 목적을 위한 장소로 시설과 생산품이 있고 쉽게 방문지로 정의 내려질 수 있는 장소나 지역
- 관광목적지로서 장려되는 장소나 지역
- 예를 들어 방문객 경제와 같은 관광 서비스를 위한 공급과 수요가 측정될 수 있는 장소나 지역
- 공공과 민간영역의 이해관계자들이 방문객 관리를 위한 주축으로 포함되는 장소나 지역

국가나 도 단위의 큰 지역은 직접적으로 관광 자원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은 이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다.

관광목적지는 관광활동의 중심점인 곳이다. 유럽연합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유럽인들은 10억 번이 넘는 관광을 했고 평균 관광비용은 334유로로 총 3,910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고용, 세수 증대, 산업성장, 환경보전 및 문화유산 보호와 연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 모든 관광객은 쓰레기를 남기고 물과 에너지를 사용하며 지역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협력적인 관광목적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4. 왜 ETIS를 실행하는가?

ETIS는 지속가능한 관광목적지 관리를 위한 공통의 방법론이다. 이는 친환경 같은 인증 시스템이 아니라 효과적인 관리 도구이다. ETIS는 안내된 도구에 따라 실행 과정의 단계를 밟으면 된다. 핵심 단계는 다중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우선순위와 역할, 책임을 정하고 협력하여 관기와 모니터링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관광의 경쟁력은 목적지의 지속가능성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의 정책과 정책결정자들이 ETIS의 주요 지표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ETIS 실행에 따른 관광 목적지의 핵심 이익은 다음과 같다.

- 정책결정을 위한 더 나은 정보 제공
- 효과적인 위기관리
- 실행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 활동의 벤치마킹
- 관광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공동체의 개선된 지원
- 방문객들의 더 나은 경험
- 이익 증대와 비용 절감
- 관광객의 가치 증대

5. ETIS 실행을 위한 7가지 단계

<1단계 : 인식제고>

관광목적지에서 지속가능성 측정을 위해 ETIS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가능한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목적지의 노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담당자는 물론 지역 당국에서도 의사소통을 위한 모든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소셜 미디어 활용은 유용하며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다.

<2단계: 목적지 프로필생성>

ETIS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통해 목적지 프로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작점이다. 양식을 채우는 것은 간단하다. 프로필을 만드는 것은 목적지를 정의 내리는데 있어 이해관계자들에게 참조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을 제공해준다 (지리적 특징, 관광 자원, 교통 및 관광객 수 등).

<3단계: 이해관계자 실무그룹형성>

이해관계자 실무그룹을 형성해야 한다. 관광산업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개입을 통해 개인과 단체를 모으는 것이다. 실무그룹을 조직하는데 있어 지역의 담당자나 국가 또는 지역의 관광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의미 있고 대표성을 가지는 충분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목적지 관리 단체나 관광당국과 민간영역의 대표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고용, 경제성장, 기획, 보호지역 및 환경에 책임이 있는 지역의 모임, 설비 제공자, 지역 행정당국도 포함되어야 한다. 실무그룹은 일반적으로 평균 15-20명으로 구성된다(더 작은 지역은 더 적은 수로 구성할 수 있다).

<4단계: 역할과 책임수립>

각 이해관계자에게 관련된 지표를 명시함으로써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다.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자료 수집에 대한 역할을 확인한다. 지역 담당자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목표, 실행방안,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5단계: 자료수집 및 기록>

목적지는 자신의 지역과 관련된 지표를 선택하고 이를 적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자료는 목적지 관광산업의 상세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부족한 자료는 설문조사나 인터뷰 및 활동들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지표의 모든 자료를 매년 수집할 필요는 없다. 실무그룹에서 몇 년 주기로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 정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 수집을 시작하는 것이다.

<6단계: 결과 분석>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계획을 정한다. 수집한 자료는 목적지 자료 양식에 맞게 모은 후 발견한 내용을 분석하고 필요한 실행 계획을 세운다. 예를 들어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거나 장애인 방문객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거나 관광지 숙소에 물을 아끼기 위한 활동이 부족하다면 지역 담당자와 이해관계자 실행그룹은 가장 우선되는 문제의 순위를 정하고 변화를 위한 실행 계획에 동의한다.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요구되는 순서에 따라 실행계획을 모아낼 수 있다.

<7단계: 지속적인 발전과 연속적인 개선>

실무그룹이 실행계획을 만든다면 전략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개선 방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실무그룹은 3년 단위의 계획을 통해 목표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표와 자료는 정기적으로 재평가되는 것이 중요하고 가능한 추가적인 보조 지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집된 자료들은 목적지의 마케팅과 의사소통 계획에 통합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전략과 정책으로 알려져야 한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관리와 더욱 지속가능한 관광목적지로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은 시스템 사용을 위한 7단계의 흐름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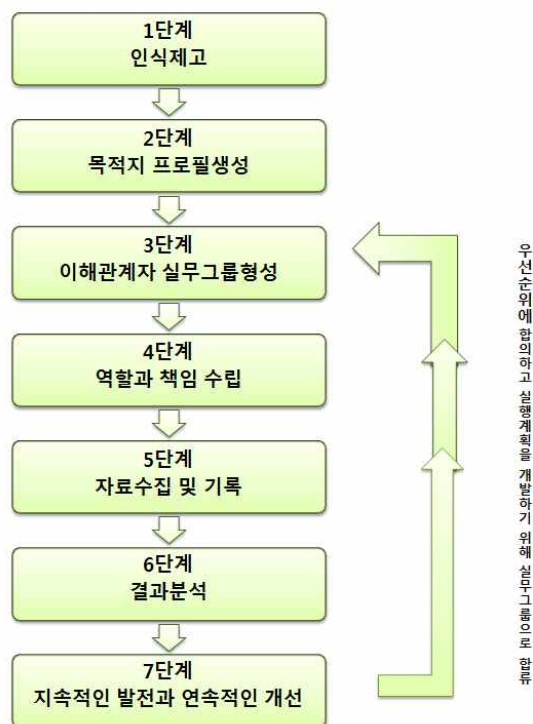


그림 16. EU 관광 지표 시스템의 절차

6. ETIS 핵심지표와 보조지표

ETIS는 관광목적지 관리, 사회문화 영향, 경제적 가치, 환경 영향이라는 4개의 영역으로 분류되며 각각에 세부 지표로 구성된다. 세부지표는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로 구성되는데 핵심지표는 관광지의 지속 가능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4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표는 영역별 ETIS의 핵심지표들이다.

A. 관광목적지 관리		
기준	지표번호	ETIS 핵심 지표
A.1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A.1.1	환경/품질/지속가능성/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입증하는 인증/라벨을 이용하는 관광 기업/사업체 비율
A.2 고객만족	A.2.1	목적지의 전반적인 경험에 대해 만족하는 관광객과 일일 방문객의 비율
	A.2.2	재방문 관광객 비율(5년 이내)

표 9. ETIS 관광목적지 관리 핵심지표

B. 경제적 가치		
기준	지표번호	ETIS 핵심 지표
B.1 목적지의 관광 흐름 (규모와 가치)	B.1.1	월별 관광객의 숙박일수
	B.1.2	월별 일일 방문객 수
	B.1.3	목적지의 경제(% GDP)에 관광의 기여도
	B.1.4	숙박 관광객의 일일 지출액
	B.1.5	일일 방문객의 일일 지출액
B.2 관광사업체 활동	B.2.1	관광객의 평균 체류일(숙박기준)

	B.2.2	월별 상업 숙박시설의 객실 점유율과 1년 평균 점유율
B.3 고용비율과 질	B.3.1	전체 고용률에서 관광 직접고용 비율
	B.3.2	계절별 관광 고용비율
B.4 관광공급 사슬	B.4.1	지역 관광사업체에 의해 공급되는 지역생산 식음료, 물품 및 서비스 비율

표 10. ETIS 경제적 가치 핵심지표

C. 사회문화 영향		
기준	지표번호	ETIS 핵심 지표
C.1 지역사회/ 사회적 영향	C.1.1	거주민 100명당 관광객/방문객 수
	C.1.2	방문객의 관광(상황)에 만족하는 거주민의 비율(월별, 계절별)
	C.1.3	거주민 100명당 상업적인 숙박시설에서 이 용 가능한 침상의 수
	C.1.4	100가구 당 별장/임대 주택의 수
C.2 건강과 안전	C.2.1	경찰에 불편을 신고한 관광객 수
C.3 성평등	C.3.1	관광부문 남성 및 여성 고용인 수
	C.3.2	관광사업체 내 여성 총지배인/부장급 직위 비율
C.4 포괄/접근성	C.4.1	상업 숙박시설 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객 실 비율
	C.4.2	접근성 개선 제도에 참여하는 상업숙박시설 의 비율

	C.4.3	장애인 및 특정요구가 있는 사람의 사용가능한 대중교통의 비율
	C.4.4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거나 가능한 접근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관광지 비율
C.5 문화유산, 지역정체성과 자산보호 및 강화	C.5.1	목적지의 정체성에 관한 관광 효과에 만족하는 거주민의 비율
	C.5.2	전통/지역 문화와 유산에 관련된 행사 비율

표 11. ETIS 사회문화 영향 핵심지표

D. 환경 영향		
기준	지표번호	ETIS 핵심 지표
D.1 교통영향 감축	D.1.1	관광객 및 일일 방문객의 교통수단별 이용률(대중교통/자동차/유형별)
	D.1.2	목적지를 둘러보기 위해 지역/이동수단/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한 관광객 및 일일 방문객의 비율
	D.1.3	관광객 및 일일 방문객의 집과 목적지 간 평균 여행 거리(km)
	D.1.4	관광객 및 일일 방문객의 집과 목적지 간 여행에서 발생한 평균 탄소 발자국
D.2 기후변화	D.2.1	기후변화 완화 계획(CO2 감축, 저에너지시스템 등) 및 적응 대응 및 실행에 참여하는 관광사업체의 비율
	D.2.2	취약지역에 위치한 관광 숙박시설 및 관광 명소의 인프라 비율
D.3 폐기물 관리	D.3.1	숙박 관광객의 쓰레기와 거주민의 1인당 쓰레기 발생률 비교(kg)

	D.3.2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관광사업체의 비율
	D.3.3	연도별 숙박 관광객의 쓰레기 재활용 비율과 거주민의 쓰레기 재활용 비율의 비교
D.4 오수처리	D.4.1	방류 전에 최소 2차 수준으로 처리되는 오수의 비율
D.5 물관리	D.5.1	숙박 관광객의 일일 물 소비량과 거주민의 일일 물 소비량 비교
	D.5.2	절수 실천에 동참하는 관광 사업체 비율
	D.5.3	재활용된 물을 사용하는 관광 사업체 비율
D.6 에너지 사용	D.6.1	숙박 관광객의 일일 에너지 소비량과 거주민의 일일 평균 에너지 소비량 비교
	D.6.2	에너지절약에 동참하는 관광사업체 비율
	D.6.3	전체 에너지 소비 대비 재생에너지의 연간 소비량(MWh)
D.7 경관 및 생물다양성 보호	D.7.1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경관보호, 보존, 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역 관광사업체의 비율

표 12. ETIS 환경 영향 핵심지표

보조 지표는 해양/해안관광, 관광접근성, 초국가적 문화루트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표는 영역별 ETIS의 보조지표들이다.

해양/해안관광
승객과 항구
- 매월 각 항구를 통해 입항 및 출항하는 승객의 수 - 레저용 보트의 정박지 수
수질

- 바닷물 100ml 당 오염 수준(분변 대장균 및 캄필로박터)
해변
- 청색기상 ⁴²⁾ 을 받은 해변의 비율(%)
- 백사장 크기와 규모
- 전체 해변의 길이(km) 대비 무료 해변의 길이(km)
- 모든 사람이 접근가능한 해변의 비율(%)
- 1년 중 오염으로 인해 해변/해수욕장을 닫는 일수

표 13. 해양/해안관광 영역 ETIS 보조지표

관광접근성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
- 목적지에 대한 접근성 높은 관광전략/실행계획, 모니터링, 개발 통제 및 평가관리 비율(%)
평등/접근성
-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객실 및/또는 접근성 개선제도에 참여하는 상업 숙박시설의 비율(%)
- 목적지는 대중이 이용 가능한 접근성 관리사무실이나 담당자가 있는가?
-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예산을 갖춘 사업체의 수(%)
교통 영향 감축
- 목적지의 접근 가능한 개별 교통수단의 비율(예를 들어 대중교통, 대절 버스, 미니버스, 택시 또는 콜택시)

표 14. 관광접근성 영역 ETIS 보조지표

42) 청색기상(Blue Flag)는 유럽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해변에 주는 상이다.

초국가적 문화루트
목적지 관리 조사
- 당신의 목적지는 유럽이사회의 인증을 받은 문화루트의 일부인가?
- 만약에 그렇다면, 문화루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있는가?
- 만약에 그렇다면, 해당 정책에 지역 사회가 참여하고 있는가?
- 목적지의 문화루트는 문화/관광 행사와 연결되어 있는가?
- 유럽이사회의 문화루트 로고가 관광 사무소나 서류에 표기되고 있는가?
- 문화루트의 테마를 강조해줄 수 있는 관광 안내직원의 비율
사업체 조사
- 당신의 사업체는 유럽이사회의 인증을 받은 문화 루트에 소재해있는가?
- 만약에 그렇다면, 사업체의 생산품이 문화루트의 테마/활동과 연결되는가?
- 만약에 그렇다면, 사업체/생산품 홍보에서 문화루트가 언급되고 있는가?
- 문화루트가 당신의 사업체/생산품을 홍보해주는가?
주민 조사
- 문화루트가 지역사회에 주는 이점
- 지역사회가 문화루트에 관해 안내받았는가?
- 문화루트 사업 내 구성된 활동에 지역사회가 개입하고 있는가?
- 관광목적지에 문화루트가 있으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 문화루트 기획, 개발에 있어 주민참여와 영향에 만족하는 주민 비율(%)
- 관광목적지에서 문화루트의 영향에 대한 주민의 긍정적/부정적 입장비율(%)
- 문화루트가 목적지의 문화유산, 지역 정체성과 특수성에 끼치는 영향
- 문화루트가 관광목적지 내 삶의 질에 끼치는 영향

- 문화루트가 관광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주민 비율(%)
- 문화루트가 목적지의 문화 및 관광에 끼치는 영향

표 15. 초국가적 문화루트 영역 ETIS 보조지표

부 록 2. 지속가능관광개발: 사르데냐 산탄티오코 사례 소개

다음은 Patrizia Modica and Luzaffer Uysal(2016), ‘Sustainability and tourism development in island territories’, 『Sustainable Island Tourism: Competitiveness and Quality of Life』 에서 번역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이탈리아 사르데냐 산탄티오코(Sant’Antioco) 소개

산탄티오코 사례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포함한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중해의 전형적인 작은 섬이다. 산탄티오코 섬은 사르데냐 섬의 남서 해안에 위치한 또 다른 섬이다. 사르데냐에서 다리로 연결되는 산탄티오코 섬은 지방정부의 관리에 따라 2개의 지방자치체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표는 산탄티오코에 대한 개요이다.

일반적인 특성	면적	약 109 km ²
	형태	거친 야생의 해안선, 들쭉날쭉한 곳과 모래 해변
	인구	대부분 토착민이 거주, 132명/km ²
	기후	지중해성 기후
	경제	1차 산업 및 서비스 산업
세부 속성	명소	매우 다양한 자연, 역사, 고고학, 문화적 명소들. 바다와 해변이 강점임
	인프라	개발 진행 단계
	접근성	다양한 접근성: 중상위 수준
	인적자원	평균 교육 수준
	물가	중저 수준
	인상	낮은 하위국가 이미지

표 16. 산탄티오코 섬의 일반적 특성

산탄티오코의 경제는 여전히 어업이 중요하며 고대 유산으로서 카리냐노

(carignano) 와인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현재 핵심적인 경제 동력은 관광이다. 그러나 약 5개월 정도만 성수기인 계절성 관광은 실업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산탄티오코는 자연 경관에 토대한 관광명소가 많다. 특히 태양과 바다가 주요한 관광매력인 동시에 유럽의 보호 지역을 비롯한 자연 경관과 역사적인 장소들이 의미 있다. 또한 연중 종교 및 비종교적 축제 같은 문화적 행사가 열린다. 교통은 도로, 기차, 항구 및 국제공항으로부터 70km 거리에 위치해있다. 숙소의 경우 호텔이 14개의 호텔이 974개의 침상을 제공하고 그 외에 다양한 숙박시설이 1,150개 이상의 침상을 제공한다. 실업률은 주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아직 산탄티오코는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탈리아 국내 및 국외의 여행 시장에서 사르데냐와 연결되어 있는 관광지로 잠재성이 확대될 것이다.

2. 지속가능관광개발: 산탄티오코 사례 분석

산탄티오코 사례는 지속가능한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어 호텔, 민박, 레스토랑, 농식품, 어업 및 교통수단과 관련한 지역 사업체와 관광 및 관련 영역에서 일하는 작은 모임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탄티오코의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것이다.

산탄티오코 사례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섬의 주요한 명소 두 곳을 방문하였고 섬의 핵심 이해관계자들과의 개별 회의, 반구조화 인터뷰 및 이해관계자 초점집단 토론을 진행하였다. 또한 지속가능관광개발을 분석하기 위해 허용변화한계(Limits of Acceptable Change, 이하 LAC)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전반적인 LAC 분석틀 내에서 세부적인 단계를 선택하여 초점집단 토론에서 활용하였다. 다음의 표는 LAC 단계를 적용한 지속가능관광개발에 대한 초점집단 토론에 대한 것이다.

선정된 LAC 단계	목적
관련 지역 및 주제 확인	개발할 것인지 보호할 것인지, 지역의 이익을 확인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회의
기회별 정의 및 설명	지역을 개발의 개별 기회에 따라 분류

물적 자원 및 사회적 조건	관광목적지 자원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요구됨
대안 기회별 배분 확인	1번과 3번 단계를 토대로 이익과 가치를 따져서 구성된 기회별 대안적 사용을 평가함
개별 대안을 위한 관리 실행 확인	개별 대안의 비용, 투자, 이점 평가
선호하는 대안 평가 및 선정	선호하는 대안 확인

표 17. LAC 단계를 적용한 지속가능관광개발에 대한 초점집단 토론

인터뷰 및 토론 결과 산탄티오코 섬 관광의 이해관계자들은 관광 흐름에서 균형이 부족하고 관광 경향 상 앞으로 침체될 리조트 지역의 관광지수명주기(Tourism Area Life Cycle; TALC) 단계에 대한 감정을 밝혔다. 참여자들은 관광 성수기가 여름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8월에 집중되어 있음에 따라 관련된 관리운영 문제들을 강조했다. 사실 이러한 특성은 사르데냐 섬 관광 흐름의 계절성과도 일관된다. 다음은 관광흐름의 균형 부족 문제에 대하여 LAC 단계에 따라 LAC 초점집단으로 초대된 업체 관계자들의 개별 정보 및 의견을 모은 내용이다.

- 서비스업 및 계절성 관광 문제와 관련되는 우선 지역
- 기회 분류: 각기 다른 자연, 사회, 관리 문제에 따른 지역/구역 (예를 들어 3개 구역: 해변, 도심, 내륙) 하나의 구역을 정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
- 물적 자원: 기반시설, 생물리학적 특성, 사회적 특성
- 다른 대안 관리
- 개별 개발 대안에 대한 비용, 투자, 이점 배분
- 선호되는 대안 선정 및 평가

LAC 단계별 토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2009년에서 2014년 동안 관광 흐름에 대한 주정부의 공식 자료를 토대로 초반 인터뷰를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운영관리 문제가 강조되었다. 섬의 방문객들은 널리 알려진 ‘3 S’ 패러다임: 태양(Sun), 모래사장(Sand), 바다(Sea)에 이끌려 왔다. 게다가 산탄티오코는 관광이 가능한 4km의 모래 해변이 있는 유일한 곳이다. 극도의 계절성과 성수기의 인구 압박은 일 년 내내 관광 공급의 질과 양에 영향을 미친다. 호텔산업의 고정된 높은 가격은 관광 시작 시기의 확대

를 어렵게 만든다. 사르데냐 주정부 및 지역정부의 강력한 해안 자원 활용 제한 또한 특징적이다. 15%의 사업체들이 개인의 사적 투자 제한을 토로했다. 다른 15%는 비수기 관광객의 증가를 위한 기존 관광 시설의 재인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모든 방면에서 전반적인 서비스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38%가 관광지 시스템의 더 나은 조정, 기획 및 개선이 필요하고, 공공 영역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LAC 단계에서는 리조트 지역과 자연, 사회 및 관리 문제와 관련된 지역을 중심으로 그룹토론이 진행되었다. 3개의 잠재적 지역으로는 해변, 도심, 내륙 지역으로 제안되었다. 참여자들의 산탄티오코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다음의 구체적인 지역들이 분류되었다. 바다, 중심 거주지, 늪과 운하, 지하도시, 지하묘지, 내륙지역. 세 개의 지역에 대한 다른 의견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해변, 해안선, 해양 및 산업 항구, 늪지대 및 관련 산업으로 구성된 다면적인 해안지구와 역사적 고고학적 이해가 있는 도심의 광대한 지역으로 모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세 번째 LAC 단계에서는 기반시설, 명소, 사업, 생물리학 및 사회적 특성에 관하여 해안 지구에 관련된 일방적인 물적 자원을 만들기 위해 사업체들이 초대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산탄티오코 지역의 전반적인 해안 지구 섬 자원을 조사하고 분류하도록 했다. 지역사회는 토착민과 다른 공동체들로 구성되는데 특히 바다와 관련된 모든 그룹-중요한 어민 공동체, 사르데냐에서 가장 개발된 집단, 시칠리아에서 온 그룹, 항구 내 군사그룹, 이탈리아 선원협회-이 포함된다. 사업체들은 사르데냐의 수호성인이자 그들의 순교자이며 성인인 안티오코에 대해 자랑스러워했다. 물고기 양식, 생선 가공품, 낚시 관광, 조선, 낚시용 바구니 및 바다가재 통발 공예 수요 및 바다 비단, 선박 건조 및 보관, 선박 판매, 포도나무 및 카리냐노 와인, 다이빙, 해양 스포츠, 항해 및 조정 학교와 같은 폭넓은 사업과 활동들은 기회로 분류되었다. 기반시설은 관광 및 산업 기반시설로서의 대형 마리나, 염전, 호텔 및 레스토랑을 포함한 모든 관광 시설, 사르데냐 수도 칼리아리의 국제공항, 수상기 기지, 바다 박물관 등으로 수치화되었다. 자연 자원의 경우 유럽연합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6개의 공동체관심지역(Sites of Community Interest)과 지정된 3개의 특별보호지구(Zones for Special Protection), 사구 시스템 보호지역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체들은 예를 들어 조개로 만드는 바다 비단과 같은 독특한 생태계 보존을 위한 해양 보호 지역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4번째와 5번째 LAC 단계에서는 그룹별로 선택된 지역에 대한 다양한 관리 대안을 제안하고 대안의 비용과 이점을 토론했다. 대안은 다음과 같다. 선박 계류지 증대, 해안가 지역 보호, 물고기 양식, 늪과 연못, 해양 스포츠 및 염전. 항구 관리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진 한 참여자가 개발 지역에 선박 계류지를 늘릴 것을 강조했다. 그는 환경에 영향을 덜 주면서도 적은 투자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부선(floating dock)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증명했다. LAC 토론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선박 계류지를 늘리는데 관심을 보였다. 다음으로 보호지역 창설을 통해 해안지구 보호가 고려되었다. 이 경우 어업을 비롯한 사업 활동이 직결되어 있으므로 어민 공동체의 반응이 중요할 수 있다. 마리아나의 경제적 관광 개발도 이점으로 고려되었는데 참여자들은 지역의 맥락에서 비용적인 면도 계산하였다. 다음으로는 물고기 양식과 늪과 연못 보호 가치도 갈등적인 이해관계로 떠올랐다. 다음으로 섬의 특징인 강한 바람을 연결해 국제적인 해양스포츠 행사가 필요하다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환경에는 적은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T자나 기반시설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어민 공동체와 스포츠 관련 업계 간의 사회적 갈등이 가능한 위기로 논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스포츠의 잠재력은 관광 흐름의 계절성을 낮춰주고 서비스 산업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염전이 논의 되었다. 사업체들은 염전이 건강과 의학적 용도로 큰 가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현재 염전은 남부의 한 이탈리아 회사가 소금 채취를 산업적으로 상업화하여 독점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염전을 새 관찰지 또는 스파, 건강센터 등을 만들어서 화장품 생산이나 지역의 의료 시설과 협력하는 방안을 잠재적인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마지막 6단계에서는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선호되는 대안을 선택하고 평가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그룹 토론의 마지막에서는 관광의 측면에서 염전 개발과 보호지역 협회가 가장 주목받는 대안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염전 개발 계획은 경제적 개발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 너무 미래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국 해안 지역 보호가 85%의 동의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결과적으로 LAC 토론과 같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참여적 접근으로서

이해관계자 회의는 다양한 개인의 이익의 민주적 구성을 위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실용적인 이해관계자 회의 조직은 지속가능한 섬 관광의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으로서 일반적인 총회를 조직하는 것 보다 LAC의 도출결과처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분리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기획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

부록 3. 음식관광의 다양한 정의방식

저자	내용
ICTA (International Culinary Tourism Association)	• 음식관광은 음식을 통해 즐거움을 찾는 것이며, 독특한 음식 이벤트, 요리학교, 식료품점 및 레스토랑과 와이너리를 모두 포함한 광범위한 것을 의미함. • 음식관광은 문화관광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하며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더라도 방문 지역에서의 독특하고 기억할만한 식도락 경험으로 정의함.
문화관광부(2006) 이소영(2007) 문화체육관광부 (2009)	• 광의의 의미 :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경험하는 음식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하며,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음식을 먹는 것, 구입하는 것, 음식 만드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관찰하거나 배우는 것 등 모든 활동 • 협의의 의미 : 관광의 주된 목적이 음식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며, 이는 음식의 주요생산지를 방문하고, 음식축제에 참여하며, 레스토랑이나 특정한 장소에서 음식을 시식하거나, 특산물 생산 지역의 특성을 체험해 보는 것으로서 음식 관련 활동이 여행의 주 동기를 제공할 경우
이수진(2010) 오재환 외(2009)	• 음식관광은 특정관심분야관광/특수목적관광(Special interest tourism: SIT)의 일종으로서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이 여행의 동기를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관광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음식관광은 음식과 관련된 주요 생산지를 방문하고, 음식축제에 참가하며, 레스토랑이나 특정한 장소에서 음식을 시식하거나, 특산물 생산 지역의 특성을 체험해 보는 것 등이 중요한 요소로서 여행의 동기를 자극하는 관광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음식관광이란 여행 중에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단지 어떠한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주방장의 음식을 맛보고자 하는 욕구가 여행의 주요동기기 되어야 함(Hall&Shaples, 2003 재인용).
서용석(2009)	• 1, 2차적 음식 생산자 및 음식축제, 음식여행과 관련된 특정 레스토랑 및 특정지역을 방문하는 것 • 음식관광객은 여행경험의 일부로서 음식을 소비하는 관광객과 흥미로운 음식이 자신의 관광활동과 심지어 관광목적지 선정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관광객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18. 음식관광의 다양한 정의 방식 (조혜정, 2011)

세계 섬문화 비교 연구 이탈리아 사르데냐 출장보고서

1. 개요

출장명	세계 섬문화 비교 연구사업 이탈리아 사르데냐 출장보고서			
필요성	○ 제주도가 과거 ‘탐라’ 독립왕국이었던, 세계의 섬들은 독립국 또는 자치주나 자치도로 존재하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지중해 섬 중 이탈리아의 사르데냐에 주목하여 제주와 사르데냐의 문화와 현실·미래비전 등 비교 탐색이 가능할 것임. ○ 세계 섬문화 비교 연구를 통해 세계의 섬들이 보여준 성공과 실패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냄으로써 지속가능한 제주섬의 미래 발전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임.			
목적	○ 제주도와 사르데냐 섬의 과거 역사 문화와 현재의 정치·사회·문화를 서로 비교 연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섬·해양문명의 지역학을 정립하고 미래비전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세계 섬문화 비교 연구를 위한 공동좌담회 및 현지답사 실시 ○ 향후 세계 섬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대한 회의			
기간	○ 2017년 6월 14일(수) ~ 2017년 6월 23일(금), 8박 10일			
장소	○ 이탈리아 사르데냐 일대			
출장자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연구책임	박찬식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센터	임승희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공동연구 (외부)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이향철	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장수현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김호정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조교
		우기동	두리트래블	대표이사

2. 일정

일 자	시 간	지 역	내 용
6월 14일 (수)	08:00-09:10	제주	제주공항 출발 → 김포공항 도착(임승희 연구원) (13일/화 14:30 출발 : 박찬식 센터장님)
	09:10-10:30	김포	김포공항 출발 → 인천국제공항 도착
	10:30-12:30	인천	인천국제공항 집결(총 6명) (17일/토 12:30 출발 : 김은실 교수님)
	12:30-18:50	로마	인천국제공항 출발 → 로마 피우미치노공항 도착
	18:50-21:50		로마 피우미치노공항 / 국내선 이동(환승)
	21:50-22:55		로마 피우미치노공항 출발 → 사르데냐 칼리아리 엘마스공항 도착 - 우기동(현지 연구원) 외 1인(공동 통역 및 가이드:현혜영) 합류
	22:55-24:00	칼리아리 (차량이동)	호텔 투숙 숙소 : 사르데냐 칼리아리 Setar Hotel ※ 부득이하게 현지 호텔 사정에 따른 숙소 변경(변경 전) Flora Hotel → (변경 후) Setar Hotel]
6월 15일 (목)	10:00-11:00	칼리아리 (차량이동)	호텔 출발 → 사르데냐 지방정부(Regione Autonoma della Sardegna) 도착
	11:00-12:00		사르데냐 지방정부 관계자와의 미팅(대외협력 담당 : Marco Sechi)
	12:00-12:30		사르데냐 지방정부 출발 → 칼리아리대학 도착
	12:30-14:00		칼리아리대학 Giovanni Coinu(법학자) 교수와의 좌담회
	14:00-15:10		중식
	15:10-15:30		중식당 출발 → 칼리아리대학 아프리카아시아연구소 도착
	15:30-18:00		칼리아리대학 Ilenia Ruggiu(인류학자)·Sanrina Perra(사회학자)·Gianmario Demuro(법학자) 교수와의 면담
	18:00-20:00		석식 및 호텔 투숙 숙소 : 사르데냐 칼리아리 Setar Hotel
6월 16일 (금)	08:00-09:00	칼리아리 (차량이동)	호텔 조식
	09:00-09:40		호텔 출발 → 칼리아리 국립고고학박물관 도착
	09:40-11:30		국립고고학박물관 방문
	11:30-12:00		국립고고학박물관 출발 → 칼리아리대학 도착
	12:00-13:30		칼리아리대학 Alessandra Carucci 부총장 외 3인 교수와의 공동 좌담회
	13:30-15:30		중식
	15:30-16:00		중식당 출발 → 칼리아리대학 도착
	16:00-19:00		칼리아리대학 Caboni(약학, 식품)·Patrizia Modica(관광)·Bacchetta(환경, 식물)교수와의 개별 면담
	19:00-21:00		석식 및 호텔 투숙 숙소 : 사르데냐 칼리아리 Setar Hotel
6월 17일 (토)	08:00-09:00	칼리아리 (차량이동)	호텔 조식
	09:00-09:30		호텔 출발 → 칼리아리 성당 도착
	09:30-10:20		장수문화 관련 연구자 Roberto Pili 면담
	10:20-11:00		칼리아리 성당 출발 → 폴라(Pula) 도착
	11:00-11:30	폴라 (차량이동)	폴라 답사
	11:30-11:50		폴라 출발 → 노라(Nora) 도착
	11:50-12:30	노라 (차량이동)	노라 답사
	12:30-13:00		노라 출발 → 기아(Chia) 도착
	13:00-14:30	기아	중식
	14:30-16:00		기아 답사
	16:00-16:40	산탄티오 코 (차량이동)	기아 출발 → 산탄티오코섬(Sant'Antioco) 도착
	16:40-18:30		산탄티오코섬 답사
	18:30-21:30	칼리아리 (차량이동)	석식 및 호텔 투숙 (김은실 교수님 합류) 숙소 : 사르데냐 칼리아리 Setar Hotel

일 자	시 간	지 역	내 용
6월 18일 (일)	08:00-09:00	칼리아리	호텔 조식
	09:00-10:30	(차량이동)	호텔 출발(호텔 체크아웃) → 메디오 캄피다노현 바루미니(Barumini) 이동
	10:30-12:30	메디오 캄피다노현	수 누락시 디 바루미니(Su Nuraxi di Barumini, 1997년 세계유산 등재) 답사
	12:30-14:30	(차량이동)	중식
	14:30-15:30	오리스타노현	바루미니 출발 → 오리스타노현 길라르자(Ghilarza) 도착
	15:30-17:00	(차량이동)	안토니오 그람시 하우스(Casa Museo di Antonio Gramsci) 방문
	17:00-18:30		안토니오 그람시 하우스 출발 → 사짜리 도착
	18:30-21:00	사짜리 (차량이동)	호텔 투숙 및 석식 숙소 : 사르데냐 사짜리 Marini Hotel
6월 19일 (월)	08:30-09:30		호텔 조식
	09:30-11:30		호텔 출발 → 누오로현 오르고솔로(Orgosolo) 이동
	11:30-13:00		오르고솔로 답사
	13:00-15:00	사짜리 (차량이동)	중식
	15:00-17:00		오르고솔로 답사
	17:00-19:00		오르고솔로 출발 → 사짜리 도착
	19:00-21:00		석식 및 호텔 투숙 숙소 : 사르데냐 사짜리 Marini Hotel
6월 20일 (화)	08:30-09:30		호텔 조식
	09:30-10:00		호텔 출발 → 사짜리대학 도착
	10:00-11:30		사짜리대학(농과대학) Antonio Piga(농업학) 교수 면담
	11:30-12:00		사짜리대학 농과대학 출발 → 사짜리대학 역사학과 도착
	12:00-13:40	사짜리 (차량이동)	사짜리대학 Dino Manca(문학 전공) 교수 면담
	13:40-15:00		중식
	15:00-16:30		사짜리대학 Luca Deidda 부총장 및 Luciano Gutierrez 국제교류처장 외 2인 면담
	16:30-18:00		사짜리 도시공간 답사
	18:00-20:00		석식 및 호텔 투숙 숙소 : 사르데냐 사짜리 Marini Hotel
6월 21일 (수)	08:30-09:30		호텔 조식
	09:30-10:30		호텔 출발(체크아웃) → 알게로 도착
	10:30-12:30		알게로 구시가지 답사
	12:30-13:30	알게로 (차량이동)	중식
	13:30-16:10		알게로 출발 → 알게로 페르티리아공항 도착 / 공항 대기
	16:10-17:10		알게로 페르티리아공항 출발 → 로마 피우미치노공항 도착
	17:10-20:00		이동 후 석식 및 호텔 투숙 숙소 : 로마 Torino Hotel
6월 22일 (목)	08:30-09:30		호텔 조식
	09:30-12:00		휴식 및 자유시간
	12:00-14:00	로마	중식 : 로마 사피엔자 대학 안토네타 부르노(Antonatta Bruno, 한국어/문학 전공)교수와의 면담
	14:00-17:00		자유시간
	17:00-20:40		호텔 출발 → 로마 피우미치노공항 도착
	20:40-14:55 (+1)		로마 피우미치노공항 출발 → 인천국제공항 도착 숙소 : 기내
6월 23일 (금)	20:40-14:55	인천	로마 피우미치노공항 출발 → 인천국제공항 도착 / 해산
	14:55-17:45	김포	인천국제공항 → 김포공항 이동
	17:45-18:55	제주	김포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 / 해산(박찬식 센터장님, 임승희 연구원)

3. 제주·사르데냐 연구자 공동 좌담회

○ 필요성

- 제주섬과 사르데냐섬과의 지역성·도서성(島嶼性, insularity) 비교 연구
- 사르데냐섬과의 공적인 학술 문화 네트워크 구축

○ 좌담회 개요

- 주 제 : 제주섬과 사르데냐섬의 문화 및 현실·미래비전 비교 위한 사르데냐 연구 현황 및 흐름에 대한 좌담회
- 내 용 :

1차	일 시	2017년 6월 15일 11:00 - 12:00
	장 소	사르데냐 칼리아리 지방정부(Regione Autonoma della Sardegna)
	참석자 (10명)	연구진 : 박찬식(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임승희(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김현미(연세대 교수), 이향철(광운대 교수), 장수현(광운대 교수), 김효정(이화여대 박사수료), 우기동(로마대 졸업), 현혜영(로마 산타세실리아 국립음악원 졸업) 외 부 : Marco Sechi(대외협력 담당 공무원) 외 1명
	내 용	☐ 마르코 세끼 • 지오반니 코이누 교수님이 사르데냐 지역 사업 담당하는 분으로 연구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 일주일 간 연구와 면담 진행하고 그 내용을 다시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사르데냐에서도 관광, 환경 부분에 관심이 많고 공동과제이다. • 이번 연구로 사르데냐와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면 좋겠다. • 연구에 대한 필요한 자료들 준비해 드리겠다. ☐ 박찬식 센터장 • 초대해 주시고 카루치 교수님(칼리아리대 부총장) 소개해 주어서 감사하다. • 제주학센터는 제주에 관한 다양한 연구사업을 담당하는 제주도 지방정부가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이다. ☐ 마르코 세끼 • 이탈리아에는 5개의 특별자치주가 있고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자치주에서 세금을 걷고 주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한다. 100%는 아니다. • 자치주 안에서 지역의 현과 면의 정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환경, 의료, 복지, 학교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 데무로 교수님을 만나서 사르데냐 자치법과 정책에 대한 내용을 더 의논하면 좋겠다. • 사르데냐 관광에 관한 것은 사르데냐 투어리즘 사이트에서 통계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칼리아리 대학이 좀 더 크고 중심 대학으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고 싸사

	리 대학은 역사적인 곳이다. • 사르데냐 인구는 160만명 정도이다. 이탈리아 섬 중에서는 인구가 제일 적다. • 사르데냐에서 제일 큰 도시가 칼리아리이고 대부분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다. • 사르데냐의 300개 정도의 꼬무네가 있다. • 관광인구는 1년에 1200만명 정도로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사르데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해수욕을 하고 큰 빌딩을 만드는 방식의 관광을 원하지는 않는다. 이곳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는 관광을 원한다. • 마르요카처럼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연대해서(사르데냐-마요르카-코르시카 등 지중해 섬들끼리) 이야기 나누고 있다. • 사르데냐에 카타르 아랍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투자자로 많이 오고 있다. 스메랄다 지역에 러시아 투자자의 리조트가 건설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사르데냐 법을 안내하고 정해진 규율을 따를 것을 안내하고 있다. 해외 투자는 환영한다. • 80%의 군사기지가 사르데냐에 있다.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점도 있지만 개발이 되지 않고 자연환경이 유지되기도 했다. • 알게로에 가시면 파르코 아지나가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지역인데, 15년 전에 공개된 지역으로 한 번 가보시면 좋겠다. 자연환경이 잘 유지되어 있고 멋진 곳이다. • 군사기지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자연환경이 잘 유지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 • 관광 사업에 있어서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관광을 고민하고 있다.싼 가격에 대량 방식의 관광은 지양한다. 바다 중심의 관광이 아니라 섬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질적인 관광을 지향한다. 사르데냐는 산도 있고 평야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사막 지역도 있는 독특한 자연문화를 가지고 있다. • 태양열을 비롯한 대체에너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풍력발전소가 많았는데 소음이 크고 자연경관을 해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나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데 로마나 나폴리는 쓰레기 문제(취, 환경오염 등)가 굉장히 심각한데, 사르데냐는 재활용이나 쓰레기 문제를 굉장히 잘 해결하고 있다. 쓰레기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 사르데냐 안에서 도시마다 의견이 다 다르다. “머리카락도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다”라는 말이 있듯이 도시마다 성격이 다르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다른 대신에 의견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르데냐 내부의 문제보다 이탈리아 중앙정부와의 갈등이나 문제가 더 크다. • 국립공원 문제가 몇 년 전에 큰 문제였고 지금은 국립공원 지정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목축을 못하는 문제 등으로 지역 사회와 갈등이 있었지만 함께 협상하고 이야기해서 해결이 되었다. • “Endless 사르데냐”의 의미는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하나로 끝이 아니라, 역사적인 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방면으로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사르데냐의 지역마다 도시마다 역사와 문화가 각각 독특하고 다르다. 한두 개로 꼽을 수 없다. • 누라게 뮤지엄을 추천하며 빨라에 가면 로마시대의 유적을 볼 수 있다. 오르고솔로에 가면 분리주의 반대파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	--

2차	일시	2017년 6월 16일 12:00 - 13:30
	장소	칼리아리 대학
	참석자 (12명)	연구진 : 박찬식(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임승희(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김현미(연세대 교수), 이향철(광운대 교수), 장수현(광운대 교수), 김효정(이화여대 박사수료), 우기동(로마대 졸업), 현혜영(로마 산타세실리아 국립음악원 졸업) 외 부 : Alessandra Carucci(부총장), Caboni(약학, 식품), Patrizia Modica(관광), Bacchetta(환경, 식물)교수
2차	내용	☐ 카루치 교수 • 이번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만남을 유지해 가길 원한다. • 건축, 도시재생 연구 • 칼리아리대학교 소개 - 1620년 설립, 6개 학부(생물학과 약학/공학과 건축/의학/과학/경제학, 법학, 정치과학/인문학) - 25,000명 학생, 매년 4,000명 졸업, 교직원 수 2,042명 (이하 생략) ☐ Modica 교수 • 지속가능 관광 산업에 대한 석사 프로그램 개발(1년은 이탈리아어로 1년은 영어로 운영) • Sustainable Island Tourism 영문 책 발간 • 5월 1일 사르데냐의 유명한 축제가 개최됨. 사르데냐 축제에 관한 연구. ☐ Bacchetta 교수 • 장수, Blue Zone 연구, 생태, 환경, 식물 연구 진행 • 제주도도 Blue Zone 연구 대상 지역 중 하나인 점에 매우 관심이 많다. • 온라인 석사 과정 개발 ☐ Caboni 교수 • 환경, 약학, 음식문화, 식품, 건강 관련 연구 진행 • 사르데냐 전통 치즈, 요구르트 발효음식 연구 • 해외 외국인 학생 대상 박사과정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 사르데냐 해산물 음식 문화 연구 • 농업 연구, 동물복지 연구 (사짜리 지역에서 진행) • 사짜리 대학 주세페 벨리나 교수 소개 예정(음식 문화) ☐ 김현미 교수 • 칼리아리 지역 도시 재생 사업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는지? ☐ 카루치 교수 •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고 구옥을 계속 고쳐서 복원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 지속가능한 환경과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 마을 환경, 경관을 해치지 않고 건축, 도시 재생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현재 칼리아리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쓰레기 문제이다. 마을에 1,000명의 주민이 있다면 성수기에는 관광객 2만 명이 왔다 가는데, 쓰레기 문제가 매우 큰 문제이다. • 사르데냐가 다른 이탈리아 지역에 비해서 쓰레기 문제를 잘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성수기에 관광객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는 큰 문제이다. • 사르데냐는 다른 중부 지역에 비해서 쓰레기 문제나 재활용이 잘 관리되고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문제이다. 쓰레기를 집 앞에 두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 알루미늄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내륙지방이 알루미늄 폐기물 때문에 오염이 되었는데, 이것을 없애는 작업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 김현미 교수 - 아시아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 카루치 교수 - 중국의 경우 경제학 쪽 프로그램, 일본·중국에는 IT 공학 쪽 프로그램, 약대 쪽 프로그램. - 중국, 일본, 한국 대학과 관계 확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 방문 교수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교수, 연구자 초청도 확대하고자 한다. ☐ 장수현 교수 - 지속가능한 제주의 관광 개발, 사르테냐의 경험과 앞으로의 계획? ☐ 카루치 교수 - 사르테냐는 해변을 위주로 관광이 주로 개발되고 있는데, 내륙지방 관광 산업으로 확대,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 ☐ 모디카 교수 - 사르테냐의 한 동네가 7,000명의 주민이 사는데 5만 명의 관광객이 성수기에 방문하면서 쓰레기 문제, 물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 분리수거로 쓰레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었다. - 사르테냐의 의료 시스템, 관광객을 위한 응급처치 시스템 마련되었고 이 부분도 의미 있다. - 성수기를 좀 더 늘려서 7, 8월에만 오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관광객이 꾸준히 더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계획이다. 등산을 하거나 산을 타거나 축제에 오거나. 1, 2개월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장수현 교수 - 사르테냐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도시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들었다. ☐ 카루치 교수 - 그렇지 않다. 해변가가 현대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하고 자동차가 못 다니게 하는 것은 도시화와는 의미가 다른 것 같다. - 해변가에서 300m 내에는 새로운 건물을 못 짓게 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 카보니 교수 - 사르테냐 내륙지방에 400km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 전동 자전거를 타고 산을 타는 프로그램도 있다. 5일 간 해변가 80km를 걷는 길도 있다. 사르테냐 서쪽에서 동쪽으로 120km 걷는 길도 있다. - 옛날 기차를 만들어서 사르테냐 중앙 지역으로 올라가는 것도 개발 중이다. ☐ 박찬식 센터장 - 제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자연유산으로 지질, 생태 자연 경관이 많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있는지, 국립공원 지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관계는 어떠한지? ☐ 카보니 교수 - 누라게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다. 로마 사람들이 채취했던 2,000년이 넘는 광산이 많은데 여기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	--

	• 몬테데필로도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이다. 사르데냐는 3개의 국립 공원이 있고 7개의 해변은 해수욕을 못하는 보전지역이다. • 사르데냐는 유적지로 만들어진 기념물도 있지만 자연적인 생태경관도 있다. □ 박찬식 센터장 • 관광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거나 투자유치를 하려는 것과 자연을 지키려고 하는데 있어서 갈등은 없는지? □ 카보니 교수 • 이 건물만 하더라도 에어컨을 밖에 설치하지 못하고 레조네에서 지정한 규율이 많기 때문에 개발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가 없다. 관광사업의 개발보다는 모두가 레조네에서 지정된 법규를 지켜야만 한다. □ 박찬식 센터장 • 사르데냐는 1,200만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들었는데, 혹시 관광객 총량제를 통해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건지? 1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것도 고민하는지? • 관광 관련 통계 자료나 연구 자료가 있는지? □ 모디카 교수 • 다른 도시와 달리 사르데냐도 사르데냐만의 정체성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이러한 정체성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광객이 오는 것도 한편 배려해야한다. 이런 문제는 오래된 고민이다. 우리 것을 지키면서 사르데냐를 찾아주는 관광객들도 배려해야 하는 것. • 바닷가의 오염을 담당하시는 단체를 비롯해서 다양한 사회단체,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 • 모니터링을 통해 관광객 수를 비롯해서 분석을 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포화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이다. 이는 사르데냐에서 오래된 작업이며 최근의 문제는 아니다. • UN에서 발행한 자료, EU에서 발행한 자료, 레조네에서 발행한 자료 등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	--

4. 현장답사 및 면담조사 사진 (* 면담 조사 내용은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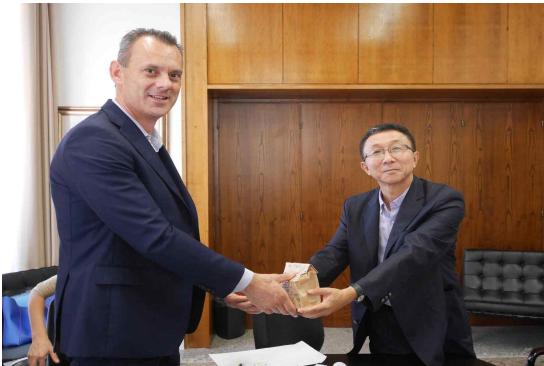
□ 6월 15일(목)



사르데냐 지방정부 관계자(Marco Sechi)와의 미팅(1)



사르데냐 지방정부 관계자(Marco Sechi)와의 미팅(2)



사르데냐 지방정부 관계자(Marco Sechi)와의 미팅(3)



사르데냐 지방정부 관계자(Marco Sechi)와의 미팅(4)



칼리아리대학 Giovanni Coinu교수와의 좌담회(1)



칼리아리대학 Giovanni Coinu교수와의 좌담회(2)



칼리아리대학 Ilenia Ruggiu교수 외 2명과의 면담(1)



칼리아리대학 Ilenia Ruggiu교수 외 2명과의 면담(2)



칼리아리대학 Ilenia Ruggiu교수 외 2명과의 면담(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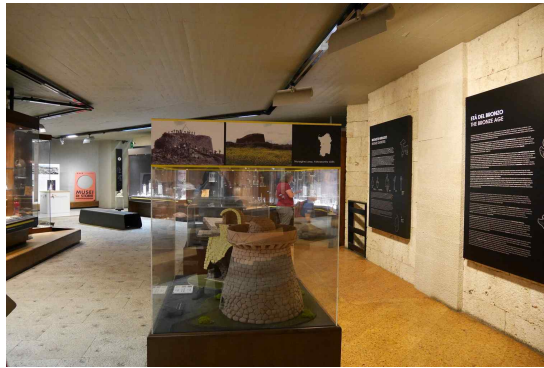


칼리아리대학 Ilenia Ruggiu교수 외 2명과의 면담(4)

□ 6월 16일(금)



칼리아리 국립고고학박물관 방문(1)



칼리아리 국립고고학박물관 방문(2)



칼리아리 국립고고학박물관 방문(3)



칼리아리대학 부총장 Alessandra Carucci 외 3명 교수와의 좌담회(1)



칼리아리대학 부총장 Alessandra Carucci 외 3명 교수와의 좌담회(2)



칼리아리대학 부총장 Alessandra Carucci 외 3명 교수와의 좌담회(3)



칼리타대학 부총장 Alessandra Carucci 외 3명 교수와의 좌담회(4)



칼리타대학 부총장 Alessandra Carucci 외 3명 교수와의 좌담회(5)



칼리타대학 약학대학 방문 - Caboni교수 개별 면담



칼리타대학 경제학과 방문 - Modica교수 개별 면담



Orto Botanico Cagliari 방문 - Bacchetta교수 개별 면담(1)



Orto Botanico Cagliari 방문 - Bacchetta교수 개별 면담(2)

□ 6월 17일(토)



장수문화 연구자 Roberto Pili 면담



노라(Nora) 로마시대 유적 답사(1)



노라(Nora) 로마시대 유적 답사(2)



가(Chia) 답사 - 마리아 콘체타 시장 로베르토 세라 보좌관 미팅(1)



가(Chia) 답사 - 마리아 콘체타 시장 로베르토 세라 보좌관 미팅(2)



가(Chia) 답사 - 마리아 콘체타 시장 로베르토 세라 보좌관 미팅(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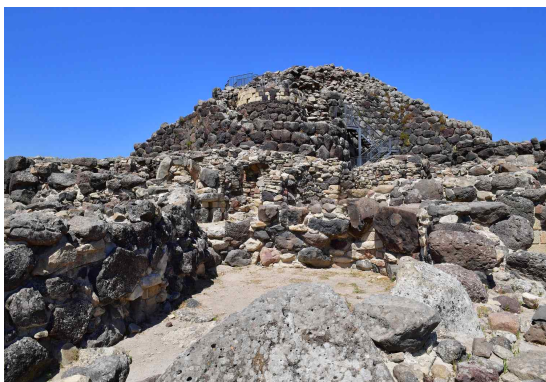


가(Chia) 답사 - 마리아 콘체타 시장 로베르토 세라 보좌관 미팅(4)



가(Chia) 지역의 경관

□ 6월 18일(일)



수 누락시 디 바루미니(Su Nuraxi di Barumini) 답사(1)



수 누락시 디 바루미니(Su Nuraxi di Barumini) 답사(2)



수 누락시 디 바루미니(Su Nuraxi di Barumini) 답사(3)



수 누락시 디 바루미니(Su Nuraxi di Barumini) 답사(4)



안토니오 그람시 하우스(박물관) 방문(1)



안토니오 그람시 하우스(박물관) 방문(2)

□ 6월 19일(월)



오르고솔로(Orgosolo) 산악지역 경관



오르고솔로(Orgosolo) 답사(1)



오르고솔로(Orgosolo) 답사(2)



오르고솔로(Orgosolo) 답사(3)

□ 6월 20일(화)



사쓰리대학 Antonio Piga(농업학)교수 면담(1)



사쓰리대학 Antonio Piga(농업학)교수 면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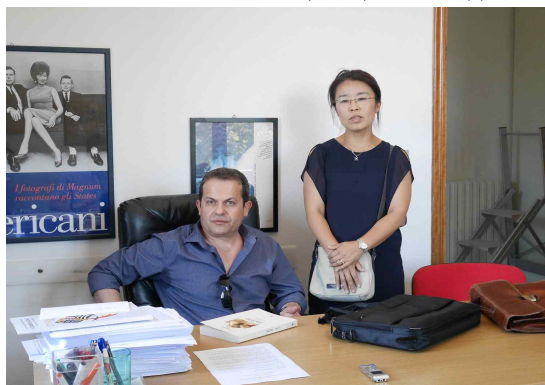
사쓰리대학 Marco Milanese(역사학) 교수 미팅(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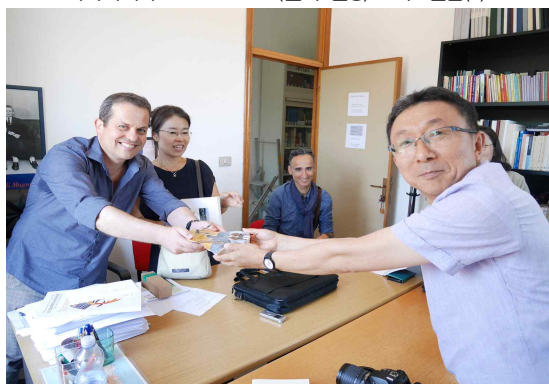
사쓰리대학 Marco Milanese(역사학) 교수 미팅(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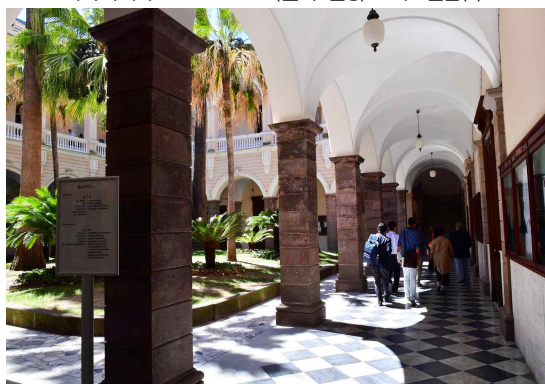
사쓰리대학 Dino Manca(문학 전공) 교수 면담(1)



사쓰리대학 Dino Manca(문학 전공) 교수 면담(2)



사쓰리대학 Dino Manca(문학 전공) 교수 면담(3)



사쓰리대학 부총장 및 관계자 면담 장소 이동



사싸리대학 Luca Deidda 부총장 외 3명 면담(1)



사싸리대학 Luca Deidda 부총장 외 3명 면담(2)

□ 6월 21일(수) - 6월 22일(목)



알게로 도시공간 - 장수인물 관련



로마 사피엔자대학 안토네타 부르노 교수와의 면담

6. 주요 수집 자료 목록

연번	저자	제목	출판사	연도
1	Gianmario Demuro, Ilenia Ruggiu 외 1인	Identità e Autonomia in Sardegna e Scozie	Maggioli Editore	2013
2	Patrizia Modica 외 1인	Sustainable Island Tourism	CABI	2016
3	Dino Manca	Grazia Deledda L'edera	Centro di studi filologici sardi/CUEC	2010
4	Dino Manca	G. Deledda Cosima	Edes	2016

7. 기대효과

- 세계 섬문화 연구의 선구적인 업적을 생산하는 한편 제주학 연구의 확장 및 글로벌적 연계성으로 외연 확대 계기 마련
- 사르데냐 섬과의 공적인 학술 문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제주학연구센터의 국제적 위상 및 역량 증진

세계 섬문화 비교 연구 사르데냐 출장 관련 면담 조사 회의록

<6월 15일(목)>

- 일시 : 2017년 6월 15일 오전 11시 ~ 12시
- 장소 : 사르데냐 청사 방문
- 면담자 : 사르데냐 대외협력 담당 마르코 세끼(Marco Sechi ; Regione Autonoma della Sardegna, Ufficio di Gabinetto del Presidente)

마르코 세끼

- 지오반니 코이누 교수님이 사르데냐 지역 사업 담당하는 분으로 연구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 일주일 간 연구와 면담 진행하고 그 내용을 다시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사르데냐에서도 관광, 환경 부분에 관심이 많고 공동과제이다.
- 이번 연구로 사르데냐와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면 좋겠다.
- 연구에 대한 필요한 자료들 준비해 드리겠다.

박찬식 센터장

- 초대해 주시고 카루치 교수님(칼리아리대 부총장) 소개해 주어서 감사하다.
- 제주학센터는 제주에 관한 다양한 연구사업을 담당하는 제주도 지방정부가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이다.

마르코 세끼

- 이탈리아에는 5개의 특별자치주가 있고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자치주에서 세금을 걷고 주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한다. 100%는 아니다.
- 자치주 안에서 지역의 현과 면의 정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환경, 의료, 복지, 학교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 몰라 교수님을 만나서 사르데냐 자치법과 정책에 대한 내용을 더 의논하면 좋겠다.
- 사르데냐 관광에 관한 것은 사르데냐 투어리즘 사이트에서 통계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칼리아리 대학이 좀 더 크고 중심 대학으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고 싸사리 대학은 역사적인 곳이다.
- 사르데냐 인구는 160만명 정도이다. 이탈리아 섬 중에서는 인구가 제일 적다.
- 사르데냐에서 제일 큰 도시가 칼리아리이고 대부분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다.
- 사르데냐의 300개 정도의 꼬무네가 있다.
- 관광인구는 1년에 1200만명 정도로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사르데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해수욕을 하고 큰 빌딩을 만드는 방식의 관광을 원하지는 않는다. 이곳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는 관광을 원한다.
- 마르요카처럼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연대해서(사르데냐-마요르카-코르시카 등 지중해 섬들끼리) 이야기 나누고 있다.

- 사르데냐에 카타르 아랍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투자자로 많이 오고 있다. 스메랄다 지역에 러시아 투자자의 리조트가 건설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사르데냐 법을 안내하고 정해진 규율을 따를 것을 안내하고 있다. 해외 투자는 환영한다.
- 80%의 군사기지가 사르데냐에 있다. 군사기지가기 때문에 부정적인 점도 있지만 개발이 되지 않고 자연환경이 유지되기도 했다.
- 알게로에 가시면 파르코 아지나가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감옥으로 사용되었던 지역인데, 15년 전에 공개된 지역으로 한 번 가보시면 좋겠다. 자연환경이 잘 유지되어 있고 멋진 곳이다.
- 군사기지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자연환경이 잘 유지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
- 관광 사업에 있어서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관광을 고민하고 있다.싼 가격에 대량 방식의 관광은 지양한다. 바다 중심의 관광이 아니라 섬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질적인 관광을 지향한다. 사르데냐는 산도 있고 평야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사막 지역도 있는 독특한 자연문화를 가지고 있다.
- 태양열을 비롯한 대체에너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풍력발전소가 많았는데 소음이 크고 자연경관을 해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나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로마나 나폴리는 쓰레기 문제(취, 환경오염 등)가 굉장히 심각한데, 사르데냐는 재활용이나 쓰레기 문제를 굉장히 잘 해결하고 있다. 쓰레기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 사르데냐 안에서 도시마다 의견이 다 다르다. “머리카락도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다”라는 말이 있듯이 도시마다 성격이 다르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다른 대신에 의견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르데냐 내부의 문제보다 이탈리아 중앙정부와의 갈등이나 문제가 더 크다.
- 국립공원 문제가 몇 년 전에 큰 문제였고 지금은 국립공원 지정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목축을 못하는 문제 등으로 지역 사회와 갈등이 있었지만 함께 협상하고 이야기해서 해결이 되었다.
- “Endless 사르데냐”의 의미는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하나로 끝이 아니라, 역사적인 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방면으로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사르데냐의 지역마다 도시마다 역사와 문화가 각각 독특하고 다르다. 한두 개로 꼽을 수 없다.
- 누라게 뮤지엄을 추천하며 빨라에 가면 로마시대의 유적을 볼 수 있다. 오르고솔로에 가면 분리주의 반대파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 일시 : 6월 15일 오후 12시 30분 ~ 2시

☐ 장소 : 칼리아리대학교 법대

☐ 참석자 : Giovanni Coinu 교수

박찬식 센터장

- 2006년에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되었는데, 아직 중앙정부로부터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사르데냐가 더 많은 특별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지오반니 교수

- 사르데냐도 중앙정부로부터 헌법적 지위를 모두 받지는 못했다. 5개의 특별자치주가 모두 역사가 있다. 사르데냐는 섬의 역사로써 특별자치주가 되었다.
- 사르데냐는 경제적으로 다른 이탈리아 도시와 달리 발전이 좀 늦었다. 이탈리아가 통일이 된 지

150년이 되었다. 이곳은 사르데냐 왕국에서 시작되었고 법도 사르데냐 왕국에서 시작되었다.

이향철 교수

- 사르데냐 왕국의 헌법 체제가 1980년까지 지속되었는가?
- 사르데냐 주정부의 입법권은 어떠한 지위인지?

지오반니 교수

- 아니요. 이탈리아가 통일되면서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있었다.
- 이탈리아의 헌법이 우선이며-인권, 조직, 경제 등- 국가와 자치주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에 따른다.
- 사르데냐의 자치적인 법에 있어서는 국가법이 영향을 줄 수 없다. 경제, 관광, 발전에 있어서는 사르데냐의 자치법을 따른다.
- 이탈리아 역사가 15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르데냐가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사르데냐를 특별자치로 인정한 것은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 사르데냐도 제주처럼 중앙정부로부터 100%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사르데냐도 중앙정부로부터 100% 자치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법과 제도를 갖길 원한다. 이와 관련한 책을 작년에 출판했는데 이탈리아어이다.
- 통계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당신은 유럽 사람인가, 이탈리아 사람인가, 사르데냐 사람인가”라고 물으면, 조사 결과 우선 사르데냐 사람이라고 먼저 말하고 다음으로 유럽 사람이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말한다. 사르데냐 사람들은 국가적인 의식보다 공동체 의식이 더 투철하다.
- 칼리아리 대학에서도 일하지만 사르데냐 주정부에서도 일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가 있으면 나한테 요청을 하면 된다.
- 사르데냐는 독립국가가 아니고 이탈리아 공화국에 내에서 자치주로 인정하지만 하나의 이탈리아 국가에 속한다. 이탈리아의 헌법을 따른다. 헌법 안에서 규율이나 경제 재정도 정한다.

이향철 교수

- 사르데냐의 환경, 국립공원, 안보, 군사기지, 국가외교 등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법적으로 대립되는 사례에 대해 듣고 싶다.
- 지역 사회에서 군사기지와 관련해서 주민 간에 갈등 상황이 있지 않은가?

지오반니 교수

-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자본이 대거 유입이 되었는데, 사르데냐의 군사기지화에 대부분 사용되었다. 이탈리아의 군사기지가 사르데냐에 가장 많다. 군사기지의 역사로 인해 자연환경이 보존된 장점이 있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 여기서 60km 가면 테올라다라는 제일 큰 군사기지가 있다. 군사기지를 없애라고 단순하게 반대할 수가 없다. 국가 안보의 문제로 인해 군사기지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사기지를 줄이자는 이야기를 해도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 경제 문제, 안보 문제로 인해 기지를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더 많다.
- 사르데냐 주 안에는 20개의 시(레조네)가 있는데 칼리아리시 외에는 인구가 거의 없다. 칼리아리시에 사르데냐 전체 인구 2/3가 거주하고 싸사리에 20만명 정도, 누오로 지역에도 일부 있고 테올라

다 지역은 3번째로 큰 도시이다. 테올라다 지역은 군사기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산다.

- 시칠리아는 인구가 600~700만 가까이 되다보니 군사기지가 들어서지 못했고, 사르데냐는 로마와도 가깝고 아틀란타해와도 가깝고 아프리카와도 가깝고 방어기지 측면에서 지리적으로 군사안보에 의미가 있다 보니 사르데냐에 건설됨.

박찬식 센터장

관광객들에게 입도세를 받는지? 제주는 알짜배기 조세는 중앙정부가 다 가져가서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오반니 교수

- 입도세는 따로 없다. 그러나 도시마다 도시세(city tax)를 자체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꼬무네 안에서 정할 수 있고 꼬무네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르데냐 주는 재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지 않다. 사르데냐 주는 세금에 있어서 90% 정도 재정적 독립을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비롯한 재정도 있다.
- 사르데냐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중앙 정부에 제안하면 재정을 지원받는다. 사업 기획이 있어야만 한다. 이탈리아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EU로부터도 받을 수 있다.
- 로마와 사르데냐 섬은 350km 정도 떨어져 있다. 로마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하는 게 목표이다. 사르데냐와 로마를 오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저렴하게 오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게 목표이다.

김현미 교수

- 교육에 있어서 사르데냐 토착 문화와 역사에 대한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지?

지오반니 교수

- 아주 어려운 질문이다. 사르데냐어가 있는데 사르데냐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이 있으나 사르데냐어도 방언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 사르데냐어가 6~7개가 있고 이탈리아어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이다. 사르데냐어를 가르친다고 할 때 어떤 것을 가르칠지 정하는 것이 어렵다. 어떤 언어는 코르시카어와 유사하고 어떤 언어는 아예 다른 언어이다. 6개의 언어 중에 무엇을 사르데냐어로 이야기 할 것인가 정하는 것이 어렵다.

박찬식 센터장

- 이탈리아 역사 교육을 강조하는지 사르데냐 역사 교육을 강조하는지?

지오반니 교수

- 교육청에서 정한 역사교육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생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

박찬식 센터장

- 사르데냐는 자체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길 원하는지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길 원하는지?

지오반니 교수

- 두 입장이 대립적으로 존재한다. 독립을 원하는 분리주의파가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 정치에서 분리된 재정이란 없다. 정치적으로는 독립적인 힘은 기르되 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 받길 원하는데 이것은 사실 현실적이지 않다.

이향철 교수

- 중앙 정부에서 파견된 보직들이 꼬무네, 프로벤차 등이 있는데 이들의 역할이 무엇이며 왜 그러한지?
- 평의회(준타)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오반니 교수

- 지방 정부도 결국 중앙 정부에서 만든 조직으로 국가에서 운영한다.
- 한국에서는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뽑지만, 이탈리아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꼬무네에서 시장을 뽑거나 사르데냐 주지사는 직접적으로 뽑을 수 있다.
- 레조네, 프로벤차, 꼬무네에 각각 준타가 있다. 레조네의 경우 직접선거로 레조네 장을 선출하는데 레조네 장이 준타를 임명한다. 약 12명 정도의 준타를 임명한다. 환경, 관광, 교통 등(도지사 특보 역할) 오후에 만나는 데무로 교수가 준타에 위원으로 역할을 했었다. 현재 레조네 장이 전 칼리ारी 대학 교수였다.

김신효정

- 거버넌스 구성, 시민사회(NGO, NPO)가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주정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협치?
- 장수 마을의 청년 정책이 있는가?

지오반니 교수

- 시민이라면 누구든 온루스(모임)을 결성할 수 있다. 헌법에만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조직도 결성할 수 있다. 온루스는 비영리 단체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모임을 말한다.
- 이곳에 태어나는 분들 자체가 유전적으로 장수 DNA가 있다. 청년들은 사르데냐에 거주하기보다 다른 지역으로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주하는 경우가 더 많다.

박찬식 센터장

- 제주와 사르데냐가 주정부 차원에서 협약을 맺으면 이후에 제주대와 파트너십을 맺거나 할 수 있고 그때 지오반니 선생님이 많은 도움을 주면 좋겠다.

지오반니 교수

- 칼리ारी 대학에서도 제주에 관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제주 대학도 사르데냐 관련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협력을 이어가면 좋겠다.

- 일시 : 2017년 6월 15일 15:30 - 17:00
- 장소 : 칼리아리대학교 아프리카 아시아 연구소
- 면담자 : Ilenia Ruggiu 교수, Sabrina Perra 교수

일레니아 교수

- 인류학자이고 다민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사브리나 교수

- 사회학자이고 젠더 연구를 하고 있고, 현재 저출산 관련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 사회 관계에서 중국-이탈리아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 칼리아리 대학 내에 아시아연구소가 있는데, 중국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고 중국 유학생들도 많다.

박찬식 센터장

- 제주도가 한국의 가장 큰 섬이지만 사르데냐는 제주보다 13배 크고 인구도 3배가 많다. 제주도 사르데냐처럼 특별자치도이면서 문화나 역사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다(제주 해녀 문화 소개).

사브리나 교수

- 사르데냐에서는 여자가 바다 일을 하지는 않는다.

김현미 교수

- 한국도 20년 넘게 저출산이 사회문제이다. 한국에서 아이를 기르고 성장시키는 데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여성이 결혼을 늦추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사회적 문화가 있다. 사르데냐는 어떠한가?

사브리나 교수

- 유럽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사르데냐의 출산율은 1.07이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치나 정책은 현재 없다. 이탈리아도 30년 넘게 출산이 감소하고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이다. 1970년대 경제 부흥 이후 여성도 공적 영역에 많이 참여하게 되면서, 고학력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결혼도 늦게 하고 출산율이 낮아져왔다. 첫 자녀 출산을 하는 여성의 연령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사르데냐의 결혼한 부부 중 25%가 3년 이내에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사르데냐도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경제권을 가져야만 자녀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 저출산과 연결된다.

- 2008년에 유럽 경제 위기, 저성장으로 인해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다. 저성장 경제는 여성의 취업률을 낮게 만들고 여성들이 주로 파트타임직을 갖는다. 사르데냐에서 교육이나 공공 직무를 제외하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직종이 많지 않다.
- 사르데냐에서 2000년부터 여성들이 농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어업을 비롯한 바다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남성들의 일로 한정되어 있다. 참치 잡는 것에서부터 모두 남성들이 한다.
- 농촌에서 여성들이 농업 일에 참여하는 게 늘어나고 있고 축산의 경우 자급자족이 대부분이다.

김현미 교수

- 전통적으로 노동의 성별 분업이 있었나?

사브리나 교수

- 여성들은 농업 일을 항상 해왔지만 노동의 주체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왔다.

김현미 교수

- 농산물의 판매를 남성들이 맡아서 여성들은 경제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건지?

사브리나 교수

- 남성이 목축을 하러 나가면 오랫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남성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여성이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성이 경제권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 부모로부터 여성도(모든 계층, 귀족이든 서민이든) 상속을 받을 수 있고 결혼한 후에도 여성이 독립적으로 별개로 재산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이탈리아 다른 지역과 달리 독특한 문화이다.

이향철 교수

- 여전히 들판의 일은 남성, 마을의 일은 여성이 하는 공간으로 구분되는 성별 분업이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는가?
- 노베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브리나 교수

- 마을의 일은 여성이 하고 감파뷰, 들판의 일은 목축을 비롯해서 남성이 하는 성별 분업이 되어 있다.
- 고령사회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은 마을에 있어야 하고 가정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고학력 여성들은 공적 영역에 많이 진출하면서 노인 돌봄이 과거와 달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 노베나는 여성들이 9일 동안 성자에게 기도를 하는 행사인데, 남성들도 참여를 좀 하다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다.

김현미 교수

- 도시는 어떠한지? 도시에서 부부 간의 성역할, 성별 분업은 어떠한가?

사브리나 교수

- 도시의 경우 그렇지 않다. 지금은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남성과 여성의 직업이 구분이 되지 않지만 성평등 하지는 않다.
- 여성들은 대개 공공부문 직종에 많고 파트타임에 속한 경우가 많은 반면, 남성은 좀 더 리더십 분야에 속해있고 성별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월급에서 1,200유로 정도 차이가 난다. 다른 이탈리아는 1,500유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르데냐는 격차가 좀 낮은 편이다.

김현미 교수

- 출산에 있어서 남아 선호가 있는가?

사브리나 교수

- 남아 선호가 있다. 결혼할 때 딸을 던지면서 결혼을 축하하고 아들 낳으라고 하는 문화가 있다.
- 과거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사르데냐에서 평균 자녀를 낳는 수가 4~5명 정도였다.
- 사르데냐는 결혼 전에 10~20년 정도 동거를 하고 경제적으로 기반이 잡히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 결혼의 경우 시에서 제공하는 공간에서 주로 한다. 최근에는 결혼보다 동거해서 사는 커플이 대부분이다.

장수현 교수

- 가사 노동의 성역할은 어떠한가?

사브리나 교수

- 여자의 일이 많다. 여성은 직장 일을 하고 집에 와서도 또 가사노동을 한다.

김효정

- 사르데냐가 장수 문화인데 가구 구성이 변화하면서 노인 돌봄의 공백을 어떻게 다루는지?

사브리나 교수

- 노인 돌봄 정책이 있고 노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 일에 많은 여성 고금인력들이 노인 돌보미로 참여하고 있다. 75세 이상의 연금을 받지 못하는 혼자서 생활을 하지 못하는 몸이 불편한 사르데냐 노인들은 700~800 유로의 보조금을 받는다.

김현미 교수

- 피임 방법은 무엇을 주로 쓰는가?
- 남성들은 어떤 피임 방법을 쓰는가?

사브리나 교수

- 피임약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 남성들도 정관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여성들이 피임약을 스스로 먹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가 콘돔을 사용한다.
- 사르테냐 여성들이 자녀를 몇 명이나 낳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임도 여성 스스로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 1946년에 이탈리아 공화국이 되면서 여성들이 공적 영역에 많이 참여하게 되었고 1970년대 경제부흥기 이후로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일레니아 교수

- 사르테냐 여성에 대한 상징이 강한 여성이라는 문화가 있다. 남성이 오랫동안 밖에 나가 있으면서 여성이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강인한 여성이란 상징이 있다.
- 다른 이탈리아 여성들이 사르테냐 여성들이 강하다고 하는데 사르테냐 여성들이 사실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경제적인 것을 관리하는 하지만 여성이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박찬식 센터장

- 사르테냐 여성 공동체 문화 관련 연구를 소개해 달라.

사브리나 교수

- 이탈리아를 반으로 나눠서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으로 문화가 유사하게 나뉘는데 사르테냐는 지리적으로 남부이지만 북부지방과 좀 더 유사하다.
- 관련 자료는 이메일로 보내주겠다.

□ 일시 : 2017년 6월 15일 16:30 - 18:00

□ 장소 : 칼리아리대학교 아프리카 아시아 연구소

□ 면담자 : Gianmario Demuro 교수

데무로 교수

- 최근까지 헌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 통과가 안 되었다. 크게 두 개의 주요 내용이 있는데 종교적인 문제와 정부 내각의 구조 변화가 있다. 상원에서 하는 일을 지역(레조네)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으나 무산되었다. 300명의 상원이 있는데 1/3로 줄이려고 했다. 하원은 600명이 있는데 이것도 줄이려고 했으나.

이향철 교수

- 이탈리아에서 2014년부터 현(프로빈차)을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왜 그러한지?

데무로 교수

- 부결되었고 아직 현이라는 지역 제도는 존재한다. 현은 직접선거를 하지 않는다. 5개의 특별자치주에서 스스로 현을 가지거나 없애거나 하는 결정권이 있다. 사르데냐는 4개의 현으로 현재 통합했다. 2000년도에는 8개의 현이 있었다. 사르데냐에서 직접선거를 통해 4개로 통합했다.
- 2016년에 칼리아리를 특별시(metropolitan)로 확대시켰다.

이향철 교수

- 만약 현 제도가 폐지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사르데냐는 유지가 되는 것인지?
- 공화국 건설 이후 30년 간 레조네를 왜 설치하지 못했는지?

데무로 교수

- 프로빈차(현)는 나폴레옹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현재와는 맞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 중앙정부가 관리를 위해 만들었던 제도로 세금이나 교통수단, 운영수단 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 이탈리아는 독일보다 더 파시즘의 역사가 길다. 중앙 집권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70년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새로 만들어 졌다기보다 원래 특별한 자치가 있었고 그 자치를 가져오는 의미이다.

박찬식 교수

- 선물로 주신 이 책에서 스코틀랜드와 사르데냐를 비교한 이유가 무엇인가?

데무로 교수

- 경제적인 것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법 제도가 스코틀랜드와 유사한 점이 많다.
- 천 명 정도 인터뷰를 해서 스코틀랜드와 사르데냐의 유사성에 대한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장수현 교수

- 사르데냐 분리 독립에 대한 분위기는 어떠한가?

데무로 교수

- 사르데냐 주의회(C,R) 60명 중에서 6명이 독립·분리주의파이고 18명이 PD이고 나머지 분들이 환경·생태 쪽이다. 60명 중에 여성은 4명이다. 지방의회의 55%, 36명의 표가 있

어야 법안이 통과된다.

- 주 평의회는 5년 임기제로 12명의 위원이 있는데, 남성 여성 비율이 50대 50이다. 주로 행정 쪽으로 역할을 맡는다. 노동, 환경, 교육, 교통,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영역을 맡고 있다.

김현미 교수

- 사르데냐에서 환경이 중요한 의제인데 어떤 환경문제인가? 좀 더 설명해 달라.

데무로 교수

- 국가에서 정한 환경기준보다 사르데냐에서 환경 문제는 더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 간단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사르데냐는 관광산업이 중요한데 해수욕장 300미터 이내에서는 집이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조례가 있다. 이것은 국가법보다 더 엄격하다.
- 해수욕장 주변에 차량을 통제한다든지 인원을 제한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바닷가 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들이 있다. 베르키타 해수욕장의 경우 해수욕을 원하는 경우 예약제를 도입하여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 알루미늄 공장을 폐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박찬식 센터장

- 지하수를 비롯한 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데무로 교수

- 인공으로 호수를 만들고 댐으로 물을 관리하고 있다. 사르데냐에서 여름에 가뭄은 큰 문제이다. 지하수나 우물도 있지만 그 정도의 양으로는 물이 부족하다.
-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 전문가가 사르데냐의 댐 건설을 맡아서 건설했다.
- 사르데냐에 국립공원이 2개(NATO 미군 기지였던 마달레나, 감옥이었던 아지나) 있는데 사르데냐 사람들이 국립공원을 원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통제 안 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니 그냥 놔둬 달라는 것이다.
- 사르데냐는 지리적으로 군사 요지라서 핵잠수함을 비롯한 군 잠수함이 많았다.

김현미 교수

- 사르데냐에서 어떻게 미군기지 폐쇄 운동에 성공했는가?

데무로 교수

- 북 사르데냐는 지중해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요새였다. 사르데냐는 오랜 군사 기지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세기 초 넬슨 제독의 영국 해군 주둔,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과 이탈리아 안드레오티 정권의 밀약으로 미군 6함대 소속 핵잠수함이 기항 배치되었다.
-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이후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지중해에서 사르데냐가 더 이상

군사적 지리적 의미가 사라지면서 미군이 철수했다. 오히려 지역 주민은 미군이 떠나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미군기지가 폐쇄되는 것에 섭섭함과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분은 실제로 미군이 떠나고 이탈리아 군대가 그 빈자리를 채우면서 막상 경제적인 타격은 실제로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미군은 갔지만 여전히 군사기지는 남아있다. 250년이 넘는 군사기지의 역사.

- 제주의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몰타의 군사기지 관련 연구를 참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사르데냐는 칼리아리 지역 외에 인구가 거의 없고 워낙 비어있는 영토가 많기 때문에 무기 실험 장소로 활용되어 왔고 군사기지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사브리나 교수

- 사르데냐가 과거에 비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나아졌지만 과거에는 못사는 지역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이 필요했고 군사기지는 지원을 받기 위한 주요한 근거였다. 1950년부터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왔다. 미군도 나가고 알루미늄 공장도 폐쇄되고 이제부터 사르데냐가 독립적으로 재정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관광산업에서 Low cost로 많은 사람을 오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질적으로 높은 관광산업 유치가 도전 과제이다.
- 사르데냐 주정부 재정의 5%가 관광산업에서 발생한다.

김현미 교수

- 탄광촌이 폐쇄되고 이것을 관광산업으로 연결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 좀 더 설명해 달라
- 많은 사람이 오게 하는 것과 사르데냐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가능한가?

데무로 교수

- 사르데냐에서 광업이 큰 산업이었다. 탄광이 폐쇄되고 이곳을 관광지역으로 바꾸는 사례가 있다. 영국의 사례에서 접목을 할 수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사르데냐의 탄광 지역은 굉장히 특수한 지역이고 여기에 와서 역사적인 의미를 배우고 아름다운 풍광을 구경할 수 있다. 시칠리아의 경우 난개발과 건물 건설로 좋지 않은 관광 개발 사례이다. 제주 역시 제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란다.
- 칼리아리 시내에 고대 이탈리아 역사를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있다. 거기를 방문해서 고대 로마 문화에 대해서 보길 바란다.
- 오스트리아의 경우에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 정말 많은 관광객이 온다. 사르데냐에 와서 즐기고 좋은 시간을 보내되 사르데냐의 자연을 존중하고 지켜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일레니아 교수

- 기존의 관행 관광 방식, 대량의 난개발 방식의 관광은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에 기여하지 않는다. 사르데냐의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고대의 사르데냐 수공업, 토착적 예술 문화를 다시 현대적으로 적용해서 좀 더 고급의 수공예품, 세라믹 생산으로 연결시키면서 좀 더 질 높은 관광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다.

데무로 교수

- 하르방과 비슷한 누라게가 사르데냐에도 있다. 사르데냐도 화산섬으로 제주와 유사한 지형을 갖고 있다.

<6월 16일(금)>

□ 일시 : 2017년 6월 16일 12:00 - 13:30

□ 장소 : 칼리아리대학교 부총장실

□ 면담자 : Alessandra Carucci 교수(부총장, 국제교류협력 담당)

Patrizia Modica 교수(관광), Pierluigi Caboni 교수(약학, 식품),

Bacchetta 교수(환경, 식물)

카루치 교수

- 이번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만남을 유지해 가길 원한다.
- 건축, 도시재생 연구
- 칼리아리대학교 소개
- 1620년 설립, 6개 학부(생물학과 약학/공학과 건축/의학/과학/경제학, 법학, 정치과학/인문학)
- 25,000명 학생, 매년 4,000명 졸업, 교직원 수 2,042명 (이하 생략)

Modica 교수

- 지속가능 관광 산업에 대한 석사 프로그램 개발 (1년은 이탈리아어로 1년은 영어로 운영)
- Sustainable Island Tourism 영문 책 발간
- 5월 1일 사르데냐의 유명한 축제가 개최됨. 사르데냐 축제에 관한 연구.

Bacchetta 교수

- 장수, Blue Zone 연구, 생태, 환경, 식물 연구 진행
- 제주도도 Blue Zone 연구 대상 지역 중 하나인 점에 매우 관심이 많다.

- 온라인 석사 과정 개발

Caboni 교수

- 환경, 약학, 음식문화, 식품, 건강 관련 연구 진행
- 사르테냐 전통 치즈, 요구르트 발효음식 연구
- 해외 외국인 학생 대상 박사과정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 사르테냐 해산물 음식 문화 연구
- 농업 연구, 동물복지 연구 (사싸리 지역에서 진행)
- 사싸리 대학 주세페 뿔리나 교수 소개 예정(음식 문화)

김현미 교수

- 칼리아리 지역 도시 재생 사업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는지?

카루치 교수

-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고 구옥을 계속 고쳐서 복원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 지속가능한 환경과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 마을 환경, 경관을 해치지 않고 건축, 도시 재생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현재 칼리아리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쓰레기 문제이다. 마을에 1,000명의 주민이 있다면 성수기에는 관광객 2만 명이 왔다 가는데, 쓰레기 문제가 매우 큰 문제이다.
- 사르테냐가 다른 이탈리아 지역에 비해서 쓰레기 문제를 잘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성수기에 관광객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는 큰 문제이다.
- 사르테냐는 다른 중부 지역에 비해서 쓰레기 문제나 재활용이 잘 관리되고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문제이다. 쓰레기를 집 앞에 두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 알루미늄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내륙지방이 알루미늄 폐기물 때문에 오염이 되었는데, 이것을 없애는 작업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김현미 교수

- 아시아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카루치 교수

- 중국의 경우 경제학 쪽 프로그램, 일본·중국에는 IT 공학 쪽 프로그램, 약대 쪽 프로그램.
- 중국, 일본, 한국 대학과 관계 확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 방문 교수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교수, 연구자 초청도 확대하고자 한다.

장수현 교수

- 지속가능한 제주의 관광 개발, 사르테냐의 경험과 앞으로의 계획?

카루치 교수

- 사르데냐는 해변을 위주로 관광이 주로 개발되고 있는데, 내륙지방 관광산업으로 확대,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

모디카 교수

- 사르데냐의 한 동네가 7,000명의 주민이 사는데 5만 명의 관광객이 성수기에 방문하면서 쓰레기 문제, 물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 분리수거로 쓰레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었다.
- 사르데냐의 의료 시스템, 관광객을 위한 응급처치 시스템 마련되었고 이 부분도 의미 있다.
- 성수기를 좀 더 늘려서 7, 8월에만 오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관광객이 꾸준히 더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계획이다. 등산을 하거나 산을 타거나 축제에 오거나. 1, 2개월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수현 교수

- 사르데냐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도시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들었다.

카루치 교수

- 그렇지 않다. 해변가가 현대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하고 자동차가 못 다니게 하는 것은 도시화와는 의미가 다른 것 같다.
- 해변가에서 300m 내에는 새로운 건물을 못 짓게 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카보니 교수

- 사르데냐 내륙지방에 400km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 전동 자전거를 타고 산을 타는 프로그램도 있다.
- 5일 간 해변가 80km를 걷는 길도 있다. 사르데냐 서쪽에서 동쪽으로 120km 걷는 길도 있다.
- 옛날 기차를 만들어서 사르데냐 중앙 지역으로 올라가는 것도 개발 중이다.

박찬식 센터장

- 제주를 유네스코가 지정한 자연유산으로 지질, 생태 자연 경관이 많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있는지, 국립공원 지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관계는 어떠한지?

카보니 교수

- 누라게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다. 로마 사람들이 채취했던 2,000년이 넘는 광산

이 많은데 여기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 몬테데필로도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이다. 사르데냐는 3개의 국립공원이 있고 7개의 해변은 해수욕을 못하는 보전지역이다.
- 사르데냐는 유적지로 만들어진 기념물도 있지만 자연적인 생태경관도 있다.

박찬식 센터장

- 관광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거나 투자유치를 하려는 것과 자연을 지키려고 하는데 있어서 갈등은 없는지?

카보니 교수

- 이 건물만 하더라도 에어컨을 밖에 설치하지 못하고 레조네에서 지정한 규율이 많기 때문에 개발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가 없다. 관광사업의 개발보다는 모두가 레조네에서 지정된 법규를 지켜야만 한다.

박찬식 센터장

- 사르데냐는 1,200만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들었는데, 혹시 관광객 총량제를 통해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건지? 1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것도 고민하는지?
- 관광 관련 통계 자료나 연구 자료가 있는지?

모디카 교수

- 다른 도시와 달리 사르데냐도 사르데냐만의 정체성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이러한 정체성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광객이 오는 것도 한편 배려해야한다. 이런 문제는 오래된 고민이다. 우리 것을 지키면서 사르데냐를 찾아주는 관광객들도 배려해야 하는 것.
- 바닷가의 오염을 담당하시는 단체를 비롯해서 다양한 사회단체,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
- 모니터링을 통해 관광객 수를 비롯해서 분석을 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포화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이다. 이는 사르데냐에서 오래된 작업이며 최근의 문제는 아니다.
- UN에서 발행한 자료, EU에서 발행한 자료, 레조네에서 발행한 자료 등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 일시 : 2017년 6월 16일 16:00 - 17:00

□ 장소 : 칼리아리 대학교 약학대학

□ 면담자 : Caboni 교수 (prof. Pierluigi Caboni)

카보니 교수

- 식품 내 중금속 오염도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식품안전성 연구
- 남서쪽에 알루미늄 공장이 많았고 토지, 물의 오염이 심각하다.
- 칼리아리 시내 습지 근처에(도시 한 가운데) 화학공장이 많은데 불소를 유출하여서 땅이 오염되었다.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는데 안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그 공장 주인이 칼리아리 축구 구단을 가진 사람이다.
- 음식 분석 기계를 통해 올리브 오일을 분석한다.

김현미 교수

- 발효음식과 장수의 연관 관계가 있는가?

카보니 교수

- 여기서 오래 사는 분들이 대개 목축 하시는 분들인데, 오염이 거의 없는 유기농 음식을 먹는다. 유전학적으로는 친족 내에서 결합한 사례가 많다. 사르테냐 인이 지켜온 유전적 특성이 있다. 과학적으로도 유전인자가 있다고 밝혀졌다.
- 장수하시는 분들의 유전자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생활이라는 것이 목축을 하고 풀만 먹는 초식동물인 양, 염소의 유제품을 주로 먹는다.
- 돼지는 가금류로 집안에서 키운다. 소는 나중에 들어왔다. 사르테냐에 소가 길러지기 시작한 것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 사르테냐 전통 치즈는 생치즈인데 열을 가하지 않고 만든다.
- 양유(양젖)의 대부분은 열려서 수출을 한다. 유럽에서 양유의 80%가 사르테냐에서 생산이 되는데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한다. 양유는 분유로 가공되는데 양유는 알레르기가 없어서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다.
- 유럽 내에서는 양유 제품의 유통이 안된다. 냄새가 심해서 수요가 없다. 양젖으로 만든 치즈는 EU 내에서 유통된다.
- 사르테냐에서만 나는 포도 품종인 카노나우에는 폴리페놀 함량이 높다. 적포도주로 5~6일 정도 숙성시켜서 겨울 지나고 마신다. 최대 3~5년 보관이 가능하다.
- 양과 염소 젖으로 만든 치즈 '페코리노'는 전체의 80%가량 미국으로 저렴한 가격에 수출된다. 음식 위에 갈아서 내는 치즈로 사용된다.
- 이 치즈는 파마산 지역에 있는 식품청에서 관리한다. 치즈 생산 가공은 사르테냐 지역의 기업이 운영한다.
- 동물복지란 목동이 목축을 하는 것이다. 사르테냐에서 동물들이 질병에 걸리기는 하지만 집단적으로 전염되지는 않는다.
- 동물들이 잠을 자는 우리에는 공기질 측정기가 있고 창문이 자동으로 개폐된다.

사르테냐 장수 음식의 특징이 있는가?

카보니 교수

- 지중해식 음식의 특징이 있다. 샐러드, 구운 야채, 볶은 야채를 항상 곁들인다. 가지, 호박, 토마토 등 주로 나는 야채들을 먹는다. 2시간씩 식사를 하면서 천천히 먹는다. 대개 저녁을 9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먹는다.

최근 사르데냐 사람들이 주로 겪는 질병이 있는가?

카보니 교수

- 도시화 되면서 현대인들의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면역 결핍 문제가 많다. 크론병과 다발성 경화증이 많이 생긴다. 이러한 질병은 DNA와 관련된 병이지 음식과 관계있지 않다.
- 치즈, 우유, 와인이 장수에 도움 되는 대표적인 요리이다. 치즈와 우유에는 특히 칼슘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 일시 : 2017년 6월 16일 17:00 - 18:00

□ 장소 : 칼리아리대학교 경제학과

□ 면담자 : Patrizia Modica 교수(경제학과 내 회계학 전공, 현재 관광학 전공)

모디카 교수

- EU 유럽 관광 지표 시스템(4개의 지표가 있음)과 접근가능한 관광 프로젝트 진행
- 지속가능 관광 관리, 경영 연구
- Sustainable Island Tourism 책 출판 : 사르데냐 섬에 대한 부분 연구 및 저술함
- 산안티오카 섬에 갈 것을 추천한다. 자연환경 보전의 사례이다. 빨라, 노라 지역으로 가면 레스토랑과 호텔이 우후죽순으로 건설되어 있지만, 산안티오카를 가면 환경이 잘 보전된 사례로 의미가 있다.
- 사르데냐 축제 성인 'Sant'efisio'를 기리는 축제: 5월 1일 개최. 이 축제는 가장 큰 축제로 종교에 관한 축제이다.
- 사르데냐 축제의 사회 경제적 영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 책을 선물로 드리겠다.
- 내가 저술한 Sustainable Tourism Management and Monitoring 책은 6개국의 국제적 관광개발 사례를 분석하였다. 각 사례를 분석하여 지속가능성의 의미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UN에서 이야기하는 지속가능성은 그 수준과 내용의 의미가 각기 다르다. 중국 황산, 보츠나와, 노르웨이, 사르데냐, 제주도 등의 사례를 통해서 각기 다른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연구하였다.
- 내년에 지속가능한 관광과 삶의 질에 관한 큰 국제적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5월

10~11일에 개최되는데, 여러분들을 초대하길 원한다. 특히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의 연구 프로포절을 공모하여 초청할 예정이다. 특히 관광 도착지인 유럽의 여러 중요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한 연구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

- UNICA, South Sardinia Sustainable Research Laboratory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00유로의 참가비가 있지만 인류학을 비롯한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단체가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하고 있다.
- 지속가능성의 경제, 사회, 환경, 관리의 4가지 측면을 연구한다. 예를 들어 국립공원은 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도착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광의 영향성을 지표로 측정하고 계산한다. 지속가능성의 양적인, 질적인 지수를 측정한다.
-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European sustainability index 지표를 볼 수 있다. 일본은 이미 적용해서 측정하고 있다. 하나의 툴 키트를 제공하고 있다.
- 내일 방문할 뿔라에 가면 군사기지가 있다. 또는 북부의 라마달레나 지역에 가면 군사기지가 있다. 사르데냐의 일부 영토에 군사기지가 있다. 그렇게 높은 비율이 아니다. 군사기지과 관련한 문제들은 오랜 역사가 있다. 요즘은 이주와 관련한 문제가 많다. 높은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이다. 청년들의 실업률 문제로 미국이나 다른 유럽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사르데냐로 유입되는 이주민의 경우 북부 아프리카,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 지역 등에서 이주하는데 주로 북부 아프리카 지역이 많다.
- 사르데냐의 해외 투자 유치의 경우 호텔 체인(스타우드, 아코드 등) 북부지방의 경우 아라비안 왕자 아가칸이 투자를 했다.
- 관광객은 이탈리아인이 제일 많고 독일인, 프랑스인, 영국인, 스페인 등에서 많이 온다. 그 외에도 러시아, 스위스에서도 온다.
- 지방 정부는 사르데냐의 다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관광을 개발하려고 한다. 와인, 정체성, 축제, 산악지대 등에 관해 관광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사실 여름에만 해변을 중심으로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준비해 왔지만 겨울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한다.
- 사르데냐의 겨울은 10도 정도이다. 산악지대의 경우 5도 정도로 매우 춥다.
- 제주에 관해 궁금한 것은 Wind Farm(풍력발전 지대) 사례이다.
- 현재 사르데냐의 세컨드 하우스 정책은 장려하지 않는다. 과거에 장려되었으나 지금은 새 건물을 건설하기 어렵다.
- 칼리아리와 사짜리 지역의 경우 서구적인 삶의 방식이지만, 다른 지역의 작은 마을의 경우 두 도시와 달리 슬로우 시티로 관계 중심적이며 도시 문화가 다르다.
- 지속가능성의 철학은 자연, 환경, 문화 보전과 동시에 우리의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
- 사르데냐의 전통과 수공업, 다른 전통적인 생산물, 음식, 와인 등을 지키는 것.
- 지속가능성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선 최소한 5명의 풀타임 연구팀원이 필요한데 학교 안에서 쉽지가 않다.
- 1960년대부터 사르데냐 외부로부터 개발 투자 자금이 유입되었고 외부로부터 투자 유치,

개발은 일반적이다. 아직 사르데냐에는 해외 부동산 투자로 인한 문제는 없다.

- 관광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모니터링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일시 : 2017년 6월 16일 18:00 - 19:00

□ 장소 : 칼리아리대학교 Center Conservation Biodiversity 및 식물원

□ 면담자 : Bacchetta 교수

바체타 교수

- 사르데냐는 지질학적으로 40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2만년전부터 누라게에는 사람이 살았고 다양한 생물이 있어왔다. 여기 식물원은 이탈리아 3대 식물원 중 하나이다. 이 식물원은 페니키아, 로마시대를 거쳐서 2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 지중해는 40만년 전에는 아프리카처럼 매우 더웠다.

- 식물원 내에는 2,000년 정도 된 로마시대 우물, 물보관 탱크로 사용되던 곳이 있다. 판테온처럼 방수층이 콘크리트로 건설되어 있다. 2차세계대전때까지 물탱크로 쓰대개 미군의 공격을 피해서 방공호로도 사용되었다.

- 식물원에서는 개량종과 사르데냐 토종작물을 비교하는 텃밭이 있다.

- 채종한 씨앗들은 실험실에서 채종, 선별, 보관하고 있다. 씨드뱅크에서는 만년 정도 보관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다. 지중해 섬들의 종자를 보관하고 있다.

- 사르데냐에는 약 120종의 포도품종이 있다.

<6월 17일(토)>

□ 일시 : 2017년 6월 17일 14:30 - 16:00

□ 장소 : 기아(Chia)

□ 답사 안내 : 마리아 콘체타 시장, 로베르토 세라 보좌관(준따)

기아지역은 모래 사구와 흰모래 백사장으로 각광받는 해변지역이다. 이탈리아 전역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및 생태 및 자연보존의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상을 받은 지역임.

- 현재 7년째 시장직을 맡고 있음

- 우리와 만나 해안가를 걸어오면서 무단주차된 차들을 발견하셨다. 정해진 구역 외에는 주차가 금지돼있다. 해변 근처에 무단주차한 차를 경찰에 신고하느라 계속 전화를 거셨다.

- 우리 일행을 *(언덕 위 교회 같은 건물/종탑 이름?)으로 데려온 후, 시장님은 기아지역 전망을 보게 한 후, “지금 보는 대로 파노라마 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씀하셨다. 큰 건물을 지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지역민의 정체성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전에 대규모 시설을 지어 관광객을 유치했지만 건물주 외엔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 기존에는(2004년 레지오네 자체법 규정) 해안가로부터 300미터 떨어진 곳에서만 건물을 짓

게 했지만, 지금 500미터로 그 기준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해변에 카페나 바를 못 짓게 한다. 사르데냐 레지오네 자체법으로 이탈리아 국법보다 강한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다. 지금 보이는 해변 숙박시설은 이 법이 적용되기 전인 50년 전 건축물이다.

- 모래사장이 뜨거워도 사람들은 걸어 들어와야 한다. 이를 위해 나무로 해변까지 보행로를 만들었다.

- 해변에 자신의 물건은 못가지고 들어온다. 해변 근처에는 기아 지역에서 설립한 샤워시설이 하나 있고, 여기서는 샴푸, 린스 등은 못쓰게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숙소에서 샤워를 하게 한다. 샴푸, 린스 사용한 물은 다른 곳에 재사용한다. 이를 위해 숙박시설 운영하는 분들에게 7~8번 교육을 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그 안에 영수증 같은 것을 찾아, 사람을 알아내서 1000 유로의 벌금을 물린다.

해수욕장에서 개인 영업이나 취사를 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정에 반대한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다. 법적 소송까지 비화됐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원고 측(레지오네 당국)이 승소하였다.

- 기아 관광의 목표는 주로 7,8월에만 몰리는 관광객을 연중으로 분산시키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로맨스 보트를 띄우거나 트레킹 코스, 승마코스를 개발한다. 승마를 해도 말은 해변으로 갈 수 없다.

- 지속가능한 관광은 관광을 막는 것이 아니다. 관광객의 장기적 체류와 연중 분산을 위해 노력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 환경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

<6월 20일(화)>

□ 일시 : 2017년 6월 20일 오전 10시 - 11시 30분

□ 장소 : 사싸리 대학교 농과대

□ 면담자 : Antonio Piga 교수 면담

김은실 교수

한국 사회에서 먹거리 위기 속에서 제주 먹거리는 청정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다. 사르데냐의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달라.

피가 교수

사르데냐는 산업단지 지역에 오염문제가 많이 있다. 인구는 칼리아리, 사싸리, 알게로 순으로 사람들이 많이 산다.

여기는 두라노 듀럼밀 생산으로 유명하다. 로마 제국 시대에 밀을 생산해서 로마로 보내었다. 찢득하고 거친 밀이다. 로마시대 이후에야 오일과 와인도 이후에 보내어졌다. 사르데냐의 해변가 쪽으로 식민지역이 많았고 이 지역에서는 로마로 밀을 보내야했다. 내륙 지역은

로마에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밀을 로마로 보내지 않았다. 지금은 옛날만큼 밀 생산을 하지는 않지만 현재 7만 킬로를 생산하고 있다. 이 밀은 부드러운 빵을 만드는 밀이 아니다. 사르데냐에는 70가지 종류의 빵 종류가 있는데, 모두 이 밀로 만든다. 카라사오 빵은 목동들이 먹었던 빵이다. 카라사오는 몇 달 간 보관이 가능하다.

김은실 교수

제주 전통 음식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사르데냐 음식은 이탈리아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피가 교수

올리브 오일, 와인, 빵이 있다. 올리브 종류가 좀 다르다. 와인도 좀 다르다. 사르데냐에는 양이 사람보다 더 많다. 한사람 당 2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양 외에는 염소랑 소도 기른다. 치즈, 페코리노 치즈(양젖 치즈)는 3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목동들이 만드는 치즈가 있다. 생우유로 열을 가하지 않고 만든다. 훈제 치즈도 있다. 여기서 자라는 나무를 사용하여 훈제 치즈를 만든다. 페코리노 사르도는 상업화된 페코리노 치즈이다. 로마 페코리노이다. 로마에서 라찌오 주에서 생산이 된다. 페코리노의 90%가 사르데냐에서 생산된다. 50% 이상은 수출을 한다. 카라사오는 얇은 빵이고 스피아 다나는 얇은 빵을 두 개 구운 후 다시 붙여서 굽는 빵이다. 세라노 밀을 사용하여 딱딱한 빵을 굽는다. 돌체(디저트 종류)가 유명하다. 아몬드가 많이 들어간 디저트이다. 리코타로 만든 사르데냐 전통 간식도 있고 돌체가 유명하다. 사프란과 리코타 치즈를 넣은 돌체가 유명하다. '세하다스'는 사르데냐에만 있는 디저트이다. 올리브유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성 지방을 사용하는 파스타이다. 사르데냐에는 돼지를 각 집마다 키우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으로 돼지기름을 많이 사용했다. 돼지기름으로 스트로토라는 쇼트닝을 만든다. 튀김이나 디저트 용 파스타 만들 때 넣는다. 세하다스의 파스타는 튀겨서 만든다.

김은실 교수

글루텐 프리 연구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피가 교수

글루텐 프리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사르데냐 사람들이 셀리아카라는 질병이 많다. 글루텐으로 인한 면역 결핍 질병이다. (풍토병인가?) 사르데냐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이다. 70명 중 1명이 글루텐으로 인한 면역 결핍을 갖고 있다. 이 질병은 최근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대 질병이다. 옛날에도 있었겠지만 밝혀지지 않았을 수 있다. 이 질병으로 밝혀진 사람들에게는 정부에서 한 달에 100유로 지원하고 있다. 검사비도 무료이다. 글루텐 프리는 약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음식으로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이향철 교수

그라노 듀럼은 재래품종인데, 글루텐 질병이 재래품종이 아닌 개량품종 밀로 인해서 생기는 것인가?

피가 교수

둘 다 글루텐이 많은데 GMO 문제라기보다 밀 품종과 관계없이 생기는 병이다. 글루텐이 빵을 부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물론 빵을 만들 때 그게 필요하다. 이스트와는 다르다. 글루텐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 조직이 그물 모양으로 가스가 생기면서 부풀다. 글루텐이 있어야 빵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된다.

이향철 교수

밀 품종에 따라 글루텐 생성 비율이 다르지 않은가?

피가 교수

그렇지 않다. 거의 비슷하다. 밀 품종은 관계가 없다. 1Kg의 밀에 소량의 글루텐 10밀리그램만 있어도 질병에 영향을 준다. 밀이 있었던 공장에서 다른 음식을 생산해도 이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글루텐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쌀로 만든 파스타나 다른 종류 곡물을 사용해야 한다.

김은실 교수

교수님이 진행한 연구에 대해 설명해달라. 사르테나 로컬, 전통음식들을 연구하는지? 사르테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

피가 교수

음식 과학기술과는 좀 다르다. 글루텐 없는 먹거리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농업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한다. 어떻게 재배하는지, 약을 덜 치고 물이 적더라도 가능한 농업 재배, 지속가능한 농업 재배에 대해서 연구한다. 쌀, 밀, 채소, 과일도 있고 축산연구도 한다. 동물 복지가 있어야지만 생산물도 더 건강하고 이롭다. 음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이다. 1차 산업으로 생산되는 생산물들이 음식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생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연구한다. 주정부, 중앙정부, 유럽공동체 등에서 지원을 받는데 주로 레조네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다.

김은실 교수

연구 주제를 제안 받는가 아니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가?

피가 교수

프로젝트를 우리가 지원해서 선정되어야지만 지원을 받는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다 통과되는게 아니라 거기서 경쟁을 해서 통과되어야만 한다. 레조네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 이유는

사르데냐 사람들만 응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싸리와 칼리아리 대학에서 주로 지원하고 연구를 받는다. 여기 대학이 두 개 있어도 다른 대학의 연구팀도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다

김은실 교수

사르데냐 1차 산업 생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피가 교수

여기 조상들이 해왔던 1차 산업은 원래 하고 있었던 것을 했던 것뿐이다. 지금은 사르데냐의 토종 먹거리를 지키는 것. 예를 들어 양 젖으로 만드는 치즈는 사르데냐가 최대 생산 지역이다. 양 사육의 경우 현대적으로 산업화 되었다. 기계화 되어서 생산한다. 옛날 생산방식은 모두 현대화되어 있다. Agri tourism 이라고 해서 농가에서 숙박하고 음식도 먹고 하는 것이 있다. 축산을 하는 농민들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하고 있다.

장수현 교수

사회가 변화하는데 사람들이 사르데냐에서 생산한 음식들에 대한 수요가 생산과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가?

피가 교수

매년 상황이 다르다. 미국에서 페코리노 치즈를 만들기 위해 양젖의 80% 이상을 거의 다 미국에서 수입해간다. 미국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된다. 미국에서 파스타에 갈아 넣는 치즈로 가공된다. 생산량과 소비량은 큰 변동 없이 거의 비슷하다. 전 세계적으로 치즈 소비는 감소하고 있다. 치즈 소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안 먹어서라기 보다 다이어트 중에 하나인 채식주의가 늘어나고, 혈관 질병으로 인해 지방이 많은 치즈를 안 먹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사르데냐 음식을 많이 찾는다. 해수욕장 주변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이들이 사르데냐의 빵, 오일, 와인 등을 먹고 이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사르데냐 음식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수요가 아주 높지는 않다. 과일이나 야채는 주로 외부에서 수입한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외부 지역에서 가져온다. 코나드나 큰 유통업체를 통해서 야채나 과일을 가져온다.

김은실 교수

먹거리 자급자족 비율은 어떠한가?

피가 교수

야채와 과일의 80%는 외부에서 들어오고 그 외에는 여기서 생산이 되긴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방 와인, 파마산 치즈, 스위스 치즈 등도 수입된다.

김현미 교수

사르테냐 1차 산업 농업에 있어서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가? 예를 들어 종자 보호, 외래종 수입 금지 등

피가 교수

페코리노 3개의 치즈 종류, 올리브 오일, 카르초피 등에 있어서 특허권이 있지만 다른 곳에서 절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는 섬이라 대량으로 유통하기가 어렵다. 배와 항공으로 옮겨야 하고 유통에 있어서 항상 세관 문제도 있고. 돼지고기 등 몇 가지 음식은 외부로 반입이 불가하다. 프로슈토와 같은 축산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돼지와 같은 가축 등은 구제역 문제로 인해서 외부로 반출 반입이 불가능하다. 풍토병 중에 20년 전부터 돼지 흑사병이 있었고 사르테냐의 생 돼지고기, 살라미, 프로슈토 등의 반출은 안 되고 익혀서 가공포장된 돼지고기는 반출이 가능하다.

이향철 교수

사르테냐의 식문화가 장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김은실 교수

오키나와, 사르테냐, 제주 섬은 장수하는 지역으로 유명하고, 음식문화가 영향을 끼쳤다는 이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피가 교수

장수가 음식에서 온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음식이 도와주기는 한다. 어느 정도는. 사르테냐의 어떤 동네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92살이다. 못사는 동네 중에 하나이다. 이 마을 사람들을 너무 가난해서 음식을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다. 사실 사르테냐 사람들의 DNA 유전적 문제, 이 지역의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 전통음식을 현대 사람들이 먹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김은실 교수

비만 문제는 어떠한가?

피가 교수

젊은 층에서 현대 음식 문화로 인해 비만 문제가 있다. 옛날 음식을 먹는게 아니라 빨리 해 먹을 수 있는 가공된 음식, 습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비만 문제가 심각하다. 사르테냐 사람들은 조금 먹고 일을 많이 했다. 현대와 많이 달랐다.

김효정

유기농 생산은 어떠한가?

피가 교수

페코레, 양 같은 경우는 풀만 먹기 때문에 자연 생태 그대로에서 키운다. 전부 유기농이다. 올리브 오일이나 와인도 사르데냐에는 유기농으로 생산하고 있다. 땅이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기농인 것이다.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다. 스페인이 들어오고 1600년부터 17세기 이후에 올리브 오일이 생산되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없었다. 동물성 지방을 사용하거나 여기에서 생산되는 피스타키오 나무 열매로 짠 기름을 사용한다.

김현미 교수

돼지는 주로 집에서 기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육하는가?

피가 교수

개처럼 남는 음식, 잔반으로 기른다. 돌아다니다가 도토리를 먹거나 한다. 돼지가 알아서 찾아 먹도록 풀어놓는다. 지금은 소를 많이 기르고 소 우유를 생산한다. 오리스타노 지역에 트레아라는 공장에서 우유, 요구르트를 생산한다. 무솔리니가 만든 3개의 동네 중에 하나로 알게로 지역 근처이다. 탄광지역, 축산지역(소 사육).

김은실 교수

선생님의 최근 연구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피가 교수

글루텐 프리, 영양적인 측면에서 단백질과 비타민이 함유된 글루텐 프리. 꽃가루를 이용해서 글루텐 프리 밀가루의 영양소를 보충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설탕 대신 꿀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한다.

김은실 교수

한국은 쌀이 주식인데 밀가루가 미국에서 수입되면서 밀가루에 있는 단백질이 중요한 캠페인이었다. 현재 젊은 세대들을 포함해서 식문화 변화로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피가 교수

쌀은 소화가 잘 되고 중요한 곡물이다. 오리스타노 지역에서 주로 쌀 생산을 하는데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한다.

김은실 교수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알러지 질병이 많고 밀가루는 대부분 수입을 한다. 그러나 청년 세대는 쌀을 먹지 않는다. 사르데냐에서 쌀 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좋아하는지?

피가 교수

글루텐 프리를 연구하고 있는데 밀가루 대신 쌀이 안전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다. 쌀과 밀가루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음식은 다양하게 소비해야 한다.

김은실 교수

한국은 쌀과 밀가루에 대한 고민이 많다. 한국에는 밀가루로 가공한 식품 시장이 매우 크다. 밀가루와 쌀 비교 연구에 관심이 있는지요?

피가 교수

밀가루와 쌀은 비교 군이 아니다. 농과대학에서는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음식을 분석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나는 음식의 영양학적인 측면은 잘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글루텐 프리니까 쌀만 먹으라고 하면 우리는 절망적이다. 쌀로 만든 파스타도 먹고 하지만 우리의 음식 문화 습관에서는 맞지 않다.

김현미 교수

베리 종류 생산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피가 교수

오리스타노 지역에서 딸기 생산. 블루베리는 야생에서 생산한다. 미르또를 만다는 건 블루베리랑 완전히 다르다. 미르또는 이 지역 재래종 베리이다.

□ 일시 : 2017년 6월 20일 12:00 - 13:40

□ 장소 : 사싸리 대학교 역사학과

□ 면담자 : Dino Manca

디노 교수

제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Grazia Deledda의 문학에 관해 쓴 책이다. 'Cosima'는 꽃 이름인데 텔레다가 돌아가신 후 그녀의 생애에 대해 쓴 책이다.

김은실 교수

오르고솔로, 그람시 박물관에 갔다. 20세기 사르데냐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텔레다 작가가 1926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는데 당시 사르데냐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디노 교수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르데냐의 문학사에 대한 것이다. 지역에 따라 상황이나 문화, 역사가 조금씩 다르다. 언어도 그렇고. 사르데냐 말은 이탈리아 말의 방언이 아니라 사르데냐어가 따로 있다. 500년에는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했다. 사르데냐어, 이탈리아어, 스페인

어. 스페인으로부터 400년의 정복당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역사학이 다른 문학연구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 1802년에 이탈리아가 통일이 되면서 사르데냐어와 이탈리아어 두 개만 사용하게 되었다. 사르데냐어로는 시를 많이 썼고 노래를 부르거나 했다. 이탈리아 말로도 많은 작품이 쓰여졌다. 그라지아는 이탈리아말로 주로 작품을 썼다. 그러나 소설은 이탈리아말로 썼지만 사르데냐의 문화와 민족지를 많이 묘사했다. 사투리를 통해 인물을 말을 표현했다. 사르데냐 말을 이탈리아 말로 번역해서 작성했다. 문학에서 여자로서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그라지아 선생님은 이탈리아에 1909년에 정치에 참여하였고 당시 여자들은 선거 참정권이 없었는데 정치에 참여하였다. 그라지아 선생님이 선거에 나갔었는데 당시 여성에 반대하는 분위기였기에 34표를 받았다. 그라지아 선생님이 노벨 문학상 후보로는 13번 올라갔었고 마지막에 문학상을 수상했다. 1927년에 문학상을 탔다. 26년에는 요소를 다 갖추지 못해서 27년에 수상하였다. 노벨 문학상을 26년에는 아무도 받지 못했다.

김은실 교수

문학이 이 사르데냐 지역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하는지? 당시 사르데냐가 정치적인 색이 강한 것 같고, 그라지아 선생님도 정치활동을 했던 분이고. 그라지아 선생님이 쓴 책이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지?

디노 교수

텔레다 선생님 책은 2007년에 처음 독일 베를린, 다음으로 프랑스 파리,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동시에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이후에 러시아어 등으로 출판되었다. 텔레다의 글은 사르데냐만의 문제만 다루지 않았고 다른 세계적 문제들을 함께 통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향철 교수

소설 책에 오르고솔로 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악당이기보다 우리 지역의 영웅으로 문화와 역사를 지키는 존재로 재현하고 있는 것 같다.

디노 교수

텔레다 선생님이 쓴 책이 32권, 짧은 글이 240개 정도이다. 굉장히 다작을 하셨다. 문학적으로 이 세계를 어떻게 그렸는가가 중요하다. 오르고솔로뿐만 아니라 사르데냐의 자연환경과 문화에 대한 묘사가 많다. 사르데냐 사람들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많이 썼다. 사르데냐 사람이라는 유일성을 강조한다. 사르데냐가 세계의 중심으로 표현한다. 선생님은 텃줄로서 땅의 어머니와 연결된 곳을 사르데냐라고 생각한다. 어디에도 오염되지 않은 사르데냐의 풍경들, 기억에 대한 주제가 많다. 사르데냐에 대한 향수를 많이 이야기 한다. 여기 있는 분들도 한국에 대한 향수를 느끼지 않은가? 멀리 이주한 분들의 향수가 아니라 사르데냐에 있으면서 사르데냐의 과거에 대한 향수이다. 물리적 거리의 향수가 아니라 사르데냐에 사는 사람들의 과거 사르데냐, 오래된 사르데냐에 대한 향수이다. 신적인 존재로서. 땅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컸다. 독립된 하나라는 섬의 문화는 외부는 모두 나쁘다는 관념이 크다.

박찬식 교수

섬 우주관이 있다. 제주도 그러하다. 텔레다 소설 가운데 신화, 역사, 문화, 전통이 중요한 것 같다.

디노 교수

그러하다. 그러나 이것은 소설이기 때문에 사실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들이다. 러시아 문화에도 영향을 받았고, 민속적으로 사르데냐 사람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의 역사도 포함된다 (지역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포함함). 민속적 신앙도 포함되어 있다.

김현미 교수

사르데냐 사람들의 기질에 대해 묘사해달라.

디노 교수

지역적으로 도시마다 성격이 다 다르다. 사르데냐가 4개로 나뉘어져있었는데 사르데냐는 4개 이상으로 다르다. 사르데냐 안에 많은 사르데냐가 있다. 언어도 수십 개다. 사르데냐의 다양한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특정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어떤 작가들은 사르데냐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향철 교수

오르고 솔로의 저항성에 대해 설명해달라.

디노 교수

오르고솔로는 라틴어에 가까운 언어를 사용한다. 바바지아 동네에 있는 하나의 도시가 오르고솔로이다. 산악 지대에 있어서 고립의 역사와 문화가 있고, 정체성을 지키고자하는 자존심이 강하다. 오르고솔로 사람들의 저항성이 있다. 이탈리아 사람들과 사르데냐 오르고솔로 사람들이 안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많았다. 물론 그들이 마피아와 비슷한 나쁜 측면도 있다.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그런 문화도 있다. 좋은 의미의 저항도 있었지만 총을 사용하기도 했었다.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국가의 법제도가 있는데, 오르고솔로의 사람들은 자신의 여자와 땅, 가축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의 사람들을 다 죽여 버렸다. 경찰을 죽이기도 했다. 반디티즘은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이 지역 사람들은 정부의 측면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영토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외부자들을 모두 총으로 쏘버렸다.

김은실 교수

텔레다 선생님은 국제 사회 속에서 과시즘을 비롯한 이탈리아의 역사 속에서 사르데냐를 어떻게 설명하고자 했는가? 그라지아 선생님은 좀 더 지역적 의미를 강조한 것 같다.

디노 교수

그람시는 사상적, 철학적이면서도 정치적인 사람이었다. 이탈리아에서의 코뮌리즘이라는 말은 러시아의 코뮌리즘과 다르다. 이탈리아 역사에 기반한 코뮌리즘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텔레다의 책에는 정부와의 싸움과 같은 정치적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열정, 사랑, 인생의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정치나 혁신의 색깔을 갖고 있지 않다. 신적인 존재를 다루는 주제가 하나 있고 미스터리적인 이야기들. 종교를 알게 되고 변화하는 모습. 내가 잘못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종교에 가까이 가게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썼다. 그람시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와 코뮌리즘을 대표하는 생각과 철학적 문제이지만 텔레다는 종교적인 신적인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사르데냐 사람들이 내가 잘못을 깨닫고 신을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 그람시는 파시즘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다. 국가에 저항하는 내용보다는 자신이 관심있어했던 주제를 주로 썼다. 텔레다 선생님의 글을 파시즘과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술가들처럼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중립적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다.

장수현 교수

사르데냐 문학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제주는 외부로부터의 침입과 침략, 억압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서 이를 반영하는 문학이 많이 발달하였는데, 사르데냐도 그러한 문제를 다루는 문학의 전통이 있는지?

김은실 교수

그라지아 선생님을 포함해서 사르데냐가 로마와 같은 다른 지역의 문학가 차이가 나는 계보가 있는지?

디노 교수

사르데냐에는 특히 역사에 대한 문학이 많다. 오르고솔로 뿐만 아니라 사르데냐 사람들의 저항에 대한 글이-중앙 정부, 국가의 법, 제도에 저항하는- 많다. 이탈리아어 뿐만 아니라 스페인, 사르데냐말로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다.

김현미 교수

요즘 연구하시는 관심 분야가 무엇인가요?

디노 교수

텔레다의 책에 대한 분석이다. 텔레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학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향철 교수

텔레다 작품 중에 신화나 전설, 설화에 관한 책이 있다고 들었다.

디노 교수

물론이다. 노벨문학상을 탄 책뿐만 아니라 신화나 설화에 관한 글도 많이 썼다. 텔레다는 초기에 민족과 전통에 대한 글을 쓰는 것으로 시작했다. 사르데냐의 역사와 설화, 민속에 관한 이야기가 텔레다의 글 덕분에 많이 알려질 수 있었다. 텔레다는 누오로에서 살다가 칼리아리에서 살다가 30살에, 1900년에 로마로 이주하였다. 로마로 떠난 후로 간혹 사르데냐로 잠깐씩 다녀가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예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가실 적에는 로마에 있었다. 사르데냐에 자주 오지는 못했다.

김은실 교수

텔레다의 문학이 다른 사르데냐 문학에 영향을 주었나?

디노 교수

그렇다. 이탈리아라고 하면 만조네가 제일 유명하지만 사르데냐라고 하면 텔레다가 제일 유명하다.

김은실 교수

텔레다의 작품에서 사르데냐의 정체성, 소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사르데냐인은 누구인가? 텔레다가 사르데냐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양식에 있어서 다른 사르데냐 작가들이 텔레다의 표현 방식을 차용하는가?

디노 교수

아니오. 사르데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사르데냐 사람들에게 텔레다는 영웅적인 사람이다.

사르데냐는 이탈리아의 주일뿐만 아니라 유럽 공동체에도 소속된 지역이다. 이탈리아에 한정된 지역이 아니다.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된 것은 유럽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텔레다의 글은 수많은 영화로 만들어졌다. 텔레다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으나 지금은 그녀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 사르데냐에는 ‘두 사람’(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이 사르데냐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한 명은 텔레다이고 다른 한명은 아르보네아라는 여왕이다. 아르보네아는 중세시대 인물이다. 중세에 여성의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중세에 여왕이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이다.

이향철 교수

텔레다의 작품에서 누오로 지역의 정체성을 여성성, 모성으로 표현하고 외부의 침입을 남성성에 비유하였는가?

디노 교수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 모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이 일부 있다.

박찬식 교수

사르데냐의 인슐라리타에 대해 설명해달라.

디노 교수

인슐라리타는 고립이 아니다. 인슐라리타는 왕정이 커지면서 로마 황제시대, 스페인 마드리드와 왕정이 생기면서 다져진 문화라서 그렇지 고립된 문화가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사르데냐 사람들의 환대, 친절함에 대해서 생각해볼길 바란다. 사르데냐 정체성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외부인들에게 환대하고 나누는 것에 자부심이 있다.

박찬식 교수

제주도 인슐라리타가 있다. 외부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동시에 외부인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다.

디노 교수

외부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관용이 있다. 로마는 여전히 과시증적인 외부인들을 단절하는 것이 있는 반면 사르데냐는 외부인을 환대하는 관용이 있다. 왜냐면 우리는 페니키아, 스페인, 로마, 다양한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런 다양성이 우리의 관용과 환대의 기원이다.

김효정

텔레다가 쓴 재밌는 창조 신화나 설화에 대해 설명해달라.

디노 교수

텔레다의 글은 사르데냐에 특정된 전설보다는 페니키아에서 들어온 전설이기도 하고 신화이기도 하다. 어머니 여신, 신화에 대한 것이다.

□ 일시 : 2017년 6월 20일 15:00 - 16:30

□ 장소 : 사쓰리 대학교 부총장실

□ 면담자 : 사쓰리 대학교 Luca Deidda 부총장 및 Luciano Gutierrez 국제교류처장 외 2인

국제교류처장

네트워크 시스템. 섬에 있는 대학들과 대학교육을 하고 있다. 캐나다 섬, 크레타 섬 등 섬에 있는 대학들과 대학교 네트워크가 있다. 제주대학교도 함께 협력하면 좋을 것 같다. 코르시카와 사르데냐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제주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쓰리 대학에서 초대할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하다.

김은실 교수

사르데냐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학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총장

지형적 접근의 문제 상 사르데냐의 문제도 있지만 지중해 안에서 또 사쓰리 지역 내에서의 문제도 함께 접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르데냐는 이탈리아 중앙정부 아래에 귀속되어 있다.

산학협력단장

옛날에 사르데냐에 공장이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 가격 경쟁에서 지게 되고, 많은 산업단지들이 문을 닫았다.

총장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으로 인해 사르데냐의 경제는 심각한 문제이다.

국제교류처장

에너지 지불 비용이 비싸다. 수송비용도 비싸고 운반비용도 비싸다. 고 퀄리티에 비싼 제품들은 아직 경쟁력이 있지만 아닌 물건들은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사르데냐 티스칼리 지역에 독립적인 전화회사가 있었지만 현재 문을 닫았다.

총장

칼리아리에는 농학과 수의학이 없지만 사짜리에는 있다. 그러나 사짜리에는 공학이 없고 칼리아리에는 공학이 있다. 나폴리 대학에는 동양학(아시아 연구)이 있다. 우리는 아시아지역과 교류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길 원한다. 세계시장에서 사르데냐 대학이 다른 학교들과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특성과 수단을 가져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좋은 음식과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경쟁 시장에 내놓고 최종적으로 팔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다.

박찬식 센터장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시장 개방경제가 범람하고 있다. 제주도도 15년 전부터 경제시장을 개방했다. 스페인 마르요카와 유사하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제주는 난개발, 부동산 거품, 환경 문제에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총장

쓰레기 문제는 관광객들만의 문제라기 보다 사르데냐 사람들 주민들 자체도 개혁이 되고 있다. 관광객도 문제지만 사르데냐 주민들도 분리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르데냐의 문제이다.

지속가능한 관광과 관련하여 물에 대한 문제가 있다. 여름에는 가뭄이 심한데, 댐에 물을 가두어서 사용한다. 반면에 겨울에는 물이 풍부하다. 마치 물 문제처럼 사르데냐에는 여름에는 관광객이 많았다가 겨울에는 적어진다. 해변가 중심의 관광산업으로 인해 여름에 관광 붐이 올라갔다가 두세 달 지나면 조용해진다. 물이 여름에는 부족하다가 겨울에는 물을 가둘 장소가 없을 정도로 물이 너무 많다. 사르데냐가 현재 가진 두 가지의 님은 꼴 문제이다. 사르데냐에는 사막처럼 버려진 땅이 너무 많다보니 그런 땅에 대한 개발의 여지는 없다. 대부분 해안가를 중심으로 관광산업과 연관되어 사람들이 더욱 모여 살게 되고 내륙지방에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박찬식 센터장

중국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대자본이 들어와서 대량 관광(Mass tourism)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어떠한가?

총장

알게로의 많은 술집, 바들은 외국인 소유이다.

국제교류처장

나폴리의 마피아들이 현금으로 땅이나 가게를 조직적으로 사버린다.

총장

마피아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반면 반디트는 개별적이라 별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장수현 교수

사르데냐에 대한 해외투자는 어떠한가?

산학협력단장

레조네에서는 해외 투자 유치를 원한다. 그러나 해외투자는 비정기적인 것이라 정기적인 투자를 원한다.

국제교류처장

장수에 관한 해외 지원 연구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유전적인 문제였다. 한편으로는 빈혈이나 지중해 지역의 풍토병이 많다.

총장

사르데냐의 장수는 다른 인종과 많이 섞이지 않은 DNA가 유전된 특징이 있다. 사르데냐의 특정 지역에는 이주나 혼혈도 많지만 내륙지방의 지형적 고립특성으로 장수 마을들이 있다.

김현미 교수

사르데냐에 왜 군사기지가 많은가?

국제교류처장

지리적 특징이 있다. 사르데냐는 이탈리아보다 튀니지와 가깝다. 지중해 안보의 문제와 연결된다. 또한 사람들이 안사는 땅이 많기 때문에 이런 땅에 군사기지가 들어섰다.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미군관련 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

김현미 교수

로켓 실험 지역의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산학협력단장

미군기지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데 있어서 경제적 관점이 있고, 또 자연을 위해서 없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미사일 실험이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미사일 실험 때문에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는 상관관계는 아직 연구 및 평가 중이다.

우라늄 레이저 건은 분명하게 암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산업단지와 공장도 암을 발생시킨다. 왜 공장은 이야기 하지 않고 무기실험과 미사일 실험만 이야기하는가? 묻고 싶다. 미군 기지로 인해서 미군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분명하게 나뉜다. 하나의 사례로 미군 핵잠수함이 있던 도시는 미군이 나가고 나서 현재 유령도시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핵잠수함이 떠나면서 지역에 일자리가 모두 사라지고 사람들은 동네에서 떠나버렸다. 핵잠수함이 해당 지역의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사실관계도 밝혀지지 않고 무조건 군사기지를 없애자는 것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된다.

국제교류처장

미군기지 덕분에 다른 개발이나 건설이 되지 않았다. 그 덕분에 지금은 국립공원이 될 수 있었고 생태환경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총장

사싸리 대학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함께 협력하면 좋겠고 앞으로 함께 할 일을 찾으면 좋겠다. 오늘의 미팅은 오픈되어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향철 교수

제주와 사르데냐의 자치제도,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 유사한 제도와 문화, 역사가 있다. 제주와 사르데냐가 고도의 자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길 바란다.

올리세라는 시스템이 있고 해외에서 온 박사과정생들이 대학등록금을 지원받는 제도가 있고 교수들의 방문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주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거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1주~3주에서부터 6개월까지 방문 초청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 학생들이 석사 박사를 올 수 도 있고 여기 사싸리 학생들이 한국과 제주로 갈수 있다. 이런 연구들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진

연구책임	박찬식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공동연구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대학원
공동연구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공동연구	이향철	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공동연구	장수현	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공동연구	김효정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대학원
공동연구	임승희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연구 47

세계 섬 문화 비교 연구

- 사르데냐와 제주도 -

발행인 || 강기춘

발행일 || 2017년 12월

발행처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도 동광로 51, 3층

전화: (064) 726-5623 팩스: (064) 747-6140

홈페이지: www.jst.re.kr

인쇄처 || 디자인누리

ISBN : 978-89-6010-587-4 93090

-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